19세 미만 구독 불가



청색을 앓는 해안선

소라 장편소설

청색을 앓는 해안선

소라 장편소설

0.

쿠제 타케오는 가끔 어깨가 내려앉을 듯한 무게를 느꼈다. 머지않은 혼례는 알게 모르게 그를 짓눌러 마음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도쿄제국대학 교문을 빠져나와 혼고 거리를 걷던 중,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킷사텐(찻집)의 노란 불빛이 오늘따라 나를 환영하는 듯했다. 그는 이끌리듯 가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 주문한 홍차에서 피어오른 뿌연 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김은 마치 자유롭게 춤을 추듯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차라리 내가 저 김이라면 좋을 텐데'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다.

가게 구석의 축음기에서는 베시 스미스의 'Nobody Knows You When You're Down and Out'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When I began to fall so low I didn't have a friend and no place to go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갈 곳도 친구도 없었지)."

마치 자신의 심경을 쿡 찌르는 듯한 가사에 위로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걷잡을 수 없는 울적함이 밀려왔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유작 『갓파』를 펼쳤지만, 책장에 스며든 불안과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곧 책을 덮었다.

기분 전환이 절실했다.

시내 전차를 타고 니혼바시 마루젠 서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시집 『The Goblin Market』과 헤르만 헤세의 신간 『 Narcissus and Goldmund 』를 골랐다. 오늘 밤, 그는 활자 속에 파묻혀 이 지독한 현실에서 도피할 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긴자의 바 '루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모던걸들과 대화를 나누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이니셜이 새겨진 차가운 은제 담뱃갑에서 시키시마 한 개비를 꺼내 긴 홀더에 끼우자, 옆에 앉은 히로시가 재빨리 성냥을 그어 불을 붙여주었다. 타케오는 고개를 살짝 까딱여 인사를 대신했다.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는 태도였으나, 그의 몸에 배어있는 우아함 때문인지 히로시는 별다른 기색 없이 웃어넘겼다.

타케오는 주문한 압생트 잔 위에 구멍이 뚫린 정교한 은제 스푼을 걸쳤다. 그 위에는 새하얀 각설탕 한 덩이가 마치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차가운 물을 한 방울씩 설탕 위로 떨어뜨렸다. 투명했던 비취색 액체가 물과 섞이며 뿌연 에메랄드빛으로 흐려지는 모습—그것은 마치 타케오 자신의 혼탁해진 속내를 투영하는 듯했다. 설탕은 물에 녹아 술잔 바닥으로 스며들었지만, 타케오는 그것이 이 지독한 삶의 쓴맛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라 믿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혀끝을 찌르는 강렬한 아니스 향과 뒤이어 밀려오는 지독한 쓴맛.

설탕의 단맛은 맹렬한 알코올 기운 아래 비겁하게 숨어버린 뒤였다. 중간중간 치즈와 크래커로 위를 달랬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쉬이 풀리지 않았다.

모던걸들이 흥미 어린 눈길로 말을 걸어왔으나, 그의 까칠하고 냉담한 반응에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물러났다.

술기운이 몽롱하게 올라올 즈음, 타케오는 바텐더에게 종이 한 장과 펜을 청했다. 그는 펜을 굴리며 잠시 망설이다, 방금 산 로세티의 시집 갈피에 끼워둘 짧은 메모를 남겼다. 수신인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곧 만나게 될 장래의 신부 혹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유언 같은 문장이었다.

[녹아버린 설탕은 어디로 갔는가. 쓴맛은 여전한데 희극은 시작되려 한다.]

그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종이를 접어 품 안의 시집 속에 아무렇게나 끼워 넣었다. 고립감을 만족스럽게 즐기며, 시시한 철학적 담론이 이어지는 바를 홀로 빠져나오는 그의 뒷모습 위로 재즈 선율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백한 달빛과 긴자 욘초메의 화려한 백화점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의 날카로운 윤곽이 은빛으로 흘렀다. 완공을 앞두고 거대한 골조를 드러낸 시계탑의 실루엣이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다. 가림막에 둘러싸인 채 지어져 가던 시계탑의 거대한 그림자가 타케오의 발치까지 길게 뻗어왔다. 아직 시계가 걸리지 않은 꼭대기의 빈 구멍은 마치 타케오의 미래를 삼켜버릴 거대한 눈동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 너머로 우뚝 솟은 그 미완의 탑은, 그가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의 형틀이 착착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백화점 너머, 어둠 속으로 뻗어 나간 전차 선로를 바라보며 덧없는 상상에 빠졌다.

‘차라리 이대로 도쿄역으로 달려가 토카이선 밤 기차에 몸을 싣고, 도시의 소음 너머로 도망가 버릴까.’

그러나 그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고요한 방으로 돌아오자, 긴자의 화려한 잔상과 적막한 고독 사이의 괴리가 허무함으로 밀려왔다. 창밖에서는 서늘한 미풍이 불어온다.

타케오는 낮에 산 로세티의 시집을 펼쳤다. 그리고 시 'Remember'의 한 구절에 멈춰 섰다.

[Better by far you should forget and smile than that you should remember and be sad (슬퍼하며 기억하는 것보다, 차라리 웃으며 잊는 편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는 그 문장 아래에 짙게 밑줄을 그었다. 그것은 다가올 내일에 대한 예보이자, 자신에게 건네는 유일한 위로였다.

1.

내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나 누렸던 영화는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내일이면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내에게 기탁될 가련한 제물이 됩니다. 승전국은 우리 왕실의 씨를 말리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일본 제국을 만들겠다며, '내선일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몰락해 가는 가문의 사내를 골라 나와 맺어 줌으로써, 나의 고귀한 혈통을 모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망국의 꽃에 선택할 권리는 고사하고 비명 지를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왕실의 여인으로 태어나 연분(緣分)에 대한 환상은 버렸으나, 나라를 잃고 짐짝처럼 실려 가는 처지가 될 줄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화려한 혼례복이 축복의 겉옷이 되길 바랐던 적도 있으나, 이제 이 옷은 산 채로 나를 옭아매는 수의(壽衣)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목마다 쏟아낸 눈물에 눈가는 짓물러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이 붉은 눈이 신부의 연지보다 더 짙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겁비(두꺼비)가 따로 없네."

두툼하게 부은 내 눈두덩이를 매만지며 말했다.

나는 배에서 내렸다. 항구에는 파도를 가르며 경적을 울리는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파도가 부딪치는 소리와 쇠사슬이 감겨드는 금속성이 허공을 퍼져 나갔다. 그 위로 사람들의 거친 고함이 뒤섞여 들어왔다.

바닷가 특유의 짠 내와 물비린내가 바람에 타고 날아온다. 선착장 곁으로 잔잔한 물결이 친다. 청량한 파란 하늘을 가르며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올랐다. 햇살을 곱게 담아 빻은 금가루처럼 반짝이는 바다는 아름답지만, 너무나도 깊어 익사할 것만 같았다. 아니, 이 낯선 공기에서의 질식인가.

저 멀리서 검은 세단에 비스듬히 기대 서 있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가 내 남편 될 사람임을 본능적으로 예감했다. 멀어서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훤칠한 사내임은 확실했다. 남녀 할 거 없이 그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이목을 끄는 사내였다.

나는 그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남자는 가만히 서서 다가오는 나를 지켜만 보았다.

그와 거리가 좁혀질수록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거친 금속음과 뱃사람들의 걸걸한 고함,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갈매기들의 노랫소리가 물밑으로 가라앉듯 점차 먹먹해졌다.

세상의 소음이 서서히 소거되더니, 이내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진공 상태와도 같은 고요 속에서 오직 남자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살아 움직였다. 그의 숨소리가 항구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울리는 것만 같았다.

가까이서 본 그는 마치 안개에 싸인 삼나무처럼 위압감을 풍겼다. 나는 걸음을 늦췄다. 멀리서도 커 보이긴 했다만, 내 머리는 그의 어깨에 겨우 닿을 정도였다. 대략 6척은 되어 보이는 장신이었다.

그의 큰 키에 한 번, 이어 올려다본 그의 얼굴에 다시금 숨을 들이켰다.

갸름한 얼굴형은 여인들도 탐낼 만큼이나 선이 고왔다. 그렇다고 마냥 고운 것은 아니었다. 오뚝하게 솟은 콧대와 서늘히 길게 빼진 눈매는 남성적인 색채를 더했다. 쌍꺼풀이 진 눈매는 각도에

따라 유순해 보이기도 했으나, 정면에서 표정을 지우면 이내 시린 냉기를 뿜어냈다. 나는 무심코 숨을 골랐다. 목덜미에 스친 바람이 괜히 허전해, 손을 올려 살짝 비볐다.

한밤중의 하늘처럼 까만 그의 눈동자엔 형언할 수 없는 생각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곤한 듯 눈을 느리게 감았다 뜰 때, 긴 속눈썹이 사뿐히 팔랑거렸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볍게. 속눈썹이 드리운 그늘에 감춰진 기색이 어딘가 닿을 수 없이 나른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의 비단실 같은 머리칼이 나부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갈색빛을 띠며 투명하게 반짝이는 그의 머리카락이 차가운 인상 위로 스며드는 순간, 온기가 묘하게 뒤섞였다.

평범한 대학생보다는 극단의 배우가 어울릴 법한 묘한 분위기의 외모였다. 그 순간만큼은 시선을 떼기 어려울 만큼 눈부셨다.

"……."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이토록 허우대 말짱한 남자를 보낼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추남과는 거리가 먼, 미(美)의 형태를 띠었다. 그의 수려한 외형에 넋을 놓을 뻔했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었다.

도리어 짜증이 치밀었다. 저런 외형은 뭇 여인들이 속절없이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기 딱 좋은 미끼가 아니던가. 이 나라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건지. 조국을 집어삼킨 적국의 사내와 사랑에 빠져, 세기의 로맨스라도 쓰길 바라는지.

그를 낱낱이 파헤치듯 훑는 동안, 남자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런 시선이 익숙한 듯 무심했다. 허공에서 눈이 딱 마주쳤다. 문득, 퉁퉁 부은 눈두덩이가 수치스러워졌다.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조금 더 공들여 단장하고 올 걸. 그에게 기세로 밀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어느새 땀으로 물기가 어린 손을 말아 쥐었다.

저 남자가 앞으로 내 삶을 산산조각 낼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잘 빚어진 허울뿐인 껍데기에 속아 사랑에 빠지는 일 따위는—절대로, 없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언어가 아닌, 타국의 언어. 그의 외모만큼이나 깊고 매혹적인 목소리는 듣는 이를 자연스레 자신의 세계로 끌어당겼다.

그 목소리에 귓가가 간지러웠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쿠제 타케오 입니다.”

남자의 곱상한 외모와 달리 굵고 묵직한 느낌의 이름이었다.

별로 안 어울려,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섬의 당주라고 하던가.

그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서구적인 인사치레가 낯설었다.

투박하지 않고 단정하면서 기다란 흰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손톱은 깔끔하게 바싹 잘려 있고 거스러미 하나 없었다. 남자는 손까지 예뻤다.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았다. 나는 치맛자락에 묻은 먼지를 터는 척 물기를 빠르게 닦아내고, 그의 손을 맞잡았다.

손끝을 타고 낯선 사내의 미지근한 체온이 배어들었다. 딱딱한 굳은살 하나 없이 매끄러운 손가락은 마치 한 번도 흙을 만져본 적 없는 뽀얀 진주 같았다. 그 보드라운 촉감은 세공된 보석처럼 정제된 결을 지니고 있었고, 그 속에는 그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귀하게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손등 위에 얹힌 고요한 운명이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 그러나 이제는 나를 지배할, 이 나라의 화족(華族).

부모도 없는 우리 둘 중,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결혼의 또 다른 '희생자'. 과연 누굴 위한 결혼인가.

“…윤경입니다.”

“윤경 님.”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내 이름은 낯설게, 다른 세계의 선율처럼 울렸다. 공주도, 윤경도 아닌, 이제는 익숙해질 법했지만 여전히 낯선 타국의 발음.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한 줌의 고운 가루가 되어 섬의 바닷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은은하게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야말로 나를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무기였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배역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인가.

남자는 길가에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의 문을 직접 열어주었다. 내 앞의 차는 나를 안락하게 모시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삼켜버릴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에 올라탔다. 그가 민망한 듯 손을 두어 번 털어 존재감을 확인시키고는 차 문을 닫아주었다.

차 문이 육중하게 닫히자, 바깥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밀폐된 공간의 압박감 속에서, 곁에 앉은 그 남자의 옷깃에서 풍기는 포근한 향료와 가죽 시트의 냄새가 뒤섞여 묘한 현기증을 일으켰다.

조국을 망하게 한 적국의 사내라면 짐승 같은 악취나 비릿한 피 냄새라도 나야 마땅할 텐데, 지독하게도 깔끔하고 우아한 그 향기가 오히려 내 초라한 처지를 날카롭게 헤집어 놓았다. 나는 그 향기에 취하지 않으려 창틀을 세게 움켜쥐었다.

어색한 공기가 차 안에 흘러넘쳤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그를 절대로 쳐다보지 않을 것처럼 고개를 휙 돌리고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문 밖의 풍경만 바라보았다. 내 인생이 어지럽게 지나친 저 풍경들과 닮았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닌가.

남자와 나는 그 뒤로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말을 건다면 대답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또한 어색한 침묵을 애써 깨뜨릴 생각은 없어 보였다.

적막한 차 안에서 낯선 향기와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퍼져 나갔다.

2.

도착한 저택은 화양절충식 가옥이었다. 나는 아끼던 붉은 신을 벗고 나무 바닥 위로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바닥의 촉감이 내 고국의 부드러운 비단 버선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남자는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머물 곳이라며 저택을 안내했다. 이곳은 어떤 곳이고,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

찬찬히 설명해 주다가 어느 한 방의 문 앞에 멈추었다.

그가 문손잡이를 잡자, 나는 본능적으로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다.

남자가 문을 열자, 다다미의 낯선 풀 향이 훅 끼쳐왔다. 문 너머로 보이는 방은 그의 생활감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책상 위엔 영문 시집이 놓여 있고, 그 옆엔 일본식 찻잔이 놓인 풍경. 한쪽 벽면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유화로 그린 풍경화 따위가 걸려 있었다.

그의 흔적들이 이곳에 속하지 못한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그가 탐독했을 법한 책들이 빼곡했고, 그 반대편에는 정갈하게 정돈된 넓은 침구가 놓여 있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려 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여긴 제가 머무는 곳입니다."

나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자는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비스듬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대학 과제가 많아 밤늦게까지 불을 켜 두고 있습니다. 혹여 방해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덤덤했다. 짐승처럼 달려들지도, 비굴하게 아첨하지도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곳을 감옥이 아닌 '생활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를 한 명의 죄수가 아닌, 그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대하려 노력하는 그 평범함이 내게는 가장 큰 폭력이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낯선 가구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이곳에서 나는 그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그가 내뿜는 향기에 갇혀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건가.

"윤경 님?"

대답 없는 나를 의아하게 여긴 듯, 그가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역시나 끝이 반듯하게 끊어지는 발음이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켜며 간신히 그 문턱을 넘어섰다.

책상 위에는 잉크 자국이 밴 두꺼운 공책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곳에 새겨진 그의 필체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를 닮은 일본어는 단정했고, 영어 문장은 유려한 필기체로 흐르고 있었다.

나보다 고작 네 살 많은 스물셋의 청년.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대학 3학년의 봄이겠지만, 내게 그는 그저 나를 감시하고 소유하기 위해 파견된 젊은 간수일 뿐이었다.

“늦게까지 불을 켜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시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사근사근하지 못했다. 그럴 이유가 없다.

나 역시 불과 얼마 전까지 가쿠슈인—화족 혹은 황족들이 다니는 여자학습원—의 교복을 입고 낯선 언어를 삼키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나의 배움은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조각나버렸고, 그 파편들은 ‘신부’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어 내 발목을 채웠다.

책상 앞에 앉은 그의 등이 꼿꼿할수록, 내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그가 만년필로 써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내일'이었다. 그 찬란한 스물셋의 계절이 탐이 나서,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처지가 가련해서, 나는 자꾸만 마른침을 삼켜야 했다. 그의 두꺼운 원서와 정갈하게 쓴 필기장은 그가 가진 찬란한 미래를 증명하듯 빛나고 있었다.

그걸 보는 나의 가슴 속에서 뜨겁고 불쾌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보다 훨씬 치졸하고 아픈 감정, 바로 열등감이었다.

나 역시 한때는 총명하다 칭송받던 공주였다. 하지만 일본으로 끌려온 뒤, 내가 배운 것이라곤 공주로서의 기개를 꺾는 법과 굴욕적인 인내뿐이었다. 나의 학업은 조각난 정신과 함께 멈춰버렸는데, 내 나라를 집어삼킨 땅의 사내는 이토록 고고하게 학문을 논하고 있다.

지식으로 무장한 그의 당당함이, 배움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나의 무지함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가 나보다 고작 네 살 위라는 가느다란 간극이 나를 비루하게 만들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에, 이 극명한 삶의 무게 차이는, 오로지 '국적'과 '승패'의 결과물처럼 보였다.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평생 가질 수 없는 나의 처지가 너무 가련해서, 입안에 까슬한 모래라도 들어찬 듯 거친 감각이 몰려오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손을 들어 아프게 깨무는 내 입술을 제지했다. 따뜻한 손가락이 입술 위에 닿더니, 지그시 눌렀다.

"…여린 살이 가엽잖습니까."

닿은 부위가 홧홧했다. 시선을 들어 올리자, 눈이 마주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다. 다만 이 상황이 조금, 아니, 많이 불편했다. 그는 곧 미련 없이 손을 떼어냈다.

손가락이 떨어진 자리에 서늘한 공기가 닿았다. 홧홧했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허전했다.

차라리 그가 나를 연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욕망을 드러내길 바랐던 걸까. 미련 없이 거둬진 그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나는 방금 전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를 흔들어놓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등을 돌려 걸어간 뒤, 방 한쪽에 연결된 또 다른 문을 열었다.

"이곳은 손님용 방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십시오. 내일, 예식을 치러야 하니 편히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자상한 오라비나 선생이라도 된 양 나를 대했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던 공포가 물러간 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친절이 남긴 공허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손님'이라니. 그의 '아내'로 팔려 온 내게 그는 손님방을 내어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는 내일이면 어차피 내가 그의 소유가 될 것을 알기에, 하룻밤 정도의 자비를 베푸는 듯한 오만함을 보이고 있었다.

"내일 아침, 식사 때 뵙겠습니다. 윤경 님."

남자는 가볍게 목례하고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손님방의 공기는 지독하게도 쓸쓸했다.

벽 너머로 그가 펜을 움직여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제 찬란한 미래를 써 내려가고 있을 것이고, 나는 내일이면 사라질 '미혼'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조각을 붙들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내일이면 나는 저 남자의 옆에 서서, 내 나라의 파멸을 축하하는 이국의 예식을 치러야 한다.

나는 그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댔다. 오면서 다 운 줄 알았는데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우는 모습을 들키기 싫어 온몸의 수분이 다 마를 때까지 숨죽여 울었다.

3.

그와 어색한 아침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젓가락질은 제대로 하고 있나, 반찬은 한 가지만 먹은 게 아닌가, 밥그릇을 긁는 소리가 안 나게 먹었나, 음식을 흘리진 않았나, 입은 제대로 닫고 씹었나. 평소라면 신경 쓰이지 않았던 당연한 습관들을 괜히 더 조심하며 먹었다. 그에게 조금의 흠도 잡히기 싫었다. 그랬더니 체를 한 듯 속이 불편했다.

마주 앉아 식사하는 우리는 새 신랑과 새 신부라기 보다 안면은 있지만 딱히 친하지는 않았던, 우연히 길거리에서 몇 년 만에 보는 어색한 동창과 식사를 함께하는 느낌이었다.

조금 뒤 하녀들이 가져온 것은 낯선 흰 천의 무더기였다. 어릴 적 당연히 내 혼례복은 활옷일 줄 알았는데.

가슴을 옥죄는 코르셋과 겹겹이 쌓인 레이스. 그것은 풍성한 한복처럼 내 몸의 곡선을 가려주기는커녕, 더 굴곡지게 만들었다. 가슴과 허리선을 잡아주는 서양의 드레스는 민망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니라, 하얀 수의를 입은 포로처럼 보였다.

저택의 마당은 하룻밤 사이에 기괴한 예식장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자태가 화려한 꽃들이 사방팔방 피어서 유혹적인 향기를 내뿜었다. 대부분 깨끗하고 단아한 색이었다. 그 향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지금의 내 심정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겠지.

하객은 50명 정도로 대부분 화족이나 황족들이었다. 기자도 몇 있었다. 백 개의 눈알이 이 촌극을 지켜보며 축하하는 척하지만 감시하는 것뿐이었다. 배역을 맡은 인형은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해야했다.

나는 겹겹의 레이스에 갇힌 채 신부의 걸음을 뗐다. 화려한 예식장보다도, 내가 앞으로 평생 갇혀 살아야 할 그의 곁에서 식을 올린다는 사실이 나를 더 절망케 했다. 그는 나의 집이자, 나를 가둘 성벽이며, 나의 무덤이었다.

제단 앞에 선 쿠제 타케오는 어제의 그 수수하고 아름다운 대학생이 아니었다. 정갈하게 다려진 서양식 대례복 차림의 그는, 조촐한 예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제국의 자작다운 서늘한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어깨 위에서 찰랑거리는 금빛 견장은 그가 짊어진 가문의 위세이자, 나를 짓누르는 제국의 권위였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수십 개의 금사 줄이 각진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흔들렸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저택의 벽면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조촐한 예식이라 하객들의 시선은 더욱 집요하게 나와 그에게 꽂혔다. 얇은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옆얼굴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팔을 잡았다. 서양식 예법에 따라 맞닿은 그의 예복 소매는 구김 하나 없었다. 박수 소리조차 작고 정갈하게 울려 퍼지는 이 고요한 저택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이 남자의 세계로 완전히 귀속되었음을 깨달았다.

바닥을 끝없이 수놓으며 끌리는 새하얀 카테드랄 베일은 더없이 우아했으나, 동시에 나를 옭아매는 거추장스러운 구속이기도 했다. 마치 늪에 빠져 나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긴 손가락이 내 턱끝을 스치듯 들어 올렸다. 머리를 견고하게 감싼 줄리엣 캡은 그대로 둔 채,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던 얇은 망사만이 포르르 머리 뒤로 넘어갔다. 그 얇은 막이 뭐라고 따뜻했었는지. 비로소 드러난 공기는 차갑지만 답답함이 걷혀 상쾌했다.

맹세의 입맞춤을 나누어야 할 시간, 그의 입술은 끝내 내게 닿지 않았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닿을 듯 말 듯, 멈춰 선 채로 정지된 몇 초. 그 짧은 틈을 타고 그가 머금고 있던 청량하면서 알싸한 박하 향이 내 입술 끝에 훅 끼쳐왔다.

그 가까운 거리에 나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여태껏 나눈 말들은 손에 꼽을 만큼이나 적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처음이었다.

짧아야 할 몇 초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의 숨이 닿는 주변 모든 솜털이 바싹 서는 듯한 느낌. 더 이상 숨을 참기 힘들다고 느낄 때쯤 그가 멀어졌다.

예식이 끝나갈 무렵, 카메라가 우리 앞에 놓였다. 내 품에 안긴 건 지독할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장미 부케였다. 향기롭다기보다 짓누르는 무게감이 먼저 느껴졌다.

"자, 정면을 보십시오. 찍습니다."

사진사의 말에 쿠제 타케오가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섰다. 어깨가 맞닿는 순간, 그의 예복에서 풍기는 시원한 향료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옅은 긴장감이 서린 무표정을 지어 보였다. 여전히 정갈한 얼굴이었다.

나는 장미 줄기를 움켜쥐었다. 가시를 다 쳐냈을 텐데도 손바닥이 따끔거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이 따끔거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찰나의 순간이 기록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며 무엇이라 말할까. 아마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인다고 하겠지. 신랑도, 신부도.

번쩍-.

마그네슘 가루가 타오르며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이 터졌다. 찰나의 빛이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희뿌연 연기는 마치 내가 지켜온 마지막 자긍심이 타버린 재처럼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 나의 치욕과 남자의 침착함은 흑백의 프레임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화려한 장미 부케에 파묻힌 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진은 나의 혼례 사진이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공주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부고장(訃告狀)이라는 것을. 공주는 죽고, 이제는 제국의 자작 부인만이 남았다.

훗날 우리나라의 신문에 올라온 결혼식 사진 속, 그는 지워져 있었다.

그가 연기 속에서 짧은 한숨을 내뱉었다.

아까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피로에 찌든 청년의 얼굴만이 스쳤다. 그는 내 품에 안긴 무거운 장미 부케를 대신 받아 하녀에게 넘기며 나직이 말했다.

"고생했습니다. 일단 숨 좀 돌리죠."

그가 아주 잠시 내 손목을 잡았다가 놓았다. 슬쩍 부축했다는 게 맞을 것이다. 마치 따라오라는 것처럼.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복도가 우리를 맞이했다.

정적이 찾아오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가슴팍의 금사 줄을 거칠게 풀어 내렸다. 찬란하게 빛나던 가문의 위세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덜렁거렸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 드레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배역을 말하는 것인지, 머리에 쓴 티아라와 면사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마 어깨에 달린 견장과 그 가문의 위세가 무거웠던 것이리라.

나는 대답 대신 꽉 조여진 코르셋 때문에 가빠진 숨을 몰아쉬었다.

"벗어 던지고 싶겠지. 나도 그렇습니다."

그는 창밖의 너무 화려해서 기괴한 화원을 무심하게 응시하며 덧붙였다.

"피로연까지만 버티면 좀 나을 겁니다. 감시하는 눈도, 기자들도 없을 테니."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가 나와 같은 무게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우스웠다. 그러자 그도 내 웃음에 전염된 듯 픽, 하고 낮은 숨을 터뜨렸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소년 같은 웃음소리였다. 그 소리가 기묘하게 듣기 좋아서, 나는 가슴을 옥죄던 코르셋의 통증조차 잠시 잊어버렸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껏 치장한 그는 꽤 근사했다. 아니, 조금 눈이 부셨다고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복도 끝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지만, 웃음에 풀어진 공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문득 우리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때도 우리는 지금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서로를 응시했었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첫 만남을 떠올리고 있을까.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나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의 빠른 보폭에 맞춰 한 손으로 무거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달렸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지는 복도 아래로 하얀 드레스가 빛을 반사하며, 바람에 날려 파도처럼 나풀거렸다. 왁스 칠을 한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의해 조금씩 흐트러졌다.

몸을 움직이자, 갑갑함이 사그라드는 게 느껴졌다. 숨이 찼다. 이렇게 달리는 게 얼마 만이더라. 점점 상쾌해지는 몸뚱이에 나는 그만, 잡고 있던 치맛자락을 놓아주었다. 레이스가 발목을 감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무엇이라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뿐했다.

역설적으로 그와 함께 달리는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짧은 자유를 맛보았다.

한껏 멋을 부린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대례복을 입은 신랑이 무언가에 쫓기듯 손을 잡고 달리는 이 기괴한 광경은 아마 멀리서 보면 어느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들이 사랑의 도피라도 하는 것처럼, 가장 찬란한 클라이맥스처럼 보였을 것이다.

문득, 이 기억이 오래 남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저택의 깊숙한 복도 뒤편에 다다르자, 그는 발을 멈추었다. 나 또한 그를 따라 멈춰 섰다. 맞닿은 손목에서 전해지는 그의 맥박이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헉…. 헉. 왜, 뛴 거예요, 우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해받기 싫었습니다."

"…."

"웃음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웃음이 아니라 거친 숨소리만 남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 곁에서 웃는 날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이 추운 겨울, 난롯가에 앉아 불을 쬐듯 어딘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거기서 전처럼 그를 냉담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당신도요."

진심이었다. 내 입술 사이로 새어 나간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정적과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한 복도에서는 그 어떤 선언보다도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눈매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드레스의 무게도, 마당을 가득 채운 감시의 눈길도, 이 순간만큼은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본 채, 잠깐 그 낯선 온기를 공유했다. 흑백의 부고장 같았던 나의 결혼식 위로, 아주 작고 푸른 색감의 잉크가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4.

나는 거추장스럽고 화려했던 웨딩드레스를 벗고, 실크 소재의 크림색 이브닝드레스로 갈아입었다.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시 틀어 올렸다. 아까보다 조금 더 진한 붉은 색의 연지를 발라주었다. 훤하게 드러난 목선과 등이 U자로 파인 슬리브리스 드레스였다.

옷감이 힘없이 몸의 곡선을 타고 그대로 흘러내리며 몸의 굴곡이 드러났다. 아래로 갈수록 우아하게 퍼지는 머메이드라인의 드레스는 부들부들한 촉감이 본식 드레스보다 훨씬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 몸을 조이는 코르셋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움직임에 따라 원단이 빛을 머금었다. 걸을 때마다 원단이 몸에 감겼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로 화려한 정찬이 깔렸다. 옅은 피 향을 머금은 레어 스테이크와 진득한 소스가 얹어진 요리들이 서빙되었지만, 누구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 포크를 들지 않았다. 이곳의 음식은 맛을 음미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의 공백을 메우거나 상대의 질문을 피하기 위한 방패일 뿐이었다.

신랑과 신부인 우리는 상석에 나란히 앉고, 가문의 등급에 따라 자리가 배치되었다. 그게 꼭 거대한 서열의 감옥 같았다.

별 영양가 없는 인사치레가 식사 내내 오갔는데, 가식적인 웃음을 짓느라 얼굴 근육이 경련할 지경이었다.

공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백 개의 촛불이 그의 백발 위에서 일렁였다. 그는 아주 느릿하게,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공작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쿠페 잔 안에서 황금빛 샴페인이 일렁였다.

공작이 잔을 높이 들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잠겼다. 그는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제복의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신랑 신부를 마치 잘 길든 분재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반도와 열도, 두 뿌리가 엉켜 하나의 거대한 거목이 되는 내선일체의 숭고한 결실이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보여준 이 결합이야말로 대일본제국이 나아갈 찬란한 미래의 이정표라 할 수 있겠군. 위대한 제국의 영원한 번영과, 하나의 뿌리로 거듭난 두 가문을 위하여! 천황 폐하 만세!”

나는 훤히 드러난 목덜미 위로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다. 코르셋을 벗어 던진 자리에 제국의 시선이라는 더 무거운 굴레가 씌워진 기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잔을 부딪치며 복창했다. “만세!” 소리가 천장을 때렸고, 그 서슬 퍼런 위압감에 샴페인의 기포마저 숨을 죽이는 듯했다.

내 곁의 그는 잔을 입술에 대기 전, 아주 찰나의 순간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부품이 된 자의 무미건조한 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내 은제 식기들이 부딪치며 쨍한 소리를 냈다.

크리스털 잔에 비치는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춤추었다. 후, 불면 꺼지는 연약한 생명력이 가련했다. 나와 비슷한 처지 같아서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옷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났기 때문이다.

"부들부들하군."

그가 아주 낮게, 테이블 아래로 내 드레스 자락에 손끝을 살짝 스치며 속삭였다.

"드레스 말입니다. 본식 때보다 훨씬…자유로워 보여.”

자유라. 나에게 자유란 게 있을까. 그에게는 과연 있을까. 당장 이 자리만 해도 우리를 옥죄는 감옥 아니던가.

그의 손끝이 스친 실크 자락을 따라 가느다란 전율이 일었지만, 나는 겉으로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붉은 연지를 바른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나는 눈앞의 금색 자수가 놓인 하얀 식탁보만을 응시했다.

“자유라니요. 과찬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은 수프처럼 온기가 빠져있었다.

“이 드레스 역시 이 연회장의 조명 아래 빛나기 위해 골라진 것뿐입니다. 저 촛불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내 드레스 자락을 스치던 그의 손을 가만히 덮어 눌렀다. 부드러운 실크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손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지 않았다. 그저 정면의 공작과 늘어선 훈장들을 바라보며, 테이블 아래에서만 은밀한 온기를 공유할 뿐이었다.

이것은 위로일까, 아니면 함께 침몰하는 자들의 동질감일까.

"조심해."

그가 내 손바닥 아래에서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내 손등을 긁듯 스쳤다.

"지금 당신 드레스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그 안의 '불온함'을 눈치챌지도 모르니까."

그의 말은 경고였으나, 내 귀에는 '살아남으라.'라는 애달픈 간청처럼 들렸다. 나는 덮었던 손을 거두고 포크를 집어 들었다. 잘게 썰린 고기 조각이 입안에서 비릿한 육즙을 터뜨렸다. 삼키기 힘든 이 제국의 성찬을 억지로 밀었다.

후, 불면 꺼질 가련한 촛불의 운명이라 해도, 꺼지기 직전이 가장 뜨거운 법이다.

보란 듯이 잘 살아주겠다. 당신들 앞에서는 조금도 울 생각이 없다.

나는 다짐하고 기포가 톡톡 터지고 있는 노란 샴페인을 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유리 다리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나갔다. 술잔 속에 갇힌 기포가 마치 나처럼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한 채 터지고 있었다. 나는 액체를 들이켰다. 처음 먹어보는 술이었다.

뜨끈한 알코올이 기도를 타고 흘러들었다. 입안에 남는 쌉싸름한 뒷맛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으나, 나는 그마저도 세련된 표정 관리의 일부인 양 태연하게 잔을 내려놓았다.

이딴 걸 왜 먹는 거지. 그래도 다시 잔을 들어 쭉 들이켰다.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너무 고단했으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훅 갑니다."

그는 내 비장한 결의를 단숨에 일상의 충고로 격하시켰다. 조곤조곤한 그 목소리에는 취기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그러고는 익숙한 손짓으로 남은 샴페인을 가볍게 들이켰다. 목울대가 우아하게 움직였다.

나는 빈 잔을 쥔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어른이구나. 이런 독하고 맛없는 술도, 이 숨 막히는 제국의 의전도, 사람들의 독사 같은 시선도 이미 수없이 겪어낸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독기를 품고 있는데, 그는 이 지옥 같은 연회장조차 집 안의 거실을 거니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가 들이킨 것은 술이 아니라, 내가 감히 짐작도 못 할 세월과 능글맞은 처세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삼 그와 나의 간극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베고 지나갔다. 내가 연지를 짙게 바르고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여자'이자 '투사'가 되려 발악할 때, 그는 그저 '관찰자'이자 '강자'의 위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막막한 감옥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벽이 그처럼 단단한 어른이라는 사실에 아주 짧은 안도감이 스쳤다.

"훅 가면, 당신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오기가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입안에 남은 샴페인의 쌉싸름한 맛이 비로소 그의 향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향해 느릿하게 손을 내밀었다.

"…벌써 취하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여보."

나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당황하는 게 보였다. 바보 같은 표정. 그걸 구경하는 건 꽤 재밌는 일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육중한 문이 열리며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은 채, 묻어나는 살기를 미소 아래로 감추며 홀 중앙으로 나아갔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박힌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준비됐습니까? 취기는 좀 가셨습니까?"

그가 내 허리를 감싸안으며 물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뜨거웠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짚으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당신이나 발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요. 난 오늘 단 한 번도 흐트러질 생각이 없으니까."

음악이 격정적으로 고조됨과 동시에 우리는 약속된 궤적을 그리며 미끄러졌다. 크림색 실크 드레스가 공기를 가르며 물결쳤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원단이 허벅지에 감겼다가 풀리기를 반복했고, 깊게 파인 등 위로 사람들의 경탄과 질투 어린 시선이 닿았다.

나는 보란 듯이 그를 향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신부'를 완벽하게 연기하면서도, 눈동자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냈다.

"다들 우리를 보고 있군요."

그가 나를 뒤로 젖히며(Dip) 낮게 읊조렸다. 내 시야에 거꾸로 매달린 연회장의 풍경이 보였다. 나를 동정하던 반도인 귀족들, 나를 비웃던 제국 화족과 황족들, 그리고 나를 체제의 도구로 여기는 공작.

나는 다시 그의 품으로 끌려 올라오며 속삭였다.

"보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들은 내가 울기를 기다릴 테니까. 하지만 미안해서 어쩌죠? 난 오늘 이 연회장에서 가장 눈부시게 웃을 생각인데."

턴을 돌 때마다 나의 드레스 자락은 촛불의 불길처럼 너울거렸다. 당신들이 만든 이 감옥 같은 무대 위에서, 나는 당신들이 감히 닿을 수 없는 높이까지 타올라 줄 것이다. 누구도 나의 비참함을 구경할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잘 봐, 당신들이 꺾었다고 믿는 꽃이 얼마나 지독한 향기를 내며 살아남는지.'

길었던 왈츠가 끝났다. 박수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연회장은 춤판으로 변해갔다.

나는 돌아다니며 시중드는 웨이터의 쟁반 위 핑거푸드를 집어 먹었다. 그리고 그 옆에 샴페인도 한 잔 들었다. 그걸 들이키려는 순간, 그가 내 잔을 뺏어 그의 입에 한 번에 털어 넣더니 쟁반 위에 올려두었다.

분명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내 옆으로 온 걸까.

정신없이 춤을 추는 사람들 사이로 그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가는 건데요."

“비밀 공간.”

그는 곧 테라스 근처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게 왜 비밀 공간이지, 싶었는데 그는 테라스로 나가는 것이 아닌, 그 주변 벨벳 커튼 뒤로 갔다.

커튼 뒤에 숨어서 벽에 기대앉았다. 등 뒤로 냉기가 느껴졌다.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둘 중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더니 내 무릎 위에 살며시 덮어주었다.

“…….”

“…….”

‘비밀 공간’이라는 곳에 데려온 그는 내내 말이 없었다. 아니, 아까보다 풀린 듯한 눈과 상기된 두 뺨이 취한 것 같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어색한 듯 헛기침을 하고, 목덜미를 긁적이거나 괜히 멀쩡한 넥타이 부근을 가다듬었다.

나는 흘러내리지도 않은 말짱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손가락을 빙빙 돌려 옆머리를 꼬았다 풀기를 반복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 어색한 정적이 싫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설픈 웃음이나 쓸데없는 겉치레보다 그와의 침묵이 훨씬 좋았다.

내 어깨에 살짝 씩 그의 어깨가 닿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가만히 어깨를 맞붙여왔다. 그의 체온이 옷감 너머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 온기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번지는 것 같았다.

새장 속 금빛 새가 날갯짓하듯 심장이 펄럭펄럭 뛰는 게 느껴졌다. 늑골 사이사이가 바람에 강아지풀이 살랑이듯 간지러웠다.

이 이상한 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정말 아늑한 비밀 공간이네요.”

내 말에 그는 민망한 듯 웃어 보였다. 그러더니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이 경직되었다. 당장 그의 머리를 빼낼 생각으로 손을 드는데, 그가 내 손목을 잡더니 무릎에 내렸다.

"조금만. 조금만 이러고 있게 해주십시오."

"…저보고 훅 간다고 하실 땐 언제고."

그가 내 말에 낮게 웃었다.

"저도 어른은 아닌지라."

"성인이잖아요."

"몸만 컸지, 아직 어린애입니다. 정신은 17세 이후로 그다지 성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겠네."

"너 나랑 네 살 밖에 차이 안 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무방비한 반말이 내 가슴 한구석을 툭 건드렸다. 샴페인의 취기보다 더 진한 열기가 얼굴로 확 끼얹어졌다. 아까 '여보'라는 도발은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정적 속의 나직한 말 한마디에 판세는 다시 뒤집혔다.

내 어깨에 기대어진 그의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간질였다. 팔딱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 봐 나는 숨을 죽였다.

"그럼 아까 그 샴페인은 왜 뺏어 마신 건데요. 혼자 어른인 척은 다 해놓고."

내가 짐짓 툴툴대며 묻자, 그는 내 어깨에 머리를 묻은 채 작게 웅얼거렸다.

"취해서 다음날 후회할까 봐. 술 마시고 벌이는 흑역사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아까처럼 흘리고 다닐까 봐 그래, 유부녀가."

그의 목소리는 아까 무도회장에서의 서늘한 저음이 아니었다. 어딘가 물기가 서린 듯, 혹은 아주 오랜 허기를 채우려는 듯 나른하고 부드러웠다. 늑골 사이사이를 간지럽히던 강아지풀이 이제는 내 전신을 휘감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제국이 만든 화려한 감옥의 한복판에 있었다. 커튼 밖에서는 여전히 가식적인 왈츠가 흐르고, 누군가는 내일의 숙청을 논하며 잔을 부딪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벨벳 커튼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그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떨고 있는 애처로운 두 영혼일 뿐이었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던 손을 내려 내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얽어왔다. 깍지 낀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온도가 공유되었다.

그가 기댔던 머리를 살짝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키스해 본 적 있어?"

키스. 입맞춤을 뜻하는 생소한 서양의 단어였다.

그의 질문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순간, 커튼 밖의 왈츠 소리가 수만 리 밖으로 멀어졌다. 깍지 낀 손바닥 사이로 전해지는 그의 맥박이 아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내 손등을 때렸다. 손에서 물기가 일기 시작했다. 남자가 알아차릴 텐데. 취해서 모르려나.

나를 빤히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아까의 무미건조한 빛이 아니었다. 취기 때문인지, 혹은 다른 열망 때문인지 붉게 달아오른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다. 아까 내가 보란 듯이 덧칠했던 진한 붉은 연지가 새삼 부끄러웠다.

나는 대답 대신 마른침을 삼켰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입을 열면 참아왔던 심장 소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니까.

"없으면 어쩔 건데요. 있으면 또 어쩔 거고."

겨우 내뱉은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오기로 버티던 내 방어막이 그의 나른한 눈빛 한 번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내 떨림을 눈치챈 듯,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어 나를 제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겼다. 코끝에 그의 숨결과 샴페인의 쌉싸름한 향이 섞여 들었다.

"없으면, 내가 처음이 되는 거고."

그가 고개를 비스듬히 꺾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샹들리에 빛조차 닿지 않는 커튼 안쪽,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찰나의 공간에서 그가 속삭였다.

"있으면, 네가 알려주는 거지."

이대로 그와 키스를 하게 되는 건가.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나는 눈을 감았다. 제국도, 내선일체도, 공작의 서슬 퍼런 축사도 다 상관없어졌다. 보란 듯이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던 그 독기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소년 같은 청년의 품 안에서 불 타 없어지고 싶을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대답에 감았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잊게 해주겠다며 몰아붙일 줄 알았는데, 그는 오히려 모든 패를 나에게 던져주며 비굴할 정도로 다정하게 파고들었다.

그의 입술이 마침내 내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처음엔 아주 가벼운 깃털 같았다. 하지만 이내 샴페인보다 더 뜨거운 숨결이 밀려 들어왔다. 입술 위로 번진 붉은 연지가 그의 입술로 옮겨가며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쌉싸름한 알코올 향과 그의 살냄새가 뒤섞여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사람의 입술은, 보드랍고 따뜻하구나.

깍지 낀 손가락 사이로 땀이 배어 나왔지만, 누구도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지라고 맞잡을 뿐이었다.

커튼 밖에서는 여전히 경쾌한 왈츠가 흐르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라진 줄도 모른 채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제국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 두꺼운 벨벳 안쪽은 중력이 사라진 별천지였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다.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그의 가슴팍이 내 몸에 닿아 거칠게 들썩였다.

"…맛없네, 립스틱."

그는 입술에 묻은 연지를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게 닦아내며 낮게 웃었다. 붉은 연지가 닦이기는커녕 남자의 입술을 발갛게 물들이며 주위에 번졌다.

그게 색정적으로 느껴졌다면 내 머리가 미친 걸까.

그 웃음소리가 심장을 긁는 진동처럼 느껴져 나는 그의 재킷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맛없다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먹어요?"

내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 다시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깊은 한숨 섞인 온기가 훤히 드러난 내 어깨 위로 흩어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들어 손가락으로 입가에 묻은 연지를 닦아냈다. 그러나 닦아내려 할수록 붉은 기운은 그의 창백한 피부 위로 번져나갔고, 그럴수록 그는 더욱 위험하고 낯선 분위기를 풍겼다.

내 손끝에 닿는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 위에 덧칠해진 나의 흔적은 우리를 더 깊은 공범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미쳤나 봐, 정말."

나직하게 뱉은 내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그를 탐하는 내 마음일까, 아니면 이 상황 자체일까.

그는 눈을 감은 채 낮게 웃음을 흘렸다. 늑골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아까보다 훨씬 묵직했다.

"미친 건 나지. 이 아수라장에서 당신 입술 맛이나 보고 있으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번진 연지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붉어 보이는 그의 입술이 타액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아채더니, 손가락에 남은 붉은 얼룩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제 손으로 내 흐트러진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 주고, 내 입술 주변에 번진 자국을 엄지로 꾹 눌러 닦아주었다. 비록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았지만,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자, 이제 다시 '완벽한 인형'이 될 시간입니다. 부인."

그는 재킷을 다시 걸치고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입술 끝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커튼을 걷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소매를 붙잡고 속삭였다.

"당신 입술, 아직 붉어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는 보란 듯이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대답했다.

"보라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는지 광고하는 셈 치죠. 그게 저들이 원하는 '내선일체'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커튼을 젖혔다. 눈을 찌르는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우리를 덮쳤다. 그는 다시 딱딱한 가면을 썼고, 나 역시 입술을 굳게 다물며 신부의 표정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입술에 서로의 독을 묻힌 채 다시 전쟁터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가 홀로 들어서자,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왈츠를 추던 몇몇 쌍들이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저 멀리 상석에 앉아 있던 공작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자작인 그의 입술에 번진 붉은 흔적. 누가 봐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게 하는 그 노골적인 낙인을 달고서도, 그는 한 점의 흐트러짐 없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나를 이끌었다. 오히려 그 번진 붉은색이 그의 단정한 예복과 대비되어, 그를 예의 바른 귀족이 아닌 금기를 비웃는 탐닉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어머, 저기 좀 봐."

"자작님의 입술이…."

귓가를 간지럽히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나는 턱을 더 높이 치켰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지독하게 탐했는지 이 위선적인 연회장에 전시해 버리고 싶었으니까.

공작 앞에 멈춰 선 그는 완벽하고 여유로운 귀족의 예법으로 고개를 숙였다.

"축제가 무르익었군요, 각하. 신부의 숨이 가빠 보여 잠시 커튼 뒤에서 달래주느라 늦었습니다."

뻔뻔하고도 노골적인 거짓말이었다. 그의 입술에 묻은 나의 연지가 그 거짓말을 비웃고 있었지만, 공작은 오히려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아주…. 뜨거운 달래기였던 모양이지. 보기 좋군. 제국의 결합은 그렇게 열정적이어야 하는 법이야."

공작의 비릿한 웃음 뒤로, 나는 다시 곁에 선 자작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으나, 내 허리를 감싼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힘을 주어 나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다.

우리는 서로의 독을 나눠 마신 공범이었다. 이 화려한 전쟁터에서 누구도 우리를 울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는 동시에 구원하며, 이 지독한 향기를 풍기며 끝까지 살아남을 테니까.

연회장의 조명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겹쳐졌다.

5.

피로연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잘 모르겠다. 예식은 그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끝이 났다.

드레스를 벗고 몸을 씻었다. 뜨거운 물에서 얼굴 근육들이 노곤하게 풀어져 갔다. 욕실에서 나와 정갈하게 개어진 유카타를 입었다. 보송보송하고 포근한 향이 났다.

하녀들은 내 몸에 겹겹이 향료를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었다. 입술에 화사한 색상의 연지도 발라주었다.

남자의 방문을 두들겼다.

"들어오십시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또한 유카타 차림이었다. 단정하게 내려진 앞머리의 끝이 살짝 젖어 있었다. 거기에 볼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야심한 밤에, 남자와 단둘. 오늘 결혼한 사이.

남자가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를 껐다. 방 안을 채우던 인위적인 빛이 사라지자, 창밖의 푸르스름한 달빛이 다다미 위로 길게 늘어졌다. 정적은 낮의 소음보다 더 위협적으로 내 목을 죄어왔다.

정갈한 유카타 차림의 그는 낮에 보았던 화려한 예복보다 훨씬 더 낯설고 위험해 보였다. 옷깃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의 남성적인 목선이 창백한 달빛에 하얀 선을 그렸냈다. 샴페인이 아닌 비누향을 머금은 그의 체온이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서, 하녀들이 공들여 빗겨준 내 머리카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연회장에서는 그렇게 당돌하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가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려 시선을 맞췄다. 달빛을 머금은 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 같아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숨이 가빠졌다. 나는 애써 마른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방이 좀 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방금 씻고 나온 내 몸은 열기로 가득했고, 그와 닿은 손가락 끝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어설픈 변명에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내 허리를 감싸안아 자신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유카타의 부드러운 천 너머로 그의 단단한 가슴팍과 불규칙한 심장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 심장 소리가 내 가슴을 때리고 있는데."

그가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아까 커튼 뒤에서 물었었죠. 키스해 본 적 있냐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겠군요.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됐냐고."

그는 나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천천히 나를 이끌어 달빛이 가장 깊게 고인 곳으로 데려갔다. 낮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두 영혼이, 이제는 서로라는 거대한 파도 속으로 침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대로 그와 자게 되는 건가. 그는 해봤을까, 당연히 해봤겠지. 저 나이에, 저 얼굴에.

그 생각에 도달하자마자 묘한 불쾌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제국이 정해준 정략결혼, '내선일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묶인 사이일 뿐인데. 그런데도 그가 다른 여자와 나누었을 그 모든 '처음'들이 상상되자 입안이 샴페인을 마셨을 때처럼 쌉싸름해졌다.

그는 내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듯, 내 턱을 쥔 손가락에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어 고개를 더 치켜들게 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지독하게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달빛에 젖어 낮게 깔렸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쏘아붙였다.

"아무것도요. 그냥, 당신은 참 익숙해 보여서요. 이런 상황도, 이 밤도."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까보다 훨씬 더 짙어진 그의 체온이 유카타 깃 사이로 밀려 들어왔다.

"익숙하다니. 나 지금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데."

"거짓말."

그의 웃음소리가 어깨너머로 낮게 울렸다.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이는 내 목소리에는 질투와 오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귀엽다는 듯 나를 더 깊게 끌어안았다.

내 단호한 대꾸에 그는 내 목덜미에서 얼굴을 떼고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장난스러움과 함께, 아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맞습니다.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이 나이 먹도록 여자 손 한 번 안 잡아봤을 리가 없지. 그들이 원한 건 '완벽한 자작'이었고, 나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며 살아왔으니까."

그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의 능숙한 손길,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이 야심한 밤의 공기를 다루는 법까지.

그는 내 손을 제 가슴팍 위로 끌어다 올렸다. 유카타의 얇은 천 너머로 쿵, 쿵, 하고 일정치 않게 때리는 그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지만 말이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단 한 번도 마음을 담아본 적은 없어. 그저 껍데기뿐인 예절이었고, 지루한 사교의 연장이었을 뿐이지. 마음은 처음이나 다름없어."

그의 손이 내 뺨을 타고 내려와 목선을 부드럽게 훑었다.

"사실 아까 키스할 때 점잖은 척 서 있는 게 고작이었어. 네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아래는 이미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져서. 얼마나 흉측하게 팽창해 있는지, 그 작은 손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

"너는? 이 열기가 나만 이런 건 아닐 텐데."

"무, 무슨…."

아까 커튼 뒤에서 그가 내뱉었던 '너 나랑 네 살 밖에 차이 안 나'라는 반말이 귀여운 투정이었다면, 지금의 반말은 나를 한 명의 여자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거 봐. 아까부터 터질 것처럼 팽팽해져서. 너만 기다리고 있었어. 영국 놈들이 쓴 책에선 이걸 '거대한 기둥'이니 '뜨거운 강철'이니 하더군. 네 눈으로 직접 봐. 거짓말 같나?"

"도대체 무슨 책을 본 거야…."

그러나 나는 난생처음 보는 그의 물건을 흥미 어린 시선으로 관찰했다. 달빛을 받고 솟아오른 기둥에, 남자 몸은 이렇구나, 싶었다. 저게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내 시선이 그곳에 쏠린 걸 느낀 그는 재밌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만져볼래?"

그의 질문은 톡 쏘는 샴페인보다 훨씬 더 독하게 내 머릿속을 헤집어놓았다.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다. 그의 시선이 내 젖은 입술에 달라붙듯 머무르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달빛이 비치는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놓아버린 지 오래인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그가 내 허벅지 사이에 제 무릎을 끼워 넣으며 몸을 더 바짝 밀착해 왔다.

얇은 천 너머로 내 허벅지에 닿는 그의 뜨거운 열기가 노골적으로 전해졌다. 아까 키스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의 흥분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듯, 나를 압박해 오는 감각이 지나치게 생생했다. 그가 멋대로 내 손을 가져가 제 물건을 만지게 하더니, 내 손이 닿자, 한숨에 가까운 신음을 흘렸다.

"아까부터 내 머릿속엔 이 점잖은 옷지를 찢어발기고 너를 범하는 상상뿐이었어. 이성이니 품격이니 하는 것들이 네 향기 한 번에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는군."

그는 내 목덜미에 코끝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녀들이 발라준 향료 냄새와 내 몸의 열기가 섞인 향에 취한 듯, 그는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내 귓불을 잘게 깨물었다.

그의 손이 내 유카타의 허리띠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정적 속에서 옷감이 살을 스치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다. 그는 짐승 같은 갈증을 삼키며 내 귓불을 잘게 씹어 돌렸고, 나는 그저 그가 내뱉는 뜨거운 열기에 질식할 것 같았다.

매듭이 풀려 느슨해진 옷깃이 양옆으로 맥없이 벌어지자, 그가 숨을 멈춘 채 내 몸을 훑어내렸다. 그의 시선이 솟아오른 정점에 닿았다.

"겉으론 그토록 단정한 척하더니, 옷 안에는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었어?"

낮게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이 섞여 있었다. 차가운 밤공기와 대조되는 그의 뜨거운 시선이 가슴팍에 와닿자, 살갗 위로 소름이 돋아났다.

그는 도드라진 아찔한 굴곡을 커다란 손바닥으로 짓이기듯 감싸 쥐었다.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숨결이 가슴골 사이로 뜨겁게 쏟아졌고, 나는 그의 어깨를 움켜쥐며 발끝을 꼿꼿하게 세웠다. 정갈했던 유카타는 이제 처참하게 흐트러졌고, 달빛 아래 드러난 살결은 그가 내뱉는 천박하고도 뜨거운 단어들에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너도 아주 가관이네. 여기는 왜 이렇게 질척거려?' 하면서 긴 손가락으로 내 아래에 침입했다.

사랑은 아니었다. 서로를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지독한 제국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몸에 새겨지는 가장 확실한 쾌락만을 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눈을 감았다. 그가 내뱉은 노골적인 말들이 내 안의 무언가를 일깨우듯, 나 또한 그에게 지지 않을 만큼 뜨거운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어서 고백해 봐. 네 그 고결한 자존심은 이미 내 밑에서 녹아 없어진 지 오래라고. 입술만 떨지 말고, 네 젖은 아래가 나를 원한다고 네 입으로 말해봐."

그가 내 입술을 다시 집어삼키며 강요하듯 속삭였다. 그는 입술을 비비며 단단해진 아래도 함께 내 배에 비벼대는 걸 잊지 않았다.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말하자, 그는 욕설을 짧게 내뱉고는 내 안으로 조금씩 들어왔다.

지금의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단정하고 금욕적인 사내와 정반대의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그를 받아들였다. 난생처음 느껴보는 버거운 부피감이 내 안을 꽉 메우자, 폐부 깊숙이 가둬두었던 숨이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어느새 몸이 그를 받아들이고 익숙해지자, 왠지 지는 게 싫었다. 나도 모르게 아래를 자꾸 조였다. 그는 그럴 때마다 미간을 찡그리며 거친 신음을 내뱉었다. 내 위에서 무너져가는 그가 보기 좋았다. 그의 능숙함에 압도당하기만 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었다. 그가 제국이 총애하는 사내든 상관없었다. 이 침대 위에서만큼은 내가 그를 지배하고 싶었다.

그토록 여유롭고 오만했던 남자가, 내 몸짓 하나에 숨을 몰아쉬며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기묘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의 고통 섞인 신음을 집어삼키며,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겼다. 국적도, 나이도, 이름도, 신분도 다 소용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내 안에서 숨 가쁘게 허우적거리는 한 명의 사내일 뿐이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방 안엔 가쁜 숨소리와 습한 다다미의 향, 그리고 날 것의 향이 맴돌았다. 처음 맡아보는, 그의 끈적하고 따뜻한 밤꽃 냄새. 비릿해서 역해야 할 텐데, 내 목덜미에 닿는 그의 뜨거운 숨결 때문인지 묘하게 달큼했다. 내 위에서 완전히 힘을 빼고 무너져 내린 그의 무게감이 기분 좋게 나를 눌렀다.

"…처음이라면서요."

내가 얄궂게 속삭이며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헤집자, 그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낮게 큭큭거렸다. 그 진동이 내 가슴팍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진짜 사랑 섞인 건 처음이라고 했지, 내가 숫총각이라곤 안 했습니다, 부인."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눈가와 흐트러진 앞머리, 그리고 여전히 가시지 않은 열기가 서린 눈동자. 낮 동안의 그 오만했던 자작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나에게 패배해 숨을 몰아쉬는 한 사내만 있었다.

그는 내 손목을 끌어당겨 손바닥에 짧게 입을 맞췄다.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복종에 가까운 입맞춤이었다.

"좋았어? 내가 무너지는 거 보는 게?"

평소보다 낮게 깔린 약간은 쉰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뻔히 알면서도 묻는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보란 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네. 아주 보기 좋던데요. 내 밑에서 허우적대는 꼴이."

내 도발에 그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나를 제 품으로 꽉 끌어당겨 가두었다.

그는 종종 고결한 자의 입에 담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천박한 단어들을 골라 내뱉곤 했다. 수치심에 표정을 구기는 내 반응을 보며 즐거운 듯 웃어 댔다. 가면 아래 억눌린 그의 갈증이 얼마나 지독한지 잘 아는 나로서는, 그저 그 가련한 유희를 내버려 둘 뿐이었다.

이토록 날 선 호감이, 서로를 이겨 먹으려는 이 독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낙인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온기 속에서 패배감과 승리감을 번갈아 맛보았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화지를 투과해 방 안으로 스며들 때쯤, 우리는 비로소 전쟁 같은 열기를 멈췄다. 그는 지친 듯 내 허리춤에 팔을 감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나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응시했다.

사랑이라는 무른 감정 대신, 우리는 서로의 몸에 '승리'와 '굴복'이라는 아주 선명한 각인을 새겼다. 이 지독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내일이면 다시 가면을 쓰고 서로를 속여야 할 처지였지만, 적어도 이 다다미 위에서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6.

아침에 일어나자, 어제의 흔적이라곤 몸에 남은 붉은 자국들뿐이었다. 정사의 흔적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남자는 옆에 없었다.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아, 자리를 비운 지 꽤 된 듯했다.

처음 들어왔던 자극에 배와 허리가 아팠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방 밖으로 나갔다. 방금 씻은 듯 젖은 머리를 탈탈 털며 나오는 남자와 욕실 앞에서 딱 마주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는 경어를 쓰고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를 스쳐 지나갔다. 콜게이트 치약의 청량한 냄새와 비누 냄새만을 남긴 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아직 더운 공기와 습기가 남은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뿌옇게 김이 서린 욕실 거울을 손으로 쓱 닦았다.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들이 어젯밤 그 남자와의 밤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뱃속이 여전히 쿡쿡 쑤시는 듯했다.

식당으로 가니, 그는 이미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늦었으니 어서 앉으시죠, 부인."

"……."

왜 이렇게 서운하지. 그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왜 눈물이 나올 것 같지. 나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나 눈을 내리깔자,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다.

"부, 부인?"

조금 전까지 무미건조하게 말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그가 내 앞으로 달려왔다. 단정하게 다려진 그의 흰 셔츠 소매가 내 시야에 가득 찼다.

"어디…. 어디가 아픈 겁니까? 내가, 어제 너무…."

그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어젯밤의 그 노련했던 남자는 어디 갔는지, 지금 내 앞에는 울음보가 터진 상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손만 허공에 휘저어 대는 서툰 스물셋 청년만이 서 있었다.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서툴러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가 허둥지둥 제 냅킨을 뽑아 내 뺨을 닦아주려다, 혹시 제 손길이 닿는 것도 싫어할까 봐 멈칫하며 눈치를 보았다. 그토록 당당하게 '마음은 처음'이라며 나를 몰아붙이던 남자의 눈동자가 지금은 겁먹은 강아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굽혀 내 눈높이를 맞추며 애절하게 매달렸다. 조금 전의 그 오만했던 남자는 온데간데없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그의 앞머리가 허둥대느라 이마 위로 몇 가닥 흘러내렸다.

"아직 많이 아픕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무심하게 굴어서?"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제 입술을 바짝 깨물었다.

"사실은,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면 또 이성을 잃고 짐승같이 굴까 봐, 그래서 억지로 신문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스물셋 남자의 고백은 처절하리만치 솔직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나를 안아 올려 다시 침실로 향했다. 오늘 그는 할 일을 못 하겠지만 그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듯 내 젖은 눈가에 연신 미안하다며 서툴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아픈 건 괜찮았다. 그러나 그가 쩔쩔매며 나를 챙겨주는 게 기분이 좋아서 나는 여전히 아픈 척을 했다.

침실로 다시 실려 온 나는 푹신한 베개에 몸을 기댔다. 그는 식탁에 놓여있던 스프를 가지고 들어와, 나에게 직접 떠먹여 주었다. 사실 수프를 제 손으로 떠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가녀린 눈짓으로 침대 가에 놓인 수프 그릇을 한 번,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가 허둥지둥 은 숟가락을 들었다. 뜨겁지도 않은지 수프를 후후 불어 내 입가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학 교정에서 펜을 굴리며 지적인 오만을 떨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내 입술에 수프 한 방울이라도 묻을까 전전긍긍하는 초보 남편만 남았다.

내가 수프를 한 입 받아먹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그는 자책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 머리카락을 흩트렸다.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짐승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인. 내가 일정이고 뭐고 다 취소했으니 오늘 하루는 종일 옆에 있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일정을 빼먹은 남자가 내 발치를 주무르고, 식은땀을 닦아주며 안절부절못하는 꼴이 어젯밤 그가 무너지던 순간만큼이나 짜릿했다. 그가 다시 정중하게 경어를 쓰며 나를 대할 때마다, 나는 일부러 신음 섞인 한숨을 내뱉어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많이 아파요…. 어젯밤엔 그렇게 무섭게 반말까지 하시더니."

내 말 한마디에 그의 귀 끝이 터질 듯이 붉어졌다.

"그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 잊어주십시오. 아니, 잊지 마시고….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는 결국 수프 그릇을 내려놓고 내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며 눈을 감았다. 지적인 대학생 남편의 완벽한 항복이었다.

할 일을 하러 가야 했을 남편이 하루 종일 곁을 지키는 풍경은 생경하면서도 들떴다. 그는 내가 조금만 뒤척여도 보던 책을 내던지고 달려와 이마를 짚거나 이불을 여며주었다.

"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 의사를 부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기운이 없을 뿐이에요."

나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포기한 듯 커다란 침대 헤드에 기댔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정원의 마른 나뭇가지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내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서재에서 가져온 릴케의 시집을 펼쳤다. 아주 성실하고 지적인 대학생의 눈빛으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어주기 시작했다.

“너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너에게 사과를 주었던 일을.

그리고 너의 금빛 머리카락을 살며시 예쁘게 빗겨 준 일을.

너는 알고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잘 웃던 때였던 것을.

그리고 너는 아직도 철없는 어린아이였던 것을….”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의 심장 박동과 차분하고 약간은 느린 목소리. 나는 그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그 평화로운 리듬을 감상했다.

“부인, 듣고 있습니까?’

“졸려요….”

내 대답에 낭독을 멈춘 그가 내 머리카락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아침의 그 차가웠던 치약 냄새는 사라지고, 이제는 기분 좋은 살결 냄새와 담요에서 나는 은은한 꽃향기만이 가득했다.

7.

다음 날 그는 섬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나를 데리고 나갔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섬에서 가장 높은 절벽 끝이었다. 발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청람색 바다가 펼쳐져 있고, 수평선 너머로는 부서진 보석 같은 햇살이 일렁이는 곳.

“여기에서 보는 게 일본 제일의 풍경일 거요.”

그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흩어졌다. 절벽 끝에 서자, 시야가 비현실적일 만큼 거대하게 트였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신이 실수로 쏟아버린 거대한 군청색 비단 같았다.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는 햇살을 정면으로 받아 잘게 부서진 보석의 가루처럼 눈부시게 산란했다. 바다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면서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짙은 심해의 남색으로 변해 묘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절벽 아래 기암괴석에 부딪힌 파도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흩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순백의 수국이 일시에 피었다 지는 것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짐승이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것 같기도 했다.

절벽 능선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이름 모를 노란 들꽃들은 짠 내 섞인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낮은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다. 유채꽃인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바다의 끝과 하늘의 시작이 맞닿은 곳은 희미한 은빛 선 하나로만 겨우 구분될 뿐이었다.

지독하게도 아름다웠다. 나와 내 나라를 삼킨 이국의 땅이, 나를 유폐시킨 이 섬의 풍경이 이토록 찬란하다는 사실이 형용할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겼다. 저 수평선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나의 고국은 지금 어떤 색을 띠고 있을까.

나는 눈이 시리다 못해 아파져서, 결국 그 ‘일본 제일’이라는 풍경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다.

바다의 짠 소금기와 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콧속으로 깊숙이 흘러 들어왔다. 그 지독하게도 익숙한 비릿함. 고국의 제물포 항구에서, 혹은 이름 모를 남해의 어느 해안가에서 맡았을 법한 그 냄새가 이 이국의 절벽 위에서도 똑같이 감돌고 있었다.

바다 내음을 맡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이 바다를 건너면 내 집이 있고, 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있을 텐데. 정작 그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한 지금, 나는 돌아갈 길을 잃은 채 적국의 사내 곁에 서 있다.

이 바다는 나를 고국으로 데려다 줄 길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가둬버릴 푸른 창살이었다.

나는 그가 건넨 감탄사에 대답하는 대신,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짠 기 섞인 바람이 눈가를 할퀴고 지나가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나의 이 나약한 눈물을 눈치챌까 봐, 나는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젖은 눈가를 바람에 말렸다.

일부러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가 내심 고마웠다. 그는 내가 추스를 시간을 주려는 듯, 한참을 말없이 먼 바다만 응시했다.

잠시 후,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름 모를 노랗게 핀 들꽃을 꺾더니 나의 귀에 꽂아 주고는, 또 다른 꽃을 꺾어 제 귀에도 꽂았다.

"……."

어이가 없어 눈물마저 쏙 들어갈 지경이었다. 일본 제일의 풍경이라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이 우스꽝스러운 꽃장식이라니. 하지만 제 귀에 꽃을 꽂은 채 멋쩍게 웃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비릿한 통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은 채, 바다를 향해 툭 한마디를 던졌다.

"꽃이 어울립니다. 바다보다는."

그의 귓가에 꽂아 놓은 노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모습이 꼭 나를 달래려 애쓰는 어린아이 같아,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시선을 느낀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노란 꽃송이를 귀에 매단 채 나를 응시하는 그의 눈동자는, 아까 보았던 바다보다 훨씬 깊고 고요했다. 방금까지 나를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던 파도의 비릿함도, 숨을 막히게 하던 짠 내도 그의 시선이 닿는 순간 기묘하게 멀어졌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습니까?"

그가 묻자, 나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려다 멈췄다. 그의 눈에는 동정도,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거울처럼 나의 흔들리는 슬픔을 비춰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꽂아준 꽃이 무거워진 눈꺼풀을 대신 받쳐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저 남자가 내 삶을 파괴할 사람이라 확신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나를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바다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귀 옆에서 나풀거리는 노란 꽃잎이 우스꽝스러웠지만, 덕분에 참았던 숨이 조금씩 터져 나왔다.

기분 전환이 됐다. 이곳에 오고 난 후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다.

일본 제일의 풍경이라더니. 과연 그의 말이 맞았나 보다.

"저는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섬에는 가파르기로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를 따라 그 산줄기를 타며 송이나 고사리를 캐러 다니곤 했지요. 썰물 때면 갯벌에서 조개를 잡고, 여름밤이면 강가에 핀 등나무꽃 아래서 반딧불이를 쫓기도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제국의 귀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산과 강을 뛰어다니던 평범한 소년의 기록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한번은 동백꽃이 피기를 기다리던 친구의 마음도 모르고, 갓 부풀어 오른 꽃망울을 호기심에 모조리 목을 벤 적이 있습니다. 이 들꽃을 보니 그 생각이 나는군요."

그가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귀한 자작의 가면 뒤에 숨겨진, 동백꽃을 떨어뜨리며 즐거워하던 짓궂은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나를 파괴할 사람이라 단정 지었던 이 사내에게도,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고 후회하던 평범한 온기가 있다는 사실이 못내 당황스러웠다.

"당신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요?"

그의 질문이 짠 내 섞인 바람에 실려 내 가슴을 툭 건드렸다.

그의 물음에 나는 꽉 쥐고 있던 치맛자락을 천천히 놓았다. 내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창덕궁의 깊은 밤,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별을 헤아리던 시간. 옥류천에 핀 연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날 때, 그 맑은 향기를 맡으며 세상이 영원히 평화로울 거라 믿었던 어린 날의 나.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꺼내어 그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나의 소중한 조각들이 그의 귀에 꽂힌 저 우스꽝스러운 노란 꽃과 섞이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비참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떨어지는 꽃송이를 차며 놀았겠지만, 내 나라와 내 이름은 그 꽃송이처럼 목이 베여 나갔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가웠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당신이 산과 바다를 누비며 호연지기를 키울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니 내게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추억은 내게 그저 화려한 가해자의 기록일 뿐이니까요."

나는 내 귀에 꽂힌 노란 꽃송이를 거칠게 뽑아 발밑으로 던졌다. 그러곤 그를 지나쳐 절벽 아래로 난 길을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로 바다의 비린내가 다시금 코끝을 찔렀다.

한적한 섬의 아름다움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자연은 죄가 없다지만, 그들이 아끼고 사랑한 자연이라면 죄가 있을 거다. 그래야만 했다.

8.

“돌아가는 길은 압니까?”

그가 나를 뒤따라오며 말했다.

당연히 몰랐다. 나는 걸음을 천천히 늦췄다. 그러자 남자가 재빨리 내 곁으로 왔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는 길을 안내했다. 아까 다툴 때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내 손목을 잡고 내 머리 위를 손으로 지붕을 만들어 주고는 뛰었다. 자기 머리나 감쌀 것이지. 나 역시 까치발을 들어 그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렸지만, 훌쩍 큰 그의 키 탓에 손가락 끝이 겨우 닿을 뿐이었다. 그러자 그가 피식 웃는다. 자기 머리는 안 감싸고 서로의 머리만 불편하게 감싸주고 있는 이상한 상황. 손으로 만든 지붕은 제 기능을 못 했다.

결국에는 그냥 대놓고 맞기로 했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뛰다가 지쳐서 걸었다.

“소나기라 금세 그칠 겁니다. 원래 섬은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 그렇군요.”

“이쪽으로 가면, 가까운 곳에 버려진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비가 그칠 때까지 머물도록 합시다.”

나는 거칠게 몰아치는 빗줄기 너머로 멀리 보이는 민가의 불빛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는 못 본 척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 쥐고 반대편 숲길, 낡은 신사로 이끌었다.

“저기 민가가 보이는데, 왜 이런 곳으로……!”

내가 항의하듯 외쳤지만, 그는 대답 대신 내 허리를 더욱 억세게 감싸안았다. 빗줄기에 섞인 그의 체온이 닿은 곳마다 덴 듯 뜨거웠다.

“저기까지 가기엔 당신 옷이 너무 젖었어.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그는 이 섬의 모든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아마 그의 말이 정확하리라.

붉은 칠이 군데군데 허물처럼 벗겨진 토리이(鳥居)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대처럼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다. 한때는 신성한 영역을 알리는 경계였을 그 붉은 기둥은 이제 이끼와 곰팡이에 잠식되어, 마치 피를 흘리다 굳어버린 상처처럼 괴이한 빛을 띠었다.

신사 마당을 지키고 선 것은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신목(神木)이었다. 그 굵은 가지마다 빗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오미쿠지들과 누군가의 기복을 담았을 에마들이 엉켜 있었다. 생기를 잃고 젖은 나무판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툭, 툭, 기분 나쁜 마찰음을 내며 서로를 밀어냈다.

그것은 마치 이 섬에서 죽어간 영혼들이 내뱉는 소리 없는 비명 같기도 했고, 이 불경한 침입자들을 꾸짖는 신의 손가락질 같기도 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낡은 단청의 안료가 바닥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신사 처마 밑, 썩어가는 나무 기둥 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어두운 다다미 위로 눈물처럼 고였다.

신사로 들어선 그는 문을 닫아걸었다. 사방은 금세 어두워졌고, 숲의 흙냄새와 비릿한 바다 내음이 섞여 들어왔다.

"옷이 다 젖었군."

그의 흰 셔츠는 이미 살갗에 투명하게 달라붙어 탄탄한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나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얇은 옷감이 몸에 감겨 체온이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내가 몸을 잘게 떨자, 그는 나를 구석의 마른 다다미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젖은 머리를 탈탈 털었다. 신기하게도 그 행위만으로 물기가 많이 가신 듯했다. 나도 머리카락의 물을 쭉쭉 쥐어 짜냈다.

"여기는 해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낮게 읊조렸다. 밖에서 치는 번개가 찰나마다 그의 서늘한 옆얼굴을 비췄다.

"이 섬사람들은 바다 밑에 '해궁'이라는 궁전이 있다고 믿지요. 해신이 마음에 드는 인간 여자를 발견하면, 이렇게 폭풍우를 내려 눈을 가리고 기어이 바다 밑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젖은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빗물에 젖어 비치는 속옷 라인과,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꼿꼿하게 선 정점 위로 그의 뜨거운 눈길이 머물렀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몇 초간 뚫어지게 바라보다, 무언가 참기 힘든 듯 입을 맞추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내 목을 감싸고 한 손으로는 셔츠의 윗단추를 풀었다.

"읍….이러다 벌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이렇게…."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다. 신벌(神罰)을 두려워하며 그의 젖은 셔츠를 꽉 움켜쥐는 내 손길이 가련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벌?"

그가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웃음기가 밴 그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다정하면서도 잔인하게 고막을 긁었다.

"이 섬의 해신은 질투가 심해서, 자기가 점찍은 여자를 남에게 뺏기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내 곁에 있지. 만약 벌을 내린다면 그건 신의 것을 가로챈 나에게 내리는 것이지, 당신에게 내리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내 턱을 가볍게 치켜올려 겁에 질린 눈동자를 직시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신사 내부를 하얗게 비추자,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내 입술 위로 똑 떨어졌다.

그가 젖은 내 입술을 쓸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오, 부인. 진정한 벌은 신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는 거라는 걸 아직도 모릅니까? 해신에게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온전히 가져야겠어."

그의 손이 내 젖은 치맛자락을 거침없이 밀어 올렸다. 가터벨트가 그의 손에 스쳤다. 차가운 공기가 드러난 살결에 닿아 소름이 돋는 순간,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허벅지 안쪽을 짓이기듯 파고들었다. 비명처럼 터져 나오려는 숨을 집어삼키며 그의 어깨를 밀어냈지만, 젖은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근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까 절벽에서는 나를 죽일 듯이 밀어내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내게 매달립니까? 무서운 건 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서 꿈틀대는 그 갈증입니까?"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게 매달려 봐."

그는 셔츠를 벗어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내 손목을 잡고 그의 허벅지 위에 나를 앉히고 내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그의 중심이 내 몸에 닿았다. 팽팽하게 맞물려 있던 단추가 힘없이 풀려나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 낮게 울렸다.

바닥에 깔린 그의 젖은 셔츠 위에서, 나는 레이스가 섬세하게 수놓아진 가터벨트만을 위태롭게 걸친 채였다. 그는 그것을 굳이 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금속 단추와 레이스가 살결을 파고드는 감각을 즐기기라도 하듯, 내 허벅지 안쪽을 더욱 거칠게 짓이기며 파고들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단단한 근육을 드러낸 그가 나를 집어삼킬 듯 껴안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차갑게 식어 있던 체온을 서서히 데워 갔다. 축축하게 젖은 셔츠의 감촉과 허벅지를 조이는 레이스의 이질적인 감각이 뒤섞여,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며 신사의 문틀을 거세게 흔들어댔다.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신음이 신사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가 들려준 해궁의 전설처럼, 정말 푸른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사방을 채운 것은 켜켜이 쌓인 먼지의 냄새와 숲의 습기,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온 짠 비린내였다. 인간의 발길이 끊긴 이곳에서 유일하게 생동하는 것이라곤, 젖은 셔츠를 벗어 던진 채 서로의 살결을 갈구하는 두 남녀의 뜨거운 열기뿐이었다.

정적이 흐르는 신상(神像)의 눈앞에서, 신음이 종잇조각들 사이로 흩어졌다.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에 흔들리는 흰 종이들은 금방이라도 줄을 끊고 날아가 두 사람의 부끄러운 행위를 온 섬에 알릴 것처럼 위태롭게 나풀거렸다.

그 지독한 쾌락은 신이 내린 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몸에 새겨지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신사 안은 이제 물비린내와 우리의 진한 체온이 섞인 눅진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는 바닥에 깔아두었던 제 젖은 셔츠 위로 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나는 탈진한 듯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고, 그는 커다란 팔로 내 등을 단단히 감싸안았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의

심장 박동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울렸다. 지붕을 때리던 요란한 소음이 점점 잦아들더니, 어느덧 나뭇잎 끝에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고요한 소리만 정적을 메웠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닫힌 문틈 사이로, 젖은 숲을 뚫고 온 투명한 햇살 한 줄기가 먼지 섞인 공기를 가르며 파고들었다. 그 빛은 어두운 신사 내부를 가로질러,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든 우리의 눈꺼풀 위에 내려앉았다.

"음…."

내가 먼저 눈을 떴다. 시야가 온통 하얗게 번졌다. 나른하게 풀린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허리춤을 감싼 그의 팔은 여전히 묵직했다. 비 갠 뒤의 햇살은 지독하게도 따스해서,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그 불경하고 격렬한 행위가 모두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내 움직임에 그도 천천히 눈을 떴다. 평소의 날 선 안광은 간데없고, 잠기가 가시지 않은 그의 눈동자는 아까 들려준 해궁의 전설처럼 깊고 잔잔했다. 그는 품 안에서 꼼지락대는 나를 놓아주는 대신, 오히려 팔에 힘을 주어 제 품으로 더 깊숙이 당겨 안았다.

"비가 그쳤군."

잠겨서 갈라진 그의 목소리가 내 정수리 위에서 낮게 울렸다. 그는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햇살에 달궈진 숲의 향기와 내 살결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읍시다. 지금 나가면, 다시 자작이니 당주니 하는 지겨운 가면을 써야 하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뺨을 비볐다. 그러자 그가 여전히 축축한 내 머리를 쓰다듬고는 그 위에 살포시 입술을 대었다.

틈새로 들어온 햇빛 속에서 우리 둘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제국의 비극도, 절벽 위에서의 차가운 대화도 모두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졌다.

섬의 낡은 신사 안에서, 우리는 모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휴식을 맛보고 있었다.

비 갠 뒤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투명했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는 내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허벅지에 매달린 레이스 가터벨트가 오후의 햇살 아래 그 적나라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의 손길에 짓눌려 붉게 자국이 남은 살결과 하얀 레이스가 대비되었다.

그는 그걸 흥미로운 듯 바라보다 긴 손가락으로 가터벨트의 금속 버클을 톡, 건드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크 스타킹의 결을 따라 그의 손등이 느릿하게 스치자, 나는 나뭇잎처럼 잘게 떨었다.

"버클이 느슨해졌군."

그는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흐트러진 내 가터벨트 레이스를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어주었다. 버클을 채우는 그의 손길이 지나치게 신중해서, 오히려 그 서늘한 손가락 끝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움찔거렸다.

마지막 버클까지 단단히 고정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내 치마를 내리기 직전 무방비하게 드러난 엉덩이를 향해 손바닥을 가볍게 내리쳤다.

찰싹—!

"아…!"

생각지도 못한 타격에 몸이 휘청였다. 얼굴이 폭발할 듯 달아올라 그를 쳐다보자, 그는 입꼬리를 아주 느슨하게 올리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다.

"여길 내가 들어갔었는데."

그는 얼얼하게 달아오른 내 살결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정말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던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수치심에 입술을 깨무는 내 반응이 즐겁다는 듯, 그의 눈동자가 휘어졌다.

"표정이 나쁘지 않은 걸 보니, 다음에는 박히면서 맞는 거 어떻습니까."

"제발…. 그런, 상스러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뜨거워진 뺨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집요하게 내 시선을 쫓아 턱을 잡아 돌렸다. 내 눈가에 맺힌 생리적인 눈물을 확인한 그가 킥킥 대며 웃었다.

"상스러운 건 내 입입니까, 아니면 내 손길 한 번에 이렇게 젖어버린 부인의 그곳입니까?"

그가 공들여 매만졌던 가터벨트 위로 노골적인 시선이 닿았다. 치마 아래에서 시작된 그 뜨거운 갈증이 허리선을 타고 서서히 오를 때마다, 나의 신경은 날카롭게 벼려진 채 비명을 질렀다. 그의 눈길이 지나는 자리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어 피부 위로 아찔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아주 태연한 손길로 내 치맛자락을 끌어 내려 무릎을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내 붉어진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듯 속삭였다.

"부인, 밖에서도 지금처럼 그렇게 귀를 붉히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내가 또 들어가고 싶어질 테니까. 아, 밖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다음에는 밖에서 합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려 입술에 남은 흔적을 엄지로 쓱 문질러 닦아냈다. 조금 전까지 짐승처럼 나를 탐하던 눈빛은 어느새 서늘하고 고결한 '자작'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신사 안의 어둠 속에 두고 온 가터벨트의 차가운 감각과 그의 뜨거웠던 숨결을 가슴 깊은 곳에 숨겼다.

우리는 다시 가면을 썼다. 하지만 내 치마 밑, 그의 손길이 닿았던 가터벨트만은 여전히 뜨거운 족쇄처럼 나를 조이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라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절벽에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 달리 길이 험하지 않은 지름길이 있기에 훨씬 더 빠르게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내일은 벚꽃 구경을 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는 모른 척 태연하게 꽃놀이를 가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 이렇게 가까운데 도대체 신사는 왜 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그는 내 말에 즐거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순진한 우리 아가씨. 그걸 이제서야 눈치챘습니까."

"……."

"당신도 나한테 매달리면서 즐겼잖습니까."

"제가, 언제…!"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 내일은 벚꽃이 아름답게 핀 곳에 돗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는 내일 점심은 이게 좋겠군, 하는 말투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다.

"허."

"좋아?"

"당신, 진짜 이상해요."

"평범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곧."

"하, 참나 누가 그래요."

"…사랑해 줘."

그가 장난기를 지우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갑자기 달라진 그의 분위기에 나는 움찔, 몸을 굳혔다.

침묵은 비 내린 뒤의 숲보다 더 무겁게 우리 사이를 내리눌렀다. 방금까지 돗자리니, 꽃놀이니 하며 상스러운 농담을 던지던 남자는 온데간데없었다.

사랑. 사랑이 뭐지?

"사랑해 본 적 있어요?"

"……."

"있나 보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걸.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같은 걸 묻는다면 당연히 있고,"

그는 나무에 달린 잎을 떼며 말했다.

"연인 간의 사랑은, 아직 없습니다."

"……."

"그러는 당신은,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숫총각이 아닌 남자. 키스도 내가 처음이 아닌 남자. 나는 다 처음이었는데 억울했다. 나 또한 남녀 간의 사랑은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길 바랐다.

"당연하죠!"

나의 외침에 그의 손길이 멈췄다. 나뭇잎을 떼어내던 손가락이 힘없이 늘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보았다.

"아,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아까의 진지했던 온기는 사라지고, 다시금 서늘한 자작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응시하다가, 피식 웃으며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누굽니까? 그놈."

"알아서 뭐 하게요!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이라…. 그럼 내 밑에서 울던 당신은, 그놈을 생각하며 운 겁니까?"

그의 손이 거칠게 내 턱끝을 들어 올렸다.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챈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질투에 눈이 먼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소용돌이치는 것은 분명한 소유욕이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그놈이랑 안 잤습니까. 사랑했다면서."

"몰라요. 그러는 당신은, 언제 처음 해봤는데요."

"열일곱. 남자라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한다며 끌려 나간 유곽에서."

"……."

"내가 말했잖습니까. 껍데기뿐이었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열일곱의 그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홧홧하게 달아올랐다. 이름도 모를 여자들의 손길을 받아냈을 어린 그와, 지금 내 턱이 부서질 듯 쥐고 있는 이 남자가 겹쳐 보였다.

"왜, 질투 납니까?"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내 입술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괜찮아요?"

"살다 보니 처음이라는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무언가 크게 바뀔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강제로 당한 것까지는 아니었으니 안 괜찮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제게 처음은 중요해요."

"……."

"당신의 처음도 앞으로는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팔을 들어 올려 그의 머리에 붙은 작은 꽃잎을 떼어주며 말했다.

"키스해도 됩니까?"

"……."

"첫 키스는 아니지만. 처음 하는 마음으로. 지금이 바로 그러고 싶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이란 거."

쪽.

허락도 하기 전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가볍게 맞닿고 떨어졌다. 깊은 키스가 아닌, 서양의 인사와도 같은 가벼운 입맞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나와 눈을 맞춰왔다.

그의 귓가가 붉었다.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내일….벚꽃 보러 갑시다."

바람이 산들산들 분다. 그는 다정하게 내 머리카락을 귀에 꽂아주었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사랑해 본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

“왠지 억울해서 거짓말 했…. 읍!”

그가 나를 나무 뒤에 가둔 채 거칠게 입을 맞춰왔다.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이렇게 거친 키스는 처음이었다. 늘 여유롭고 다정했던 그였는데, 무언가 이성이 끊긴 듯 그는 내 입술을 먹어 치웠다. 그의 혀가 도망가는 내 혀를 끈질기게 따라와 얽었다.

그의 다리가 내 허벅지 사이로 파고들었다.

“하. 왜 자꾸 귀엽게 굽니까.”

“…….”

“사람 미치게.”

그의 단단한 체온이 젖은 치맛자락을 뚫고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그, 몸이 닿는데요.”

“당신을 갖고 싶어.”

“…….”

그가 내 아랫입술을 엄지로 느릿하게 문지르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이미, 몇 번이나 하셨으면서.”

“내 이름 불러줘, 응?”

그의 거친 숨결이 내 목덜미를 뜨겁게 달궜다. 젖은 옷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너무나 뜨거워, 비 때문에 떨리던 몸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름, 불러주면…. 안 할게. 오늘은 참을게."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내 귓바퀴를 살짝 깨물었다. 참겠다는 말과 달리, 내 허벅지를 파고든 그의 다리는 더욱 단단하게 나를 압박해 왔다. 이건 명백한 고문이었다.

"타, 타케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는 만족스럽다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내 이름을 되뇌었다. 윤경, 이라며. 그가 웃는 게 예뻐 보였다.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다.

9.

저택 안으로 들어온 나는 욕실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녹이며 생각했다.

이래선 안돼, 라고. 그가 예뻐 보인다느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녕 그의 나라가 한 짓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는 조국을 짓밟고 우리의 혈통을 끊은 적국의 남자가 아니던가. 나라를 잃은 채로 그에게 몸도 마음도 종속 되면, 내게는 무엇이 남는다는 말인가. 그건 과연 나일까.

문득 그 생각이 들자, 내 안에 들어왔던 그의 남은 흔적들이 수치스럽고 더럽게 느껴졌다.

남자에게 매달려 울어대던 자신의 꼴이 팔려 온 창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허벅지에 남은 붉은 자국들과 그가 들어와 싸질렀던 부위를 몇 번이고 닦아내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의 촉감이 남아 있는 듯했다.

비릿한 정액의 냄새는 진즉에 씻겨 나갔을 텐데도, 코끝에는 여전히 숲의 흙냄새와 섞인 그의 체온이 맴돌았다.

나는 물속으로 머리까지 처박았다. 숨이 막혀오면 이 지독한 현실도 잠시 잊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폐부 깊숙이 차오르는 건 차가운 결의가 아니라, 아까 그가 내 안을 채웠을 때 느꼈던 아득한 열기였다.

천박해. 자신을 향한 비난이 물거품처럼 흩어졌다. 나라를 잃은 공주가, 제 백성을 도륙한 자의 자취를 지우며 떨고 있다니.

'…사랑해 줘.'

소년처럼 귓가를 붉히며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긁었다. 거짓말이다. 그건 나를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고, 나는 그 가당치 않은 연극에 놀아나 몸을 열어준 천박한 여자일 뿐이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욕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따뜻한 물은 어느새 미지근하게 식어 소름이 돋았다.

나는 조선의 공주였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적국의 사내에게 이름이 불리며 마음이 설레고, 그가 채워준 가터벨트라는 족쇄에 몸을 떨며, 이제는 그가 제안한 벚꽃 아래에서의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지 않은가.

"…차라리 죽여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비명이 젖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내게 칼을 들이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안에 독을 풀었을 뿐이고, 나는 그 독이 온몸에 퍼져 굳어가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 그가 다시 내 손을 잡으면 나는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증오를 담아 그를 밀어낼까, 아니면 이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나를 더 깊이 파멸시켜달라고 매달릴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손에서 차갑게 식은 얼굴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 잠깐의 안락함을 즐기는 것조차 사치였다.

조선의 공주가 적국 남자의 노리개 따위가 되다니.

하나, 둘, 셋, 넷…여덟. 여덟 번은 씻어내야 그나마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지는 듯했다.

일곱은 너무 적고, 열은 너무 많았다. 8 혹은 9가 적당했는데, 9는 10이 되기 직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거나 불운이 닥친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 불길함을 담을 수는 없기에.

여덟 번. 나는 속으로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여덟 번을 닦아냈으니 이제 나는 공주다. 그가 헤집어놓은 창부가 아니라, 여전히 고결한 조선 왕실의 여인이다. 나는 젖은 몸을 보송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겹겹이 옷을 껴입었다.

살결에 닿는 유카타의 감촉이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피부는 예민해져 있었지만, 나는 등을 곧게 폈다.

물끄러미 유카타를 입은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왜 나는 야장의(夜長衣)가 아닌 유카타를 입고 있는가. 그러나 그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에게 더럽혀진 몸과 자신조차 주체하지 못한 정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컸기에.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림자가 발끝을 따라와 질질 끌렸다.

하나, 둘, 셋… 여덟.

걸음 수마저 여덟에 맞추려는 강박이 발목을 잡았다. 아홉 번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왠지 발바닥 밑에서부터 그의 그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아 몸서리쳤다. 나는 기어이 여덟 걸음마다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였다. 내 방 문턱 앞에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진 것은.

그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다. 조금 전까지 나를 유린하던 남자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정제된 '자작'의 모습이었다.

그는 내 창백한 안색과, 여덟 걸음마다 멈춰 서서 떨고 있는 기괴한 거동을 관찰했다.

"욕실에서 아주 오래 머물더군요. 뭘 그렇게 열심히 씻어냈습니까?"

"…상관 마십시오."

"상관이 있지요. 내일 꽃놀이를 하러 가려면 최상의 상태여야 하는데. 이렇게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서야, 벚꽃보다 먼저 져버리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가 다가와 내 뺨에 손을 뻗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여덟 번을 닦아냈어. 다시 닿으면 안 돼.

"내 몸에 손대지 마!"

"…왜 이러십니까. 내게 매달려 울어댈 땐 언제고, 이제는 손도 대지 말라?"

그가 기가 차다는 듯이 한쪽 입꼬리를 삐뚜름하게 올리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멈추는 대신, 오히려 내 팔목을 낚아채 자기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억세게 틀어쥔 손아귀의 힘에, 방금 여덟 번이나 공들여 닦아낸 내 노력이 단숨에 바스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여덟 걸음마다 발걸음을 멈추던데. 조선에서는 그게 무슨 중요한 숫자라도 됩니까."

그는 내 손가락 끝에 맺힌 붉은 핏방울과, 강박적으로 문질러 붉게 터진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내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그 시선에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치료해야겠군요."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치료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대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손도 대지 않을 테니."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게 약을 바르고 서양에서 건너온 하얀 반창고를 내 상처 위로 꼼꼼히 덧씌웠다. 살결을 쫀쫀히 조여오는 그 끈적한 감촉은 마치 그의 소유권이 내 피부 위로 영원히 박제되는 선언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에 하녀가 가져온 것은 선혈처럼 붉은 바탕에 화려한 금사로 꽃이 수놓아진 기모노였다. 그 화려한 자태에 눈이 멀 것만 같았다.

"주인님께서 오늘 꽃놀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의복입니다. 교토에서 공수해 온 최상품 비단이라 하셨습니다."

핏줄처럼 이어져 온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명백한 굴욕의 상징. 나는 그것을 밀쳐내려 했지만, 시종들은 마치 인형을 다루듯 나를 자리에 앉혔다.

속적삼 대신 얇은 나가쥬반이 살결에 닿았다. 그 위로 덧입혀지는 기모노의 무게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조국의 무게처럼 무거웠다. 시종들이 허리를 오비로 강하게 동여맬 때마다, 그가 억세게 쥐었던 허리의 감촉이 되살아나 구역질이 치밀었다.

하나, 둘, 셋… 여덟.

나는 옷이 입혀지는 동안에도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여덟 번의 매듭이 지어지면 이 고문도 끝날 것이라 믿으며. 하지만 마지막 오비가 단단하게 묶이는 순간,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조선의 공주 '윤경'이 아니었다.

그저 일본 자작의 취향에 맞춰 박제된, 화려하고 기괴한 노리개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집어삼킬 듯한 시선으로 훑어내리더니, 나지막이 탄식처럼 뱉었다.

"잘 어울리십니다. 옷이 부인의 흰 피부에 대조되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하. 당신 취향이 이런 거야? 유곽의 창부라도 된 기분입니다."

나는 일부러 그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견딜 수가 없었다.

"…유곽의 창부?"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졌다. 처음 듣는 그의 온기 없는 목소리에 움찔, 놀랐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고 죽일 듯 그를 노려봤다.

"이토록 화려한 옷을 입고 당신과 벚꽃 아래에서 정사나 나누는 게 창부와 뭐가 다릅니까."

"내 아내께서는, 그 말을 기대했나 봅니다. 정말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가 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기모노 색과 어울리는 화려한 꽃장식이 군데군데 꽂힌 틀어 올린 머리를 바라보다, 옆머리를 귀 뒤로 다정히 넘겨주었다. 이내 그의 따뜻한 손이 내 목을 감싸 쥐었다.

"이토록 가녀린 목이라니."

그의 손가락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와 맥박이 뛰는 곳에 머물렀다.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목줄처럼 나를 죄어왔다.

"창부라니요, 부인."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내 목을 감싸 쥔 손에 아주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아프지는 않았으나, 언제든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무언의 과시였다. 그는 반대편 손으로 내 붉은 기모노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창부는 사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 신음을 흘리지만, 부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밀어내고 증오하면서도, 몸은 정직하게 내 이름을 부르며 파들거리니까."

그의 얼굴이 코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정갈한 향수 냄새 뒤로, 어제 신사에서 보았던 그 지독한 소유욕이 서린 눈동자가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내 목을 감싸던 손을 풀어, 내 뺨을 아주 소중한 보석이라도 다루듯 쓸어내렸다. 손가락 끝이 입술에 닿자, 어제 그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던 감각이 되살아나 몸이 떨렸다.

"이 예쁜 입술로, 내게 안겨서 쾌락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부인, 말은 바로 합시다. 당신 몸이 내게 쾌락을 안겨준 건 맞지만, 비위를 맞춘 건 제 쪽이 아닙니까."

그가 내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밀착시켰다. 겹겹이 껴입은 기모노 너머로도 그의 단단한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내가 당신 비위도 안 맞추고 그냥 박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부인의 몸이 더 나를 옥죄겠네요. 그것도 좋을 것 같군요."

그의 노골적인 언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점멸했다. 다정한 낯을 하고서 내뱉는 말들은 하나같이 상스러웠다. 그는 내 경악 섞인 침묵을 즐기기라도 하듯,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어 나를 제 가슴팍에 완전히 가두어 버렸다.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아까처럼 창부 운운하며 나를 더 도발해 보시지 않고."

그가 내 귓불을 입술로 살짝 머금었다가 떼며 낮게 속삭였다. 뜨거운 숨결이 닿은 곳에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다. 그 접촉에 나는 이를 꽉 깨물었다, 정신은 그를 죽일 듯 밀어내고 있었으나, 배신감 섞인 몸은 속절없이 열기를 머금고 울컥거리며 수분을 토해냈다. 내 몸은 이미 그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내가 부인의 그 고결한 자존심을 배려해 주느라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를 겁니다. 당신이 아프지 않게, 당신이 수치심보다 열기에 먼저 젖게 하려고 내가 매번 얼마나 당신 눈치를 보는지."

그의 손이 기모노의 오비 위를 느릿하게 훑었다. 꽉 조여진 비단 너머로도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느껴지는 것 같아 나는 숨을 들이켰다.

"정말로 내가 짐승처럼 당신을 유린하기만 바란다면, 오늘 벚꽃 아래서는 그렇게 해드리지요. 부인의 비위를 맞추는 다정한 남편 따위는 집어치우고, 오직 내 욕망만 채우는 정복자가 되어 당신을 헤집어 놓으리까?"

그의 눈동자가 평소의 부드러움은 간데없이, 굶주린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지만, 겹겹이 싸인 기모노는 내 움직임을 구속했고, 그의 몸은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내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떨렸다. 그러자 그는 다시금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남편의 표정으로 돌아와 내 뺨을 어루만졌다.

"부인이 선택하십시오. 나를 끝까지 밀어내어 기어이 내 안의 짐승을 깨울 것인지, 아니면 얌전히 내 품에 안겨 내가 선사하는 그 달콤한 '비위'를 즐길 것인지."

그는 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내 팔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자, 가시지요. 당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가 정성껏 준비한 그 흐드러진 봄날 속으로."

그가 이끄는 빛이 닿는 곳마다 붉은 기모노의 색깔이 선혈처럼 도드라졌다. 나는 여덟 번을 씻어냈던 내 몸이, 다시금 그의 거대한 의지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가파른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진 숲길 끝, 그만이 열쇠를 쥐고 있는 나무문 너머에는 비밀스러운 벚나무 숲이 숨겨져 있었다. 수백 년 된 벚나무들이 가지가 휘어질 듯 꽃을 피워내어, 새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한 분홍빛 지붕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다. 바람에 분홍색 꽃잎들이 날리는 절경이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와 새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말없이 비단 돗자리를 폈다. 나는 멍하니 서서 벚꽃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가 돗자리를 다 펴고 일어나더니,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이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 위로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과 흩날리는 꽃잎이 너무나 찬란해서, 나는 잠시 내가 처한 비극을 잊을 뻔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라니. 하지만 그가 내민 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나를 다시 진흙탕 같은 현실로 끌어내리는 올가미였다.

그가 내민 손을 나는 잡지 않고 바라만 보았다. 그러자 그가 내 팔목을 잡아끌었다. 나는 그의 힘에 이끌려 무너지듯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안았다. 겹겹이 껴입은 기모노의 서늘한 비단 감촉과 그의 뜨거운 가슴팍이 부딪히며 기묘한 마찰음을 냈다. 머리 위로는 벚꽃 비가 쏟아졌고, 코끝에는 달큼한 꽃향기와 어젯밤 그에게서 났던 그 짙은 체온이 뒤섞여 밀려들었다.

"결국 내 품이 아닙니까."

그가 내 정수리에 턱을 괴고 낮게 읊조렸다. 진동이 머리칼을 타고 전해져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기모노의 긴 소매가 벚나무 가지처럼 무겁게 늘어져 내 팔을 옭아맸다.

"이곳에선 아무리 숫자를 세어도 소용없을 겁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수만 장인데, 당신이 무슨 수로 그 강박을 지키겠어."

그는 내 목덜미를 받쳐 들고 고개를 들어 올리게 했다.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은 어두웠으나, 그 안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만큼은 나를 집어삼킬 듯 선명했다. 그가 자유로운 한 손으로 내 기모노의 오비를 아주 느릿하게, 마치 선물 상자의 리본을 풀듯 어루만졌다.

"여기서 안기면 벚꽃 향이 이길지, 밤꽃 향이 이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의 손가락이 오비의 매듭을 건드렸다. 꽉 조여져 있던 복부가 느슨하게 풀리며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역설적으로 내 몸은 그가 채워줄 온기를 기다리듯 바르르 떨렸다. 여덟 번을 씻어내고 여덟 번을 다짐하며 세웠던 나의 보루는, 그가 내뱉은 다정한 숨결 한 번에 벚꽃잎처럼 허망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기모노의 붉은 비단이 허벅지 위로 밀려 올라가며, 살결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벚꽃잎 하나가 내 허벅지 위로 툭 떨어졌다.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려 입술을 삼킬 듯 다가왔다. 머리 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나는 다시금 그가 쳐놓은 다정한 덫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거부할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이 들이쳤다. 그의 입술은 지독하리만치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는 내 입안의 감각을 하나하나 일깨우며, 마치 가장 아끼는 보물을 탐하듯 정성스럽게 나를 헤집었다.

오비가 풀려나간 기모노 사이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내 몸을 태우는 것은 그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나를 짓누른 그의 육중한 무게였다. 그는 내 허벅지 위에 떨어진 꽃잎을 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 비볐다.

어느새 비단 돗자리 위에 기모노가 펼쳐져 그 위에 누운 채 그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햇살 아래에서 갈색 테두리를 그리며 찰랑이고 있었다. 힘없는 머리카락이 그가 허리짓을 할 때마다 속절없이 흔들리는 게 가련해 보였다.

증오해야 마땅한 남자의 정수리가 이토록 무방비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에, 나는 차라리 눈을 멀게 해달라 기도하고 싶어졌다. 그가 짐승처럼 내 안을 헤집을수록, 내 몸은 기어이 그 가련한 흔들림에 맞춰 그가 빠져나갈 때마다 붙잡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느릿하게 원을 그리며 화답했다.

"…하윽."

내가 느끼는 곳을 찾아 비벼대는 노골적인 감각에, 나는 신음을 흘리지 않으려 비릿한 맛이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다.

파란 수채화 물감을 짜서 투명한 물을 섞어 칠한 듯한 하늘, 그 사이를 촘촘하게 메우고 있는 수만 개의 연분홍 꽃잎들을 하나씩 세다 이내 포기했다. 내 위에서 흔들어대는 그의 몸에 의해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있나 보군."

그는 더 깊게 내 안을 침범하다 내 턱을 잡더니 평소보다 거칠게 입을 맞췄다. 얽히는 혀 사이로 타액이 실타래처럼 엉겨 턱을 타고 흘렀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닿은 그 자리가 소름 끼치게 달아올랐다. 거칠게 맞물린 입술 너머로 그의 밭은 숨소리가 짐승처럼 섞여 들었다.

어떻게든 쾌락을 부정하려 시선을 피하며 무심한 하늘만을 눈에 담았으나, 지독한 입맞춤에 머릿속이 하얗게 점멸하는 순간 내 몸은 이성을 배신했다. 아래는 속절없이 울컥거리며 그를 조여 환영하고 있었다. 부정하면 할수록 몸은 더 정직하게 그를 원했다.

그가 허리를 거칠게 쳐올릴 때마다 시야 속의 벚나무가 기괴하게 일렁였다. 파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지옥 같은 쾌락 속으로 침몰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내 골반을 꽉 움켜잡았다. 손등에 붙어있던 하얀 반창고가 그의 거친 손등과 마찰하며 너덜거렸다. 여덟 번을 씻어내며 지키려 했던 나의 고결함은 이미 저 절벽 아래 파도에 휩쓸려 나간 지 오래였다.

그가 내 안 가장 깊숙한 곳을 집요하게 문지르며 파고들자, 결국 참아왔던 신음이 터져 나왔다.

"흐, 읏."

"더, 소리 내."

내 목덜미를 깊게 베어 물며 더욱 가차 없이 몰아붙였다.

흩날리는 꽃잎들이 땀에 젖은 내 어깨와 가슴팍에 달라붙었다. 마치 그가 새겨넣는 낙인처럼, 분홍빛 꽃잎들은 내 몸 곳곳에 비참하게 박제되었다.

그는 절정에 다다른 듯 내 어깨를 부서질 듯 껴안았다. 머리 위에서는 마지막 발악처럼 꽃비가 폭풍처럼 쏟아졌고, 나는 그 눈부신 분홍색 감옥 안에서 정신을 잃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파도 소리와 내 뺨을 간지럽히는 머리카락에 겨우 눈을 떴을 때, 내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여전히 찬란하게 흔들리는 연분홍빛 벚꽃 지붕이었다. 그의 검은 양복 재킷이 베개처럼 내 뒤통수를 받치고 있었다.

"……!"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허리와 하복부에 묵직하게 감긴 오비의 감촉이 나를 붙들었다.

분명 돗자리 위에서 엉망으로 파헤쳐지고 헤쳐졌던 기모노였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저택에서 처음 나설 때보다 더 완벽하고 단정한 매무새로 누워 있었다. 흐트러졌던 옷깃은 목덜미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거칠게 풀려나갔던 오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심지어 내 몸에 달라붙어 있던 그 불결한 꽃잎들과 땀방울, 그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 마치 인형을 다루듯 내 몸을 닦아내고, 다시 이 겹겹의 비단 속에 나를 가두어 놓은 것이다.

"깨어났습니까."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앉아, 벚꽃 가지 하나를 매만지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손등에는 너덜거리는 헌 반창고 대신, 새하얗고 깨끗한 새 반창고가 붙여져 있었다.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히 내 뺨을 쓸어내렸다.

"부인이 너무 곤히 잠들어서, 깨우지 않고 직접 수습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몸은 좀 괜찮으신지."

나는 소름이 돋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몸 안쪽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가 남긴 욱신거리는 잔열이 느껴지는데, 겉모습은 이토록 정숙하고 고결하게 꾸며져 있다니. 이 괴리감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방금 전의 그 추잡한 정사가 환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끔한 차림새. 하지만 내 허리를 조여오는 오비의 압박감은 그의 손길이 내 영혼까지 옥죄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당신, 정말 미쳤어."

"나는 그저 내 아내의 품위를 지켜드린 것뿐입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아 제 입술로 가져갔다. 새 반창고가 붙은 부위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자, 돌아가죠. 꽃놀이는 실컷 즐긴 것 같으니."

"꽃놀이를 즐긴 게 아니라 몸을 섞어댄 거겠지."

"당신이 내 품에 안겨서 꽃구경하는 거 다 봤습니다. 저 흔들리는 벚꽃 가지를 넋을 잃고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손가락이 내 기모노의 깃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만졌다. 이미 완벽하게 정돈된 옷매무새였으나, 그는 마치 제 소유물에 표식을 남기듯 집요하게 매만졌다.

"나를 받아내며 흐릿하게 풀린 눈으로 저 분홍빛을 쫓던 당신의 눈이 어찌나 요사스럽게 나를 홀렸는지."

"…짐승 새끼. 어떻게 밖에서까지 천박하게 교합을 할 수가 있어?"

그의 눈매가 가느다랗게 휘어졌다. 비난 섞인 내 폭언에도 그는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유희를 즐기는 소년 같은 얼굴로 나를 응시했다.

"평소보다 더 조이던데?"

"…닥쳐."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나에게 안긴다는 수치심. 부인의 흰 살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를 겁니다.”

“변태 새끼.”

그는 내 말에 재밌다는 듯 피식 웃으며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천박한 교합에 가장 뜨겁게 매달린 게 누구였는지, 부인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하고 싶어지니까.”

그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얼굴에 진심으로 침이라도 뱉고 싶었다.

그는 내 얼굴에 서린 노골적인 혐오를 읽어내고도, 오히려 달콤한 과실을 맛보는 사람처럼 즐거운 기색을 내비쳤다. 나의 증오가 그의 식욕을 돋우는 정체 모를 양념이라도 되는 모양이었다.

“아…그 눈빛이 나를 더 흥분시키는 거 압니까. 나를 증오하면서도 내 손길 없이는 서 있지도 못하는 그 불균형함 말입니다."

그는 내 뺨을 타고 흐른 타액의 흔적을 제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게 닦아냈다.

“거친 말을 하는 부인은, 색기가 흐르는군요. 종종 제게 해주십시오.”

그는 제 손가락에 묻은 흔적을 집요하게 응시하다가 코끝으로 가져갔다. 이내 붉은 혀를 내어 그것을 느릿하게 핥아 올렸다.

경악으로 물든 내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젖은 손가락을 내 기모노 깃 안쪽, 심장이 뛰는 가슴께에 느리게 문질러 펴 발랐다. 마치 제 소유물에 각인시키듯이.

10.

섬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도쿄로 왔다. 그의 대학과 나의 학교생활을 마저 마치기 위해서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섬에서의 생활을 안녕했다.

도쿄의 저택은 여느 화족 저택들이 그러하듯,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양식 바깥채와 은밀한 사생활이 침전된 일본식 안채가 기괴할 정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기와를 얹은 하얀 담장 안쪽, 드넓은 잔디 정원과 줄지어 선 떡갈나무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현관 바닥의 매끄러운 타일과 그 앞에 선 이국적인 종려나무의 조합은 내게 이질적인 위화감만을 안겼다.

안채로 발을 들이면 결이 고운 목재로 짠 긴 복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폭은 고작 3척 남짓으로 바싹 줄여져 있어, 그 길을 지날 때면 마치 벽면이 나를 압박해 오는 듯한 착각에 시종 어깨가 떨려왔다. 장지문 중간에 달린 조그만 유리창, 유키미마도(雪見窓)는 앉아서 눈을 감상하는 풍류를 위함이라 했으나, 내게는 그저 좁은 틈새로 바깥을 훔쳐봐야 하는 죄수의 시야와 다를 바 없었다. 벽 안으로 쑥 들어가도록 짠 장롱들은 마치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집어삼킨 채 입을 다문 괴물처럼 정교했다.

2층 침실은 일본식 방 두 개를 합쳐 놓아 지독하리만큼 넓었다. 하코네(箱根) 세공 특유의 기하학적인 나무 조각들이 바닥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는데, 그 정교한 문양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에서부터 소름이 돋았다. 서재 옆, 오로지 주인만이 허락된 계단 손잡이는 그의 결벽적인 성정을 증명이라도 하듯 번뜩이는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서쪽 창으로 고개를 돌리면 강 위로 지는 저녁노을이 비단 직물처럼 화사하게 일렁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발밑의 퇴폐를 가리기 위한 가련한 분장에 불과했다. 뒤편 창 너머로는 도박판을 벌이던 남녀가 짐승처럼 엉켜 잠든 노골적인 풍경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고, 어둠을 틈타 오물을 강물에 쏟아버리는 은밀한 소음들이 밤의 정적을 더럽혔다.

인접한 몰락한 양옥에서는 저급한 가요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새하얀 베네시안 블라인드 틈으로는 거친 사내들의 교성이 섞인 밤이 눅진하게 흘러갔다. 마당에 욕심껏 심어놓은 감과 무화과나무들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으나, 정작 그 발치에는 흙 기운 하나 없이 마른 돌들만 뒹굴고 있었다. 생명력이 거세된 채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이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나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이국적인 저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내 방만큼은, 그의 기묘한 배려인지 혹은 집착인지 모를 의도로 철저히 조선의 문법을 따르고 있었다. 유키미마도의 좁은 유리창 너머로, 그는

기어이 백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도쿄의 기름진 흙을 먹고 자란 탓인지, 조선의 산천에서 보던 것보다 유난히 희고 탐스럽게 피어난 꽃잎들이 바람에 몸을 비볐다.

방 한쪽에는 오색 영롱한 자개 보석함이 화려한 빛을 발하며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자개장이 위압적인 광채를 내뿜었다.

자개장은 크게 두 갈래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 왼쪽 문을 열면 화려한 문양의 기모노 대신, 숨이 막힐 듯 단아한 고운 색상의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오른쪽에는 도쿄의 사교계에서 나를 지탱해 줄 차가운 양장 드레스들이 날 선 실루엣을 뽐내며 매달려 있었다. 한복의 부드러운 곡선과 양장의 날카로운 직선 사이, 그 기묘한 불협화음이야말로 지금 나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리고 장의 가장 깊숙한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는, 이 지독한 길의 시작이었던 웨딩드레스가 비닐에 싸인 채 유령처럼 서 있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비치는 하얀 레이스는 창백하기만 했다.

햇빛이 유키미마도의 좁은 유리창을 통과해 자개 위에 내려앉을 때마다, 자개장 속 학과 소나무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 있게 일렁였다. 보석함 옆에는 결이 고운 오동나무 장이 낮은 자세로 자리를 지켰고, 그 위에는 목이 긴 백자병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진분홍색 철쭉들이 꽂혀서 창밖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향을 뿜어냈다.

서양식 바깥채의 소란스러운 라디오 소리도, 강 건너 도박꾼들의 천박한 교성도 이 방의 문턱을 넘어서면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방 안을 은은하게 채우는 꽃 내음은 이곳이 도쿄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했으나, 그 완벽한 조선의 풍경이 나를 더 깊은 향수 속으로 밀어 넣었다.

자개의 차가운 표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적인 질감은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아름다운 무덤이었다.

우리는 저택 깊숙한 곳, 보랏빛 등나무꽃들이 송이송이 매달려 나른하게 흔들리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정원 위로는 시리도록 하얀 달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차가운 기운이 서린 에비스 맥주 두 병을 가지고 왔다.

그의 빳빳한 흰 셔츠 깃은 달빛 아래서 유난히 희게 빛났다. 마치 이 밤의 조그마한 빛마저 저 혼자 다 독차지하려는 것처럼.

나의 빛마저 빼앗아 간 적국의 남자.

그 생각이 들자, 증오가 다시금 들불처럼 번졌다. 그런 속내도 모른 채, 근사한 얼굴과 단단한 체격 위에 걸쳐진 그의 의복은 처음부터 그를 위해 태어난 가죽처럼 몸에 착 붙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곁에 앉은 나의 소매 끝이 얼마나 파르르 떨리고 있는지. 나는 타국의 옷을 빌려 입은 채, 동서양의 양식이 기이하게 섞인 화양절충식 건물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나는 어디에 속한 걸까. 어딘가에 속하긴 한 걸까.

제국의 의복을 입고, 제국 남자의 아내가 되어, 제국의 달빛 아래 앉아 있는 나는 이미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부유하는 유령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맥주병을 내 곁으로 밀어 놓았다. 갈색 병 표면에는 복을 부르는 신의 얼굴이 그려진 화려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도쿄 사람들은 이 씁쓸한 맥주 한 잔에 하루의 시름을 잊는다고들 합니다. 한 모금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가 맥주잔을 채우며 말을 건넸다. 나는 툇마루 위에 놓인 맥주병을 내려다보았다. 황금빛 액체 위로 몽글몽글하게 올라온 하얀 거품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영화 볼까, 차 마실까, 아예 오다큐 전철 타고 도망갈까'라며 가볍게 흥얼거렸다.

그의 머리 위로 보라색 꽃잎이 툭 떨어졌다. 그는 떨어진 꽃잎을 떼어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왠지 그 모습이 꼭 사춘기 소년 같았다.

"요즘 긴자에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도쿄 행진곡」이라는 노래인데, 아주 경쾌해요. 당신의 기분이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다큐 전철을 타고 연인과 함께 도망이라. 이토록 낭만적이라니."

나는 그 경쾌한 리듬을 듣다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역시 그렇죠?"

"반어법이에요."

"……."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나는 그가 알 리 없는 「황성옛터」의 구절을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건 조선의 노래군요. 무슨 의미죠?"

"씁쓸한 노래죠. 한때는 찬란했으나 이제는 흔적조차 없이 폐허가 된 성터를 걷는 마음입니다."

"……."

"당신들은 연인과 전철을 타고 도망갈 궁리나 하겠지만, 우리는 돌아갈 성벽이 무너져 이끼만 남았답니다. 당신의 노래에는 리큐르 냄새가 나지만, 내 노래에는 피눈물 냄새가 섞여 있지요. 이게 당신과 나의 차이입니다."

"그, 미안합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서."

"됐습니다. 위로는 같은 처지인 사람끼리나 나누는 것이지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맥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내려온 옆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리며 방금 전의 일을 되뇌었다.

짜증이 치밀었다. 그 얼빵한 표정, 마치 혼자만 고결한 죄책감을 짊어진 듯한 그 가증스러운 얼굴. 이불에 몸을 뉜 채로 「황성옛터」를 읊조렸다. 내일이면 또다시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 이 삶을 언제까지 유령처럼 반복해야 할까.

끔찍한 갈증 속에서 간신히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굳게 닫혔던 장지문이 소리 없이 밀려났다.

잠결에 느껴지는 인기척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달빛을 등지고 앉은 그의 거대한 실루엣이었다. 그는 아까 툇마루에서의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얼굴은 어디론가 치워버린 채, 나른하게 풀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정하게 잠겨있던 단추는 두 개쯤 풀려 있었고, 그의 목을 옥죄던 넥타이는 사라진 채 흰 셔츠만 입고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에게서는 아까 내가 거부했던 씁쓸한 에비스 맥주 냄새와 등나무꽃의 농익은 향기가 섞여 나왔다. 그는 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낮게 읊조렸다.

"…언제 왔어요?" 나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랑 같이 안 잘 겁니까."

그는 내 대답을 기다려줄 인내심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듯, 침대 위로 천천히 몸을 겹쳐왔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흉곽이 내 숨을 압박했다.

"부인의 방 안은 온통 조선의 향기로 가득한데, 정작 내 품에 안긴 당신에게선 여전히 차가운 도쿄의 밤안개 냄새가 나는군요."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싹 붙인 채,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속삭였다.

"내 곁에서, 허물어진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더라도 오다큐 전철을 타고 떠나는 연인 정도는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는 대답 없는 내 침묵에 내 손을 가져가 제 가슴팍 위에 올렸다. 쿵, 쿵 하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고동은 무서울 정도로 일정하고 강렬했다. 마치 나를 집어삼키려는 저택의 거대한 유럽풍 시계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누르며, 고개를 숙여 내 어깻죽지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머리카락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찰랑이는 서늘한 머리카락을 내게 비벼댔다. 마치 저를 봐달라는 듯이.

"…취하셨군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응시했다. 달빛을 머금은 그의 눈동자가 집요하게 내 눈 안을 파고들었다.

"연인인 척이라도 하라는 내 제안이, 그렇게나 가혹합니까? 나는 지금 당신의 그 증오조차 맛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는 내 손을 떼어내 침대 위로 짓누르며,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숨결로 내 입술을 삼켜왔다.

거칠게 입술을 집어삼키던 그가 잠시 떨어져 나와, 내 턱끝을 강하게 쥐어 올렸다. 달빛이 그의 젖은 눈동자에 비쳤다.

"키스할 때, 한 번이라도 내 목에 팔 휘감아주면 안 됩니까."

"…왜요."

"당신이 나를 원해주길 바라니까."

나는 끝내 그의 목에 팔을 두르지 않았다. 빳빳하게 굳은 내 몸을 느낀 듯, 그의 입가에 비틀린 웃음이 걸렸다.

"…역시 가혹하시군요, 부인은."

그가 내 손목을 짓누른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젖은 눈동자 속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빛이 일렁였다.

"좋습니다. 매달리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내 등을 손톱으로 할퀴기라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당신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야겠으니까."

그는 다시 내 목덜미로 얼굴을 묻으며, 마치 무언가를 집어삼키려는 듯 거칠게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보랏빛 등나무꽃들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밤을 가려주듯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그가 바란 대로 그의 등에 손톱자국을 남겼다. 그러자 그는 신음을 흘리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도쿄에서 그와의 첫날밤이었다.

11.

그와의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대학에 갔다.

나는 한동안 가쿠슈인에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내 강박 증세가 심하게 도져서였다. 나는 괜찮은데 가끔 하인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 시선이 두려웠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나 싶어서.

낮에 할 일은 딱히 없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기에 멍하니 앉아 낯선 정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쿠슈인은 이맘때쯤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까. 흩날리는 벚꽃잎과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교정을 걷던 때가 그리워질 줄이야. 당시엔 그저 지독한 외로움이라 여겼던 그 시간마저, 지금의 비참함 앞에서는 백 가지 단편 소설 중 유일하게 아름다운 에피소드처럼 미화되고 있었다.

나는 평생 이렇게 고립된 채로 지내야 하는가. 이것은 풍경 좋은 뚫려있는 감옥과 무엇이 다른 거란 말인가.

딱히 읽을 것도 없었다. 서재에는 온갖 서적들이 겸비되어 있지만, 그 무엇도 내 흥미를 끌지 못했다. 창문을 열었더니 더운 바람이 불었다. 풀벌레 소리가 찌르르 들린다. 여유로운 오후였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끄적였다. 아무 의미 없는 낙서에 동그라미나 여러 번 그려대다 지루해져서 그만두었다. 시나 적어볼까. 좋았던 때를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가 보여주었던 섬의 절벽 아래 바다에서의 일이 생각났다.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다. 가장 최근에 있던 일이라 그런 것일까.

애써 지우려 했으나, 누가 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니 흘러가는 생각을 그대로 두었다.

그가 어떻게 미소를 지었는지, 귀에 꽂은 우스꽝스러웠던 노란 꽃잎들이 어떻게 바람에 춤을 추었는지 따위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내가 한 차가운 말들.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는 가해국의 사내이자 그에게 있었듯 내게도 있던 평온을 깨뜨린 사람 중 한 명일 테니.

그러나 이성과 달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내가 만약 거기서 나의 좋았던 시절을 꺼낸다면 어땠을까.

다 부질없다. 그와 그런 촌극 따위 해봤자 무얼 할 거란 말인가. 그와 사랑이라도 하려고? 몸정이라도 들었나?

그 생각을 했더니 입가에서 조소가 흘러나왔다. 사랑은 무슨. 내 인생에 그런 건 사치였다. 그와 나는 보여 주기 식 허깨비일 뿐이었다.

그는 왜 나와 결혼을 한 거지? 집안이 그 정도로 어려운가? 그도 세기의 대단한 사랑을 꿈꿔보지 않았을까. 서양의 어느 소설 속 주인공처럼 말이다.

만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 없어 자연스레 생각이 그에게만 흘렀다. 나는 머리를 설레설레 휘저었다. 그대로 깜빡 잠이 들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밖이 소란스러웠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나를 찾았다. 그게 왠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달까.

"들어가도 됩니까?"

"예."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그는 방문 앞에 비스듬히 기대서 말을 건넨다.

"아무것도. 할 게 없더군요. 변함없는 풍경을 감상하거나 낮잠을 자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거리 구경이라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요?"

"예, 준비하십시오."

그는 그리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내심 거리 구경이란 단어가 들뜨게 했는데 그게 티가 났는지도 모른다. 나는 재빨리 머리를 빗었다. 옷을 갈아입고 입술에 연지도 발라주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숙녀라면 외출 시에 해야 할 필수 과제 같은 거다. 거울 앞에 서서 앞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재차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제복을 벗고 양장으로 갈아입은 채로 한쪽 벽에 가만히 기대어 눈을 감고 있다가 내가 나오자, 슬며시 눈을 떴다.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신이 나서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니, 그딴 건 궁금하지 않았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 그의 피로 따위는. 나 좋을 대로 무료함만 달래준다면 그만이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게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밖은 주홍색을 띠며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는 나의 발걸음에 맞춰 나란히 걸었다.

"가쿠슈인에 다닐 때, 자주 가던 곳이 있습니까?"

"딱히 없어요. 어딜 가 본 적도 없고."

"그렇군요."

"어디 좋은 곳을 알고 계시나요?"

"음. 킷사텐이나 바, 서점, 마작 뭐 그런 곳에 가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다지 즐기진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는데요. 보통?"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경치를 바라보며 시를 쓴다던가."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노을빛을 받아 주홍색으로 빛나는 내 옆얼굴을 지긋이 바라보았다.

"지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가 나직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은 종이 위에 담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알 것 같군요. 왜 내가 그토록 킷사텐의 소음이나 마작 패의 부딪히는 소리를 견디지 못했는지."

그가 노을에 물든 나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지금 당신의 눈동자에 맺힌 이 노을보다 더 근사한 풍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번엔 당신을 내 화판 앞에 세워두고 싶습니다. 내 시의 첫 구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 너무 성급한 고백입니까?"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 쓰입니다. 오늘도 대학에서 내내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그는 내 앞을 가로막아 서며, 노을빛을 등지고 섰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나를 온전히 덮어버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가 손을 뻗어 내 턱끝을 아주 살짝,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어 올렸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아까 본 노을보다 더 붉고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냉담하게 굴어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은 연인인 척 어울려 주십시오."

"…알겠어요."

우리는 그대로 긴자의 번화가로 걸었다.

"아이스크림소다라도 한 잔 어떻습니까? 이 근처에 아주 기막힌 소다 파운틴을 들여놓은 찻집이 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스름이 깔리자, 긴자의 거리에는 하나둘씩 가스등과 네온사인이 켜지기 시작했다.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살짝 떠서 소다수 거품과 섞어 먹는 그 맛이란. 당신도 한 입이면 달콤함에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찻집 문을 열자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 향, 그리고 톡 쏘는 탄산의 기운이 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그는 가장 구석진, 하지만 창밖의 네온사인이 잘 보이는 자리를, 의자를 빼주며 권했다.

그는 익숙하게 멜론 소다 두 잔을 시켰다.

많이 와 본 것일까. 이런 찻집을, 누구와?

곧이어 종업원이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에메랄드빛 멜론 소다 두 잔을 내왔다. 탄산 기포가 보석처럼 잔 벽을 타고 올라오고, 그 위에는 하얀 눈덩이 같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다.

그는 긴 스푼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떻습니까?"

"…. 맛있네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나랑. 다 나랑만 하는 겁니다."

나는 대충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랬더니 그는 기분이 좋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이스크림을 떠먹었다.

긴자의 화려한 카페 거리를 벗어나자, 공기 속에 섞인 짠 내음과 함께 강물이 가스등 불빛을 잘게 부수며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붉은 제등(提燈)들이 야시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낮 동안의 정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시장은 기묘한 활기로 가득했다. 갓 구운 센베이의 고소한 냄새, 이름 모를 골동품들이 내뿜는 퀴퀴한 냄새, 그리고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엉겨 붙어 묘한 해방감을 자아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소매 끝을 살짝 잡으며 인파 속으로 이끌었다.

"백화점의 유리 쇼케이스 안에 있는 것들보다는 훨씬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정해진 가격도, 정해진 예법도 없거든요."

그가 멈춰 선 곳은 소다수를 파는 작은 노점 앞이었다.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대패로 갈아내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선남선녀네."

노점의 주인은 특히나 그의 수려한 외모에 감탄을 쏟아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듯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으나, 찰나를 스친 그의 눈매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늘 저렇게 누군가의 시선 끝에 매달려 평가당하며 살아온 것일까. 빳빳한 그의 셔츠만큼이나 빈틈없는 그의 삶이, 어쩐지 대패에 깎여 나가는 저 얼음 가루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이런 야시장 바닥에서 마시는 탄산수야말로 진짜 '모던' 아니겠습니까?"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유리잔 속의 투명한 기포를 바라보았다. 붉은 제등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비쳐 마치 작은 불꽃이 이는 것 같았다.

"방금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 잔만 시킨 겁니다."

그의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방금 찻집에서 각자 소다를 비우고 나온 참이었다. 초여름 밤공기는 아직 서늘했지만, 야시장의 열기와 그의 뻔뻔한 대답이 섞여 묘한 후끈함이 느껴졌다.

그는 주인에게 건네받은 유리잔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탄산 기포가 톡톡 터지며 알싸한 향이 콧등을 간지럽혔다.

"한 잔을 나눠 마시는 것만큼 부부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건 '야시장식'이라 찻집 것보다 훨씬 짜릿할 겁니다."

그는 먼저 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더니, 입안에서 탄산을 굴리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는 유리잔을 내게 내밀었다.

"이 무질서한 낭만을 한 입 받아보시죠."

제등 불빛에 비친 소다수는 짙은 주홍색으로 일렁였고, 잔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매는 여전히 휘어져 있었다. 냉담하게 돌아서기엔 야시장의 소음이 너무나 달콤했고,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집요했다.

나는 마지못해, 혹은 못 이기는 척 그의 손에 들린 유리잔을 잡았다. 손가락 끝이 그의 온기 어린 손등에 살짝 스쳤다.

그러곤 소다를 들이켰다.

"우리 방금 키스한 겁니다."

쿨럭.

"키...스요?"

전에도 그가 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왜 그는 이런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걸까.

"예.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키스라니, 발음부터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 대학에서 헛공부만 하셨군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간 곳이지 않습니까.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문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 그거 다 마셨으면 이제 진짜 키스하러 가죠."

"무슨…."

"저 장소가 좋겠군요. 야시장의 붉은 불빛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서양 소설 속 주인공들 부럽지 않게 키스하는 겁니다."

그는 붉은 제등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강가 언덕 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난간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무슨, 누가, 한대요?"

그는 나의 당황 섞인 항변을 가볍게 무시하며, 오히려 즐겁다는 듯 내 손목을 부드럽게 쥐어 제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느새 우리는 야시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는 무질서한 야시장의 소음보다 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누가 하냐니요. 여기 당신과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방금 그건 탄산수 맛이 섞인 '간접'적인 것이었으니, 진짜 공부를 하려면 원문을 읽듯 직접 부딪쳐봐야지요. 당신이 말하는 그 '헛공부'가 얼마나 실전적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이 간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는 짐짓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장난기 섞인 유혹이 서려 있었다.

"부인, 서양 소설 속 여주인공들은 이럴 때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도 발꿈치를 살짝 들더군요. 당신은 가쿠슈인에서 예법만 배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척하면서 내 목에 팔을 감는 법도 배웠습니까?"

그는 나를 난간 구석으로 조금씩 몰아넣으며, 야시장의 열기를 등지고 섰다. 시야에는 붉은 불빛을 받은 그의 단정하면서도 날카로운 턱선과, '키스'라는 단어를 뱉어냈던 그 불온하고도 매끄러운 입술만이 가득 찼다.

"자, 선택권을 드리죠.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낭만적인 문명을 전파하게 두겠습니까, 아니면 이 야시장 한복판에서 당신에게 입을 맞춰달라고 소리라도 칠까요?

"미쳤어…."

"원래 연인들은 다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

그는 턱을 살짝 기울여 내게 슬며시 입을 맞추었다. 잡고 있던 내 양 팔목을 슬며시 올리더니 제 목에 휘감게 했다.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가자, 그도 따라 웃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가 정말로 소리치기 전에 바라는 대로 까치발을 살짝 들어주었다. 그러자 그와의 입맞춤이 한층 깊어졌다. 머금기만 하던 입술을 제 혀로 핥더니 당황해서 벌어진 틈을 타 살며시 혀를 내 입안에 넣었다.

혀에서는 밍밍한 맛이 났다. 또, 아까 먹었던 달콤한 멜론 소다 향도 느껴졌다.

그와 한 '연인의 키스'는 멜론 소다 향이었다.

야시장의 붉은 불빛과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인력거에 몸을 실었다. 가스등이 띄엄띄엄 불을 밝히고 있었고, 좁은 인력거 좌석은 방금 입술을 겹쳤던 우리의 거리를 강제로 밀착시켰다.

바퀴가 지면의 돌부리를 지날 때마다 어깨와 허벅지가 은근하게 맞닿았다. 방금 전의 대담함은 어디로 갔는지, 인력거 안에는 팽팽하다 못해 터질 듯한 정적만이 흘렀다.

그는 짐짓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는 척했지만, 맞잡은 손의 손가락 마디를 만지작거리는 움직임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인력거가 너무 좁군요. 가쿠슈인 예법대로라면 조금 더 거리를 둬야 할 텐데."

그가 먼저 정적을 깼다. 목소리에는 아까의 능글맞음 대신, 묘하게 들뜬 열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손가락 마디를 집요하게 만지작거리다, 결국 참지 못하겠다는 듯 내 손등 위로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가쿠슈인 예법 따위, 지금 이 좁은 인력거 안에서 무슨 소용입니까. 부인의 팔이 내 목을 감던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예법' 대신 다른 생각들만 가득 찼는데."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이제 멜론 소다처럼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어제도, 했잖아요."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무기력한 대꾸에,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인력거의 덜컹거리는 소음 사이를 파고들어 내 귓가를 델 듯이 스쳤다.

그는 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던 손에 힘을 주어 나를 제 쪽으로 더 바싹 끌어당겼다. 좁은 좌석 탓에 내 가슴팍이 그의 단단한 팔에 눌렸다. 그는 내 목덜미에 코를 묻고는, 아까 그 멜론 소다보다 더 진하고 끈적한 숨을 내뱉었다. 인력거가 커브를 돌 때마다 밀착되는 허벅지의 열기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어제도 했으니, 오늘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그다음 날도. 당신의 몸이 도쿄의 이 눅진한 밤공기에 완벽히 길들 때까지. 오늘은 연인이 되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도착한 그는 거칠게 입을 맞추며 옷을 풀어 헤쳤다.

"오늘은 당신이 내 위에 올라 타보십시오."

그가 내뱉은 상스러운 명령은 오히려 내 안의 무언가를 비틀어 놓았다. 나는 그가 입혀준 양장 드레스의 자락을 걷어 올리며, 그의 단단한 허벅지 위로 올라앉았다.

달빛이 유키미마도를 통과해 자개장의 광채를 일깨우고 있었다. 그 위압적인 빛 아래서,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신음을 뱉어냈다.

그는 내 아래서 가슴이 흔들리는 걸 황홀한 듯 바라보다, '여기에 끼우고 싶습니다.'라며 그의 욕망을 끼워 넣었다. 내 가슴 아래를 큰 손으로 받쳐 들며, 그 위에 맺힌 땀방울 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시선을 맞췄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를 제 위로 더욱 깊게 끌어당겼다. 짓눌린 가슴 사이로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나는 그를 증오하는 마음과 몸이 느끼는 쾌락 사이에서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자개장에 새겨진 학들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일렁였다. 그는 내 허리를 단단히 붙잡고 고개를 드러내 쇄골에 입을 맞추었다.

12.

창밖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걷히고, 방 안엔 농밀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화장품과 립스틱들을 각 맞춰 줄을 세워 정리하고 있었다.

콜드크림의 둥근 병과 립스틱의 매끄러운 단면이 일렬로 늘어설 때까지, 나는 몇 번이고 그것들을 다시 배치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 어긋남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결벽에 가까운 손길로 사물의 질서를 강요했다. 내 안 어딘가에 무너진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눈앞의 세상만큼은 완벽하게 통제되어야만 했다.

터벅터벅.

그의 발걸음 소리라는 걸 이제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소리는 내가 공들여 세워둔 사물의 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리며 다가왔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그 정중한 압박감에 심박수가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립스틱의 방향을 고쳐 잡으며, 떨리는 숨을 억눌렀다.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화장품들 너머로, 나의 통제를 벗어난 단 하나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두 번의 노크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들어오라고 말한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등 뒤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화장품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치 숨 막히도록 빽빽한 감옥의 창살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 규칙들이 당신을 지켜주기라도 합니까?”

낮게 깔리는 그의 목소리가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났다. 대답 대신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립스틱의 뚜껑을 다시 한번 꾹 눌렀다. 그때였다.

그의 커다란 손이 불쑥 시야 안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공들여 세워둔 립스틱의 대열을 툭, 하고 가볍게 쳤다.

정교하게 맞물려 있던 기둥들이 맥없이 옆으로 쓰러지며 굴러다녔다. 챙그랑, 하고 화장품 병들이 서로 부딪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질서가, 그의 손짓 한 번에 허무한 잔해가 되어 책상 위를 뒹굴었다.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켜보는 이도 없는데 숨 좀 편히 쉬십시오. 어차피 당신을 흐트러뜨릴 사람은 나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는 나의 세계를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렸다. 그가 툭 쳐서 쓰러뜨린 립스틱들처럼, 나의 어린 자존심도 방바닥을 뒹굴었다. 그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열아홉의 비겁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행동에 화를 내려던 찰나, 그의 손에는 들린 무언가가 시선을 가로챘다.

"그날 당신이 버린 꽃은…. 내가 다시 심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더군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운을 뗐다.

그의 입술에 묻어 있던 나의 립스틱 자국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내 나라의 죽음을 입에 올렸다.

나는 애써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살포시 내려놓았다.

"목이 베여 나간 당신의 나라를 되돌릴 힘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생만큼은 그 누구의 발길질에도 짓밟히지 않을, 단단한 땅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제 서약입니다."

나는 그제야 책상에 놓인 편지봉투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눈이 마주치자 옅게 미소를 지어주고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나는 달큼한 향을 풍기는 연분홍색 봉투를 들었다. 그가 직접 그린 듯, 수채화 물감으로 흰 동백꽃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편지 속을 열어보니 두께감이 있는 미색 종이에 푸른 잉크로 유려하게 쓰인 그의 영어 필체가 보였다. 그 아래는 그가 단어를 고르며 번역했을 다정한 문장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대 늙었을 때,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어지고,

난롯가에 앉아 졸게 되거든, 이 책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읽으며, 한때 그대의 눈동자가 머금었던

그 부드러운 빛과 그 안에 깃든 깊은 그림자를 다시 꿈꿔 보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대의 눈부신 순간을 사랑하였는지,

그대의 아름다움을 거짓으로든 진심으로든 사랑하였는지.

다만 한 남자만이 그대 안의 순례하는 영혼을 사랑하였으며,

변해 가는 그대 얼굴의 슬픔마저 사랑하였나이다.

그리고 불빛에 달아오른 창살 가에 몸을 굽히고,

조금은 서글픈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 높은 산 너머를 거닐며,

수많은 별 무리 속에 그 얼굴을 감추어 버렸는가를.]

온기 하나 없는 종이에서 그의 따사로운 체온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단정한 필체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어떤 단어를 골라야 나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을지를 고뇌하며 한 줄 한 줄 옮겨 적었을, 그날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시선이 끝에 그가 작게 그려 넣은 꽃 그림에 머물렀다. 그의 단정한 손가락이 붓을 쥐고 이 꽃잎들을 채워나갔을 모습을 상상하자, 심장 언저리가 저릿하게 조여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꽃을 쓰다듬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 위에 입술을 내리눌렀다.

마치 한 번도 용기 내어 만져보지 못한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듯이.

사랑받고 있다는 자각은 달콤한 안식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가르고 들어왔다. 그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내기에 내 영혼은 이미 짓밟힌 조국의 흙먼지로 뒤덮여 무거웠으니까.

투명한 눈물이 피부를 타고 흐른다.

내 속마음은 저 멀리 던져두고, 당장이라도 이 문을 박차고 나가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그 품에 무너져 내리고 싶은 갈망과 그를 향한 연정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은 증오가 심장 끝자락에서 피비린내 나게 뒤엉켰다. 그에게 마음이 향할수록 나는 비겁해졌고, 미워하려 할수록 나는 파멸해 갔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그가 그려 넣었던 동백꽃이 젖어 들어갔다. 마치 마른 꽃에 물을 주듯, 그의 기억을 꽃피우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편지 속 가장 정갈하게 쓰인 단어, '영혼'위로 툭, 떨어졌다.

찰나의 순간, 종이 속에 박제되어 있던 청회색 잉크가 눈물을 머금고 수국처럼 피어올랐다. 단어의 테두리가 허물어지며 번져나간 푸른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 해안선이 되어 남았다. 그 섬의 파도가 나의 발치에서, 짓뭉개진 영혼의 글자 위에서 청색으로 깊게 앓고 있었다.

쿠제 타케오라는 '섬'에 닿지 못한 채 그 언저리를 서성이는 슬픔이 푸른 색감으로 번져갔다.

부나비는 자신이 타 죽을 걸 알면서도 기꺼이 불을 향해 달려든다고 한다.

얼음장처럼 시리기만 하던 내 세상에, 따뜻한 온도를 가진 남자가 들어왔다.

당신이라는 뜨거운 불에 타 한 줌의 재가 되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부나비처럼 나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편지를 다시 여전히 향기가 나는 봉투에 넣었다. 내 마음을 봉인하듯,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손톱으로 눌러 닫았다. 직, 소리가 났다. 내 마음에 금이 가는 소리 같았다.

달큼하던 향이 씁쓸한 재의 냄새로 변해 있었다. 봉투 속에서 타 버린 것은 그의 진심일까, 아니면 이미 재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한 나의 영혼일까.

나는 화려한 문양의 각인이 새겨진 채, 인위적인 전등 빛을 반사하고 있는 립스틱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금박의 몸체 위로 부서지는 빛줄기가 나의 모습을 비추며 번뜩이고 있었다.

질서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홀로 매끄럽게 빛나는 저 금속 덩어리가 금이 간 마음의 조각들을 겨우 붙들고 서 있는 내 일그러진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13.

1930년 4월 26일.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는 인류의 명운을 건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절이다.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른다. '먹지 마! 독이 들었어!' 목구멍이 덜컥 닫히며 수저를 내던진다. 내 몸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로 나의 사지를 조종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땅에서 바다를 건너온 지독한 신병(神病)인가, 아니면 타국에서 맞이한 파멸의 서곡인가. 조선의 황녀가 고작 천하디천한 무당 따위란 말인가.

서가에 꽂힌 활자들이 일제히 벌레처럼 기어 나와 지면 위에서 요란한 춤을 춘다. 눈을 비벼보아도 단어들은 이미 제 자리를 이탈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 중간중간 더 진한 색으로 또렷이 눈에 들어오는 활자는 기이하다. 이것을 읽어야 한다. 나는 소리 내 그 글자들을 읽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영혼의 페이지를 한 장씩 찢어발겨 다른 이의 기억과 바꿔치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저택의 마당은 낯선 짐승의 식도처럼 나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잠은 더 이상 안식의 처소가 아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편린들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뇌수를 짓이긴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본래 천상의 높은 옥좌에 앉아 만물을 굽어보던 신(神)이었으나, 어느 찰나의 죄목으로 이 비천한 육신 속에 유배당했다. 강등의 치욕은 골수까지 시리게 각인되어 있다.

언제일지 모를 습격에 대비해 카디건의 주머니 속 차가운 날붙이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해요. 오늘만 해도 수차례 그림자가 목을 조여 왔으니, 당신도 부디 경계하세요. 8월 8일에…."

나는 그에게 주의를 줬다. 오로지 나만이 눈치채고 있었고 혹시나 무방비하게 그가 당한다면, 하는 생각에서였다.

나의 가문은 가부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었고, 물질의 풍요는 그 감옥의 창살을 도금한 것에 불과했다. 그 안에서 나는 몇 가지 기괴한 의식(儀式)의 노예가 되었다. 신발과 옷장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렬되지 않으면 공기가 희박해져 방을 나설 수 없었다. 손을 씻고, 다시 씻고, 여덟 번을 씻어내도 전생의 업보 같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다. 바닥의 선은 지옥의 경계선이었고, 모든 행위는 숫자 '8'의 저주 아래 놓여야만 했다.

하나, 둘… 여덟.

그래야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밤이 깊으면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린다. 그것은 바람의 장난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려는 저승사자의 마른 손가락질이다. 저승사자가 내 이름을 세 번 부른다면 나는 이승을 떠나야 한다. 나를 세 번 부르기 전에 재빨리 도망가야 했다. 공포에 질려 그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창백한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 그는 유난히 희고 눈부셨다. 서늘한 밤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훑고 지날 때, 나는 전율했다. 그의 눈빛은 민담 속 여우가 인간을 홀려 간을 빼 먹듯, 나를 시험하고 빼앗으려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동시에, 나의 숨통을 끊어버릴 무자비한 집행관 같은 냉정함도 느껴졌다.

혹시 그가 저승사자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스쳤다. 창백하고 허연 피부, 신비로운 분위기, 차가운 인상과 날카로운 윤곽. 호리호리한 몸과 큰 키. 마침, 그는 어두운색의 유카타를 입고 있었다. 캄캄한 밤에 언뜻 보이는 길고 헐렁한 형체는 두루마기를 연상시켰다. 그의 주변만 시간이 얼어붙은 듯했다. 밤바람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그에게서 배어 나와 나의 폐부를 찔렀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불안만이 유일하게 내 감각을 지배했다.

문득 과거의 즐거운 기억들이 뇌 속으로 침투한다. 나는 그 기억에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 얼핏 서린 당혹감과 연민을 보았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으나, 나는 그의 당혹을 놓치지 않았다.

내게 내려진 신탁은 명료했다. 저 남자를 제물로 바쳐라. 머릿속은 뿌연 안개가 자욱했으나 살의만큼은 등대처럼 명확했다. 사랑하는 척 연기하며 그의 신뢰가 가장 깊어지는 순간, 그의 심장을 도려내 신격(神格)을 회복하리라. 그것은 나에게 내린 엄중한 '신내림'이었다.

평소의 견고한 벽을 허물고 그에게 들러붙었다. 미소를 흘리고, 그의 몸을 탐하며 유혹의 그물을 쳤다. 남자는 가련하게도 내가 자신을 사랑하게 된 줄로만 알고 도취에 빠졌다.

폭풍 전야의 밤, 침대 밑에 은장도를 숨겼다. 몸을 섞고 그가 깊은 잠의 수렁에 빠진 틈을 타 일격을 가할 작정이었다. 실수란 있을 수 없다. 위(上)에서는 끊임없이 그를 죽이라 명령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내 몸이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절규하며 나를 가로막았다.

그때, 남자가 눈을 떴다.

“나를, 죽일 생각입니까.”

침묵이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방 안을 갈랐다.

“당신 손에 라면 기꺼이 죽어줄 수도 있겠는데….”

“이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당신을 죽이라고… 하지만 못 하겠어. 내 마음이 당신을 지키라고 해.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신병일까? 원래 내 나라에서는….”

횡설수설하며 무너지는 나를, 그는 가만히 안아주었다. 뜨거운 온기가 등을 타고 흐르자 기이하게도 내 안의 악귀들이 잠잠해졌다. 그는 나의 제물이자, 나를 이승에 붙들어 놓는 닻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은장도를 빼내 창가에 올려두었다. 달빛을 받은 칼날이 잠시 번뜩였으나, 이내 그림자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마치 그 흉측한 물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적막한 평안만이 남았다.

“당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내 귓가에 낮게 읊조렸다.

“당신이 혼자 견디고 있는 그 어둠이 두렵습니다.”

나는 그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자각보다, 그에게 이토록 비참하고 투명하게 읽혔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안았다. 마치 내가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서져 버릴 고대의 유리병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를 ‘살게 두고’ 있었다. 내가 신격(神格)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했을 때부터, 혹은 이 기괴한 8의 저주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그는 내가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나의 광기마저 풍경처럼 받아내고 있었다.

폭풍 같던 명령이 잦아들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진실은 더욱 잔혹했다. 나를 안아주는 그의 체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내 안의 ‘신(神)’은 비명을 지르며 소멸해 갔다. 인간의 온기를 받아들인 신은 더 이상 신으로 존재할 수 없기에.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게 되었다. 8월 8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더는 두렵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다만 기이한 것은, 내가 온전해질수록 나를 안아주던 그의 옆얼굴이 점점 더 낯설게 변해갔다는 점이다.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나를 지켰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그림자가 나보다 더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던 나뭇가지 소리가 멎은 자리에, 이제는 그의 낮은 숨소리가 칼날처럼 방 안을 채웠다.

마치 나의 광기가 그에게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처럼. 혹은, 내가 신의 자리를 포기한 대가로 그가 내가 가졌던 그 '위험한 신성'을 대신 짊어지기로 한 것처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雪) 대신 창백한 재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그의 목덜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가 아닌 '그'를 위해 숫자를 세었다. 그의 옷감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향기에 취하며 잠이 들었다.

하나, 둘… 그리고 운명의 여덟.

14.

나는 집에서도 화장하며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새 나는 '그'를 의식하고 있었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씻고 나와, 시세이도 콜드크림을 바르고 살굿빛 파우더를 두드렸다. 가늘고 길게 아치형의 눈썹을 그려주고, 차분한 말린 장미 색상의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덧발랐다. 풍성하고 깊은 눈매를 위해 요즘 모던 걸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마스카라도 해주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황금빛 액체. 여성스러운 향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샀던 코티의 로리간 향수를 마지막에 뿌려 온몸에 향기를 품었다.

그러고 방 밖으로 나가서 그를 보면, 쑥스러워져 괜히 발끝을 꼼지락거리곤 했다.

"화장했어?" 그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한다.

"…모던 걸이라면, 당연히."

"부인께서는 맨얼굴이 더 아름답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닙니까?"

기껏 열심히 가꾸었더니, 그는 화장이 진하다는 소리나 하는 거다. 나는 발끈하며 말했다.

"진하다니요! 요즘 거리의 여인들은 이보다 더 선명한 색을 칠하곤 합니다."

"당신의 체취가 더 좋습니다, 전. 진한 향수 냄새 보다."

향수를 뿌렸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집에서 향수를 뿌린 행위 자체가 창피하게 느껴져, "향수 안 뿌렸어요!"라고 말하자, 그가 짓궂게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가 내 팔목을 덥석 잡더니, 공들여 바른 립스틱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 내었다.

"무슨 짓이에요!"

그는 "립스틱은 잘 지워지지 않더군요", 하면서 내게 입을 맞췄다.

그와의 몇 번째 키스인지 어느새 꽤 익숙해진 나는 그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머금고 있던 입술을 서서히 떼며 그가 말한다.

“지워졌으니, 다시 칠해야겠군요.”

그는 엄지에 남은 연한 분홍빛 립스틱 자국을 바라보다 자신의 아랫입술에 슬쩍 문지르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칭찬해 달라는 듯이.

“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나보다 더.”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붉어진 그의 입술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이제 다시 가져가셔야죠, 부인께서.”

“…….”

“내가 갈까, 네가 올래? 이번에는 네가 왔으면 좋겠는데.”

“어, 어디를 가요.” 나는 빤히 알면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여, 아까보다 더 깊은 입맞춤을 했다.

나는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내 입가는 립스틱이 엉망으로 번져 있었고, 뺨은 봉숭아 색상으로 수채화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닦아 내야 마땅할 흔적이었으나, 나는 왠지 그 번진 자국조차 소중해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방 안에는 그의 서늘한 스킨 향과 나의 달큼한 로리간 향수가 뒤섞여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다시 립스틱을 집어 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나는 기꺼이 이 붉은 낙인을 입술 위에 얹을 것이다.

그가 다시금, "립스틱은 잘 지워지지 않더군요,”라며 나의 숨을 가져가 주길 바라며.

15.

빨간색, 자주색, 분홍색, 다홍색. 다채로운 색상의 봉숭아꽃이 활짝 피어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궁 뒷마당에 핀 봉숭아 꽃잎과 잎을 빻아 명반을 넣고 손톱에 물을 들이곤 했었는데.

조국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곳에서도 같은 꽃이 피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다.

나는 꽃잎을 한 장 뜯었다. 부드러우면서 생기를 머금은 꽃잎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물들여볼까.'

나는 아무것도 발리지 않은 매끄러운 손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실천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장 평평하고 모양이 예쁜 큰 돌과 손으로 쥐기에 적당한 모양의 작은 돌 하나를 주워 물에 씻은 후 물기를 닦아 내었다.

툇마루에 앉아 꽃잎 여러 장과 잎사귀 몇 장을 뜯어서 돌로 그 잎들을 빻기 시작했다. 꽃잎을 빻으며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생각이 났다. 코가 시큰거리고 투명한 액체가 시야를 일렁이며 더 선명해진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나는 울음을 꾹 참고 돌로 꽃잎을 빻는 데 집중했다. 꽃물이 새어 나와 조금씩 돌을 적시고 있었다.

돌을 타고 흘러내리는 붉은 액체는 꽃잎이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인가. 그리 생각하자 위로가 되는 듯했다.

탁, 탁. 돌이 마찰하며 소리가 툇마루에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 때문인지 남자가 방에서 나왔다.

"뭐 합니까?"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려고요. 여기도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에서 종종 하던 소꿉장난입니다."

"그걸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고요? 재밌는 장난이네. 저도 해봅시다."

그가 내 곁으로 와 앉았다. 나는 그에게 돌을 건네주었다. 그는 받은 돌로 잎들을 빻기 시작했다.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와 함께 있으니, 공기가 더 더워진 것만 같았다. 돌이 내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정적이 불편해 그에게 물었다.

"명반 있나요?"

"명반?"

"네. 그걸 넣으면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색도 선명해지고."

"있을 겁니다. 물어보고 오죠."

그는 돌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돌을 가져가 버린 탓에 나는 꽃잎을 빻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홀로 툇마루에 앉아 더운 바람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상황이 꿈처럼 몽롱하게 느껴졌다. 더위를 먹었나.

곧 그가 명반을 가지고 왔다. 나는 명반 한 꼬집을 꽃잎에 올렸다. 그러자 그가 다시 꽃잎을 빻기 시작했다. 꽃잎이 더 진하고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네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멈추었다.

나는 다 빻은 꽃잎들을 그의 엄지손톱에 올려주었다.

"저도 하는 겁니까?"

그가 낮게 웃으며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밑바닥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가 내뱉은 웃음의 잔향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조심스레 붉은 꽃잎들을 정리해 주었다.

"부인 손톱은,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며 그가 내 손을 가져갔다. 나보다 따뜻한 그의 체온에 손가락을 움찔거렸다.

내 손이 차가운 편인가, 그의 손이 따뜻한 편인가. 평소에도 체온이 높았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자연스레 그와의 잠자리로 이어졌다. 이 상황에, 미쳤나 봐.

그는 내 불손한 상상 따위는 짐작도 못 한 채, 조심스레 꽃잎을 올려주었다. 그 무구한 손길이 오히려 나를 더 애타게 했다.

차가운 꽃잎의 감촉이 손톱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 묵직하면서도 서늘한 감촉이 불편했다.

그가 내 작은 손톱에만 집중한다. 좁은 방에 갇힌 듯 마음이 답답해져 왔다. 이 불편한 감각에 나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싶었으나, 그런 추태를 그 앞에서 보일 순 없었다.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8월의 쨍한 햇빛 아래, 화사하게 빛을 머금은 초록색이 지금 여름의 끝자락에 있음을 실감 나게 했다. 너무나 평온한 계절을 그와 함께 보내고 있다니. 결혼 전보다 지금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의 착각일까.

바람에 살랑이는 그의 새카만 머리카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만져보고 싶었다.

"긴자 카페에 가면 이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들이 널렸는데."

"……."

"부인의 이런 소소한 정서가 나는 좋습니다."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조선에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4개월은 걸리겠군요. 첫눈 보려면."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건가 봐요."

내가 짐짓 무심하게 대답하자, 그는 내 손가락을 감싸 쥐고 있던 힘을 아주 미세하게 꾹 더했다.

"저는 첫눈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군요. 이미 내 눈앞에 있는데."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그의 말은 8월의 열기보다 뜨겁게 귓가를 울렸다.

"…첫사랑 말입니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저릿해지는 게 사랑이라면, 내 첫사랑은 지금, 이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톱에만 집중한 채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아까부터 눈여겨보았던 그의 머리카락으로 자유로운 반대쪽 손을 천천히 뻗었다. 조심스레 그의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부드럽고 서늘한 머리카락이 손등 위를 간질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도 내가 왜 이런 대담한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먼지가 붙어 있어서요."

나는 태연한 척 말했다.

그는 내 뻔한 거짓말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내 손톱 위 꽃잎을 갈무리해 주었다.

"먼지가 참…. 다정하게도 붙어 있었나 봅니다."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8월의 열기 탓인지, 아니면 조금 전 내 손등을 스친 그의 머리카락 감촉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색함을 감추려 고개를 돌려 다시 마당을 보았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봉숭아꽃이 손톱에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적막을 깨는 것은 규칙적인 매미 소리와 이따금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이따금 그의 시선이 느껴졌으나, 나는 꿋꿋이 그를 보지 않았다.

"꽃물을 들이는 내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야 하고, 첫눈이 올 때까지 지워지지도 않는다니."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간지럽히듯 한 바퀴 쓸었다.

"부인은 참 무서운 장난을 가르쳐주네요. 긴자의 어떤 화려한 여자들도 나를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두지는 못했는데. 봉숭아 물은 손톱에만 드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엄지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덧붙였다.

무슨 의미일까. 의미심장한 말을 해놓고 태연하게 손등만 어루만진다.

나는 가만히 그가 간지럽히는 손등의 감촉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손등에 머물다 천천히 올라와 내 눈에 닿았다. 눈이 마주치자, 찌릿한 느낌이 든다. 8월의 태양보다 더 진득한 열기가 그의 눈동자에 일렁였다.

"부인, 손톱이 다 자라고 이 물이 없어졌을 때 첫눈이 오겠지요."

그는 내 손을 자기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 손톱 위에 얹어진 꽃잎이 떨어질까 봐 차마 입을 맞추지는 못한 채, 그저 그 뜨거운 숨결만 내 손가락 사이사이로 흩뿌렸다.

"그때가 되면, 우리 다시 이 툇마루에 앉아 첫사랑 이야기를 합시다. 그 설화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매미 소리가 멀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가 우리 발치까지 길게 늘어졌다. 붉게 빻아진 꽃잎들은 이제 내 손톱 위에서 제 색을 온전히 내어주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조국의 기억은 여전히 애틋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 위에 이 남자의 온기가 덧칠해지고 있었다.

손끝이 저릿했다. 꽃물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가 말한 사랑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손톱에는 그가 새겨놓은 붉은 낙인이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손톱에 예쁜 다홍빛이 물들었다.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고 나면 온몸이 붕 뜨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물들여준 손톱이라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낮에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툇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는 옆에서 대학의 여름방학 과제를 했다. 낭만주의 문학에서의 죽음과 미학이라나 뭐라나.

밤에는 그와 이른 저녁을 먹고 나서 몸을 씻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내 방으로 찾아와서 말했다.

"벌써 잘 겁니까."

"…뭐 할 말 있으세요?"

"왜 내 방으로 안 옵니까."

"…어제도 했잖아요."

"그래서요?"

"너무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오늘은 꼭 해야겠습니다."

"왜요?"

"당신의 붉은 손톱이 아까부터 자꾸 유혹하니까."

그는 나의 손을 가져가더니 물들여진 손톱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여놨으면, 해준 사람한테 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말하고는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바지춤으로 내 손을 가져다 댔다.

"오늘은 이 예쁜 손으로 제 것을 유린하는 게 어떻습니까."

손바닥에서 그의 뜨거운 윤곽이 느껴졌다. 당황한 내가 손을 빼려 하자, 그가 커다란 손으로 내 손등을 덮어 누르며 속삭였다.

“아까부터 하고 싶었어. 너 씻고 나오기만 기다렸어. 손 빼지 마. 네가 툇마루에서 내 머리카락 만졌을 때, 그때 이미 나 인내심 다 썼으니까.”

그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다홍빛으로 물든 내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다.

"자, 이제 네가 물들인 이 붉은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봐.”

그가 천천히 내 안으로 붉게 물든 제 엄지를 밀어 넣었다. 낮에 내가 정성스레 물들여준 그 손톱의 감촉이 은밀한 곳에 닿자, 나는 숨을 들이켜며 그의 어깨를 밀어냈다.

“아, 잠시만요…. 그건 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내 다홍빛 손톱이 박힌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낮게 웃는 소리가 허벅지 사이에서 울렸다.

“이상하네요. 엄지손가락은 짧아서 부인 속이 얼마나 깊은지 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는 축축하게 젖어 번들거리는 제 손가락을 빼내고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그걸 핥았다.

“그걸 왜 먹어요!”

그는 입가에 묻은 물기를 혀로 느릿하게 훔치며, 눈은 여전히 내 아래를 뚫어질 듯 바라보며 대답했다.

“미끈한 게 혀에 감기는 거 압니까.”

그는 내 당황한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젖어있는 제 엄지손가락을 내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부인도 알아야지. 본인이 나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손가락 끝에 맺힌 투명한 액체가 내 입술을 적셨다. 다홍빛 손톱이 내 입술 사이를 가르고 들어오자, 툇마루에서 느꼈던 그 쌉싸름한 봉숭아 꽃내음이 아닌, 비릿하고 생소한 맛이 느껴졌다.

“시, 싫어.”

“네 거 먹을래, 내 거 먹을래?”

“…….”

“네 거 먹는 게 나을걸,” 하면서 손가락으로 내 혀를 꾹 눌렀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내 입술 사이를 파고든 자신의 손가락을 굴렸다. 입안 가득 퍼지는 생소한 감각과 비릿한 향에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는 다른 한 손으로 내 뒷머리를 단단히 받쳐 고정했다.

"응…. 아, 윽…."

가느다란 신음이 손가락에 막혀 뭉개졌다. 툇마루에서 내 손톱을 만지던 그 조심스럽던 손길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내 반응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탐닉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손가락을 빼내자, 연결된 투명한 타액이 다홍빛 손톱 끝에 매달려 길게 늘어졌다. 그는 그 광경이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봐, 당신이 물들여준 이 색이 얼마나 음란하게 빛나는지. 야해라, 자기가 흘린 물이나 핥아먹고 말이야."

"그건, 당신이 먹였잖아요!"

그가 웃으며 젖은 손가락을 내 가슴께로 가져가 천천히 문질렀다. 그 축축한 촉감에 신음이 새어 나왔다. 그는 내 당황한 눈동자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며, 내 손을 다시 끌어당겨 자신의 뜨겁게 달아오른 곳에 단단히 밀착시켰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예쁜 손톱으로 나를 긁어도 좋고, 쥐어도 좋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 닿은 그의 열기는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듯 뜨거웠다. 다홍색으로 물든 내 손톱이 그의 거친 피부 위를 스칠 때마다, 그는 속에서 울리는 깊은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뒤로 꺾었다.

"아…. 그래, 그렇게."

남자의 단정하고 긴 목선과 툭 튀어나온 울대뼈가 도드라졌다. 그가 침을 삼킬 때마다 울대뼈가 위아래로 꿀렁이며 움직였다. 마치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도드라진 울대를 눌러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탁, 탁.

그의 목덜미 위로 새카만 머리칼이 흩어졌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결이 내 시야를 어지럽게 뒤흔들었다.

낮에 보았던 청명한 하늘의 색과는 대조되는, 탁하게 가라앉은 그의 반쯤 감긴 눈이 내 전신을 훑었다. 툇마루에서 그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어 했던 나의 조심스러운 마음은 이미 그의 폭발적인 욕망에 잠식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쳐 눌렀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내 손을 압박했다. 그의 톡 튀어나온 파란 힘줄이 팔뚝까지 연결됐다. 나는 다른 손으로 그의 튀어나온 힘줄을 꾹 눌렀다. 단단한 팔목 위에 놓인 말랑말랑한 느낌. 굵고 긴 손가락이 눈에 보였다. 남자 손은 이렇구나.

손가락 끝에 그의 맥박이 펄떡이며 전해졌다. 제 팔뚝 위에서 노니는 나의 손가락을 내려다보던 그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집중 안 하지."

그는 반대편 손으로 내 턱을 강하게 비틀어 쥐고는, 제 것을 움켜쥔 나의 손을 똑똑히 바라보게 했다.

그가 평소보다 한층 더 낮은 목소리로 짓씹듯 내뱉었다.

"더 세게 쥐어봐. 하…."

휘저어 놓은 연못의 흙탕물처럼 흐릿한 그의 눈동자에는 나를 향한 지독한 갈증과 나에 의해 파괴되고 싶어 하는 기묘한 갈망이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느릿하게 깜빡이는 연약한 피부 아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눈가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그 심연 같은 눈동자는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쾌락의 심연에서 갈피를 잃고 유영하는 그의 텅 빈 눈동자. 그 공허한 갈증에 응답하듯, 내 몸 안 깊숙한 곳에서 울컥 흐르는 감각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토록 고고하고 단정한 남자가 내 손길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에 쾌감이 턱끝까지 찰랑였다.

절정에 다다를 때쯤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내 입술을 집요하게 삼켰다. 입안에서는 아까 느껴졌던 비릿한 맛과 그의 뜨거운 숨결이 녹아들며 몽롱한 감각을 자아냈다.

내 손가락 마디마디를 타고 흐른 뿌연 흔적을 그가 휴지로 조심스레 훔쳐내었다. 그러나 닦아내지 않은 그의 노골적인 열기가 내벽을 타고 번질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점멸했다. 이를 단단히 깨문 채 깊게 파고드는 그의 움직임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조여들며 몸을 맡길 뿐이었다.

쾌락의 끝에 매달려 신음할 때, 그는 내 손을 제 입가로 가져가 다홍색 손톱 하나하나를 느릿하게 핥아 올렸다. 짓이겨진 봉숭아 꽃잎의 잔흔이 그의 하얀 치열 사이에 물리고, 축축하게 젖은 그의 혀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타고 흘러내렸다.

낮의 햇살 아래서 단아하게 빛나던 나의 손톱은, 그의 타액으로 투명함을 머금었다.

그는 제 이마를 덮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몸 안 깊숙이 그의 색으로 물들여 놓았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이 내 뺨을 스칠 때마다 비릿한 꽃향기가 났다.

8월의 무더운 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방 안에는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살결이 마찰하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16.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합니까.”

“나는 이렇게라도 살지 않는다면, 무너져 내릴 거예요.”

나는 옷장 속 옷걸이들 간격을 맞추며 말했다.

“차라리 그걸 다른 쪽으로 승화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리가…”

“나랑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성적인 두뇌와 규칙을 사용하는. 어떻습니까. 이래 봬도 저 도쿄제대생입니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이 번뜩 뜨였다.

그 이후로 그와의 은밀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툇마루에 놓인 육중한 은빛 선풍기가 회전을 시작하자, 정원의 이끼 냄새와 섞인 서늘한 바람이 그와 내 머리카락을 훑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아서 작은 상을 핀 채로 그 위에서 마당을 보거나 붉은 보석처럼 정교하게 깎인 수박을 먹으며 과외를 이어 나갔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결국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도 이 방정식처럼 명쾌한 답안으로 가둘 수 있다면, 조금은 편해지시겠습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선풍기 날갯소리에 섞여 들었다. 제국의 정점에 선 남자가 허락한 이 은밀한 과외는, 나에게 있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질서 정연한 도피처'였다.

“그렇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풀었다!”

나는 기뻐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칭찬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내자, 그는 커다란 손으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헝클였다. 향유를 발라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손가락이 파고들 때마다, 선풍기가 실어 나르던 서늘한 쇳내 대신 그의 소매에서 배어 나온 은은한 담배 향과 만년필 잉크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내 앞에서는 담배를 피운 적은 없지만, 그의 소매에선 가끔 담배 냄새가 났다. 청량한 스킨향과 대비되는 은은한 담배 냄새가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고 할까. 남자 냄새가 났다. 그에게서 나는 남자의 냄새는 내 가슴을 간지럽혔다.

이따금 그와 눈이 마주치면 그의 눈에 불꽃이 튀는 듯했다. 그 시선의 의미를 알 것만 같았다.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려 다시 문제를 푸는 척했다.

시선을 내린 곳엔 문제를 풀다 만 하얀 종이와, 그 종이를 누르고 있는 그의 길고 마디진 손가락이 보였다. 방금 내 머리를 헝클었던 그 손끝이 이제는 가만히 잉크 자국을 덧그리고 있었다. 셔츠의 팔을 걷어붙인 그가 펜을 쥘 때마다 불거지는 손등의 힘줄이 시야에 들어와, 나는 괜히 침을 삼켰다.

그는 더운 듯 셔츠의 단추 하나를 더 풀었다. 꼭, 유혹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의 풀린 셔츠와 목선에서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나는 어딘가 어색해져 수박을 들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수박의 붉은 즙이 내 팔목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것을 닦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내 팔목을 가져가 제 혀로 핥았다.

"뭐, 뭐 하는 거예요!"

"할래?"

"……."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으로 내 팔목에 남은 타액을 느릿하게 닦아냈다. 그러고는 풀린 단추 사이로 드러난 쇄골을 들썩이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처럼 나른하게 웃었다.

"수학 말입니다. 한 문제 더, 할래?"

내 반응을 보며 놀리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시 수학 문제 푸는 데 집중을 했다.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가 내 허벅지를 쓰다듬는 게 느껴졌다. 그가 닿은 곳이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얇은 비단 치마 너머로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선명하게 전해졌다.

나는 흠칫 놀랐지만,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수학 문제만 묵묵히 풀어나가는 척했다. 그러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을 간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는 나오지 않았다.

선풍기 바람은 여전히 툇마루를 맴돌았지만, 그가 닿았던 허벅지 위는 여전히 덴 듯 뜨거웠다. 오 분, 아니 십 분 정도 지났을까. 수학 문제의 변수들을 아무리 조합해 보아도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의 공백이라는 변수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고쳐 쥐었다. 종이 위에는 내가 적어 내려간 정답보다, 그가 핥아냈던 팔목의 맥박 소리가 더 선명하게 박혀 있는 듯했다.

이윽고 들려오는 화장실 문고리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문틈으로 배어 나오는 것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짙고 축축한 냄새—비누 향기에 섞인 그의 거친 숨결이었다. 세수를 한 듯 그의 앞머리가 젖어 있었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내 옆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의 목덜미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내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아까의 수박즙보다 훨씬 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살을 델 듯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다 풀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게 잠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그 젖은 머리카락 끝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만 같아서.

그와의 여름을 수학 문제를 풀며 보내게 되었는데, 꿈이 생겼다. 바로 수학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저, 수학 공부하려고요. 가쿠슈인을 졸업하면,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학이라…. 그럼, 이제 툇마루에서 나랑 수박 먹을 시간은 없겠군요. 질투 나는데."

"대학 입시, 도와줄 거죠?"

"수업료가 꽤 비쌀 텐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데요."

"돈으로 환산이라니 그럴 순 없죠. 앞으로 부인의 낮과 밤은 모두 제 것입니다."

“거의 매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더 원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밀한 과외를 이어 나갔다. 가끔 몸의 과외가 되어서 문제였지만.

17.

가을이 되었다. 3월에 그와 결혼했는데 벌써 7개월은 함께했다.

그의 품에 안겨 아침을 맞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의 잠버릇은 나를 죽부인처럼 껴안고 자는 것이었는데, 가끔 그의 무게에 짓눌려 답답한 곳에 갇히는 꿈을 꾸기도 했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다. 햇빛이 찬란하게 부서지는데 서늘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함께 맞이할 때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 손톱을 매만지며 말했다.

"봉숭아 물은 다 빠져가는데, 첫눈은 언제 올련지."

"보통 도쿄는 1월에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쪽.

"흣."

"이미 나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서, 자꾸 그런 못된 말 할 겁니까?"

우리는 뭘까. 부부? 연인?

처음 봤을 땐 절대로 그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어느새 그가 내 일상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너무 행복하면, 두렵지 않은가요?"

"……."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대가라던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왔기에 보상받는 겁니다. 사람이 늘 행복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인께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가끔 당신은, 꼭 세상을 다 산 노인 같아요."

"……."

"그게 싫지 않다는 소리예요."

"사랑해."

그 말에 마음속에서 불길이 이는 듯했다. 따뜻한 씨앗이 자리를 잡더니 그 씨앗에부터 무언가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 애틋한,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심장이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뛰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셔츠 깃을 가만히 쥐었다. 손톱 끝에 남은 흐릿한 봉숭아 빛이 그의 하얀 옷감 위에 번지는 듯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직 내 입술 뒤에 숨어 있었지만, 내 안의 씨앗은 이미 그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사랑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어른이었다.

차가운 얼음 성벽 뒤에 숨어 당신의 빛을 구경만 하려 했다.

그러나 내 세상은 당신이라는 태양 아래, 이미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녹아내린 물웅덩이에 내 발이 젖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부나비가 불에 뛰어드는 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빛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나 또한 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신으로 인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18.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와 첫눈을 맞이하고 시린 겨울을 함께 보낸다. 코타츠 속에서 나의 차가운 발이 그의 발에 살짝씩 닿았다. 그는 차가울 텐데도 피하지 않는다. 난로처럼 따뜻한 그의 발에 내 발을 녹였다.

"봄에 졸업하면, 대학은 미국으로 가죠."

"예?"

"나와 함께 도망갑시다. 이 아름답고 안락한 감옥에서."

"무슨 소리예요?"

"언제까지고 내 인생을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땐 다른 길을 찾아야겠지만."

꼭두각시. 그와 나의 존재는 꼭두각시였다. 집의 하인들조차 우리의 사람이 아니다. 비교적 그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의 가문에 보고 되거나 제국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현실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감옥이라고 느끼지 않았던가.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의외였다. 이따금 도망가는 상상을 한 적이 있으나 그가 환멸을 느끼며 먼저 떠나자고 할 줄은 몰랐기에.

"어떻게 도망을 가요?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이 집에도 넘쳐나는데. 열 명 중 열 명이 아닙니까."

"대학은 인맥 사회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그들은 성인입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 또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그걸 배워가는 중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곳에서 각종 인연을 만났습니다. 도쿄 제대 선배나 동기들은 이 나라를

주무르는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이 많죠. 인맥이란 건, 때로 국가의 법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코타츠 너머로 내 발을 지그시 누르며 말을 이었다. 낮은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내 강의실 옆자리에 앉은 동기는 외무성 차관의 장남이고, 매일 검도를 함께하는 선배는 요코하마 세관장의 조카입니다. 그들에게 '미국으로 학술 조사를 떠나려 하니 서류를 좀 만져달라'고 말하는 건, 당신이 하인에게 차를 가져오라 시키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시받고 있잖아요. 당신 가문과 제국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들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던지고 조선의 공주와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미국 유학 중 실종되었다고 처리하는 게 그들의 명예에 이롭다는 걸 그들도 잘 압니다. 추문보다는 비극이 다루기 쉬운 법이니까요."

그가 몸을 숙여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난로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였다.

"도쿄 제대 독문학과 수석이라는 타이틀은 제국이 내게 준 훈장이지만, 그 타이틀 덕분에 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출국 허가서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놈들이 나를 '제국의 동량'이라 믿고 있을 때, 나는 그 믿음을 비웃으며 당신과 북태평양을 건널 겁니다."

"……."

"여권 세탁부터 자금 이동까지 이미 밑그림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대답만 있으면 됩니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박제 되어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저 자유로운 신대륙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자는 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설마. 모든 걸 버리진 않죠. 신분과 국적만 버리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빼돌린다는 소리입니다."

"자금을… 빼돌린다고요? 도쿄 한복판에서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창밖으론 도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문밖 복도 어딘가에선 우리를 감시하는 하인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여유롭게 내 발등을 짓누르며 말을 이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도쿄는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돈이 모이는 동양의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죠. 니혼바시(日本橋)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제국 정부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입니다. 그들은 고객의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먹고사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깊게 응시했다.

"이미 전부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도쿄 제대 연구비 명목으로, 혹은 우리 가문의 도쿄 저택 수리비라는 핑계로 막대한 현금을 인출해 달러와 금괴로 바꿨죠. 요코하마 항구 근처의 외국인 조계지에 있는 안전한 가옥에 이미 옮겨두었습니다. 그곳은 일본 경찰의 구두 굽 소리보다 영어나 프랑스어가 더 익숙한 곳이라, 우리 같은 '귀한 손님'의 뒤를 캐는 자가 없거든요."

"하지만 가문에서 알게 되면…."

"가문요? 그들은 내가 대학에서 서양 철학에 빠져 실없는 소리나 해대는 도련님인 줄로만 압니다. 내가 매일 들고 다니는 그 두꺼운 원서들 사이에, 위조된 여권과 선박 승선권이 끼워져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여태껏 꼭두각시로 살았으면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는 코타츠 위에 놓인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난로처럼 뜨거웠다.

"우리는 도쿄역에서 평소처럼 기차를 탈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벼운 온천 여행이라도 떠나는 줄 알겠지요. 하지만 종착지는 요코하마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시애틀행 대형 여객선에 몸을 싣는 순간, 도쿄의 이 지독한 안개와 감시의 눈길은 영원히 안녕입니다."

"……."

"가장 먼저 성(姓)부터 바꿀 겁니다. 내가 새로 만든 서류 속의 이름으로 당분간 살게 될 겁니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공주'라는 신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나 또한 이 지긋지긋한 화족의 굴레를 벗고 그저 당신의 남자로 살겠지요."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특권을 버리고 뛰어든 세계가 정말로 낙원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왜…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도쿄에서 모든 걸 가졌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약속된 미래가 있는데."

내 물음에 그가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괴테의 『파우스트』 속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파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집안과 작위는 화려하게 치장된 관(棺)일 뿐입니다. 살아서 썩어가느니, 차라리 모든 걸 불태우고 당신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애틀로 갈 겁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낯선 지명이 방 안의 공기를 가로질렀다. 나는 의아함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시애틀이라니요? 그곳은 일본인 이민자들이 가득한 곳이라 들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는 눈이 도쿄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왜 하필…."

"맞습니다. 시애틀의 재팬타운은 거대하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코타츠 너머로 비밀스러운 진실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곳의 동포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건너간 노동자들이나 상인들입니다. 도쿄의 화족 얼굴을 알거나 조선 왕실의 예법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죠. 제국의 영사관도 시애틀에서는 그저 이민자들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느라 눈이 벌겋습니다. 그들이 부둣가에서 짐 보따리를 풀며 소란을 피우는 동안, 우리는 그 군중 속에 섞여 아주 평범하고도 흔한 이방인이 될 겁니다."

그는 내 손등에 밴 식은땀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내 동기 중 한 명이 요코하마 우편선(NYK)의 선박 배정 담당자입니다. 그에게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먼 친척 부부'의 서류를 부탁해 두었죠. 우리는 일등석 손님으로 배에 오를 겁니다. 일등석 승객은 복잡한 입국 심사대 대신 선상에서 간소한 절차만 거치면 끝이죠."

나는 침을 삼켰다. 그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다.

“자금은 이미 뉴욕의 은행 지점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그는 내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덧붙였다.

“대답해 주세요. 나의 이 미친 계획에, 기꺼이 공범이 되어 주겠습니까?”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겁에 질려 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생기가 도는 눈동자였다.

“… 좋아요. 그 미친 짓에 동참할게요. 어차피 이 집에서 박제가 되어 죽어가느니, 바다 위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내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승리자의 기쁨이라기보다, 마침내 파멸할 자유를 얻은 광인의 그것과 닮았었다.

“짐은 너무 많이 싸면 의심을 살지도 모릅니다. 최소한으로 챙긴 뒤, 나머지는 그곳에서 장만하는 걸로 하죠.”

그의 말은 지독히도 현실적이라 도리어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이 저택의 하인들이 매일 아침 닦아내던 나의 화려한 비단옷들, 서랍 속에 잠자던 영롱한 패물들, 그리고 조선의 자개장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추장스러운 쓰레기로 전락하는 기분이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거의 없겠네요.”

“버리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낡은 껍데기를 긁어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는 코타츠 안에서 내 발을 감싸고 있던 자기 발을 천천히 빼내며 몸을 일으켰다. 따뜻했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겨울밤의 시린 공기가 순식간에 차올랐다. 그는 벽에 걸린 코트를 집어 들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꼭 가져가야 할 게 있다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으로 딱 하나만 정해두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다 버려줄 테니.”

그가 방을 나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시선은 방 한구석, 자개 보석함에 머물렀다. 제국이 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이제는 빛바랜 어머니의 노리개만을 챙겨야 했다.

푸르스름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창밖의 도쿄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내 안의 세계는 이미 요동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애틀로 향하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나는 비로소 이 아름다운 감옥의 박제가 아닌, 살아있는 도망자가 될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 깊숙이 숨겨진 노리개를 꺼내 쥐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증명할 유일한 파편. 멀리서 도쿄의 아침을 알리는 전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곧 하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나의 아침을 수발하러 들어올 것이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제와 똑같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

내 가슴 속에는 시애틀의 거친 파도가 벌써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정물화처럼 고요한 '조선의 공주'로 남아 있어야 했다.

19.

봄이 되고 가쿠슈인을 졸업했다.

나는 하카마를 입은 채로 졸업식을 마치고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내 품에는 무거운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문득 그와의 결혼식이 생각났다. 이렇게 활짝 핀 장미꽃을 들고 그와 사진을 찍었던 게 바로 어제 일 같은데, 그때와는 정반대의 감정으로 곁에 서 있다. 그것도 대담한 계획을 세운 채로.

졸업 파티는 가지 않았다. 딱히 친구도 없을뿐더러, 그와 졸업 기념 파티를 하기로 했기에. 오라버니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보다 내 곁에선 타케오가 더 내 가족 같았다. 고작 일 년을 함께 했을 뿐인데 말이다. 왜 이렇게 그들이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마침내 그와 둘만 남게 되자,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졸업 기념으로, 아타미로 온천 여행을 갑시다."

"갑자기 무슨 온천 여행이요?"

"전에 말했잖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선…하다가 말을 멈추었다. 하인들의 귀를 의식한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야 이해했다. 그는 지금 '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리라. 졸업 기념으로 온천 여행을 가는 것이 의심의 눈초리를 사지 않는다는 소리였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혹시나 들릴까 봐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금은 어떻게 됐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무서워요. 실감이 안 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킬 일은 없을 테니."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꿀꺽.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사형까지는 아닐지라도…사회적 사형은 되겠지요. 가문의 수치, 횡령범…그 정도. 죽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 정도면 해볼 만한 도박 아닙니까?"

그가 덧붙인 가벼운 농담에 오히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내가 졸업하기만을 기다려왔다. 가쿠슈인의 졸업장은 나에게 지성인의 증표가 아니라, 이 화려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만기 출소 신고서'와 같았다.

"내일 아침, 아타미행 열차를 타는 걸로 하인들에게는 일러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시애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날 겁니다, 내일."

바다 너머, 권력도 가문의 서슬 퍼런 시선도 닿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던질 생각이었다. 젊은 화족 남성이 누릴 수 있는 장밋빛 미래 대신, 그는 나와 함께 이국의 낯선 땅에서 무명의 이방인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무서워요, 타케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인생은 한 번 뿐입니다. 기회라는 건, 그리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했으니."

"…그래도."

"당신의 그 명석함과 나의 결단력이면, 그 낯선 땅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의 이 화려한 껍데기가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는다 해도, 그때도 내 곁에 있어 줄 겁니까."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단단한 확신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 집에서 맡는 마지막 향기를 기억 속에 새겼다.

20.

나는 하녀들이 정성껏 싸둔 짐가방을 하나둘씩 열었다. 온천가에서 입을 수수한 유카타와 면 옷들이 단정하게 개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망설임 없이 꺼내 침대 밑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윽고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하인들이 잠든 걸 확인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수한 옷을 빼낸 자리에 파리의 최신 유행을 담은 이브닝드레스들, 진주가 촘촘히 박힌 클러치, 거기에 어울릴만한 가장 비싼 보석들로 세공된 주얼리 몇 개를 챙겼다. 귀한 비상금이 될 것이었다.

"온천 여행을 가면서 이런 화려한 드레스들을 챙기는 게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허영심 많은 공주라 생각하겠죠. '온천에서도 파티를 열 모양이다'라며 비웃겠지만, 그 비웃음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겁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다시 쌌다. 하녀들이 개어놓은 방식 그대로, 그러나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들로. 드레스들의 무거운 무게감이 가방을 채울수록, 우리의 도주도 점점 실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방 맨 밑바닥, 부드러운 실크 자락 사이로 나는 어머니의 노리개를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제 됐습니다."

그가 가방의 버클을 단단히 채웠다. 겉으로 보기엔 아까와 똑같은 짐가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생애를 바꿀 운명이 담겨 있었다.

아침 햇살은 안개에 부딪혀 희뿌연 빛으로 방 안을 채웠다. 하인들이 밤새 우리가 바꿔치기한 묵직한 가죽 가방들을 차로 옮기는 동안,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평소의 대학 제복 대신, 그는 몸 선을 따라 유려하게 떨어지는 짙은 남색의 긴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단단한 어깨선과 곧게 뻗은 옷태가 그의 냉정한 성정을 그대로 닮았었다. 그는 한 손에 검은색 페도라를 든 채 내게 다가왔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으나,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페도라를 머리에 얹고 챙을 살짝 눌러썼다. 챙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의 날카로운 눈매를 반쯤 가렸다. 하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아내와 온천 여행을 떠나는 근사한 화족 신사 그 자체였다.

"네, 가요."

저택 앞에는 검게 윤이 나는 고급 세단이 낮은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낑낑거리며 드레스와 금괴, 보석들이 담긴 육중한 가방들을 차 뒷부분에 넣었다.

"다녀오십시오, 자작님. 공주님. 부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와 하인들이 차 주위로 일렬로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묵직한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백미러 속에서 저택의 대문이 안개에 먹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그가 그제야 페도라를 벗어 옆자리에 두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쿄의 풍경은 지독한 안개에 가려져 신기루 같았다.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평소처럼 우아하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도쿄역에 도착하자, 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빨간 모자를 쓴 짐꾼들이 달려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페도라 챙을 고쳐 쓰며, 짐꾼들에게 넉넉한 팁을 건네는 여유를 보였다.

"아내의 드레스가 든 가방들이니 특별히 신경 써주게. 일등석 칸으로 바로 옮겨주면 좋겠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리!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무거운 가방들이 수레에 실려 역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내 팔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나를 플랫폼으로 인도했다. 코트의 질감이 내 소매에 닿을 때마다, 이것이 연극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아찔한 감각이 전신을 감돌았다.

도쿄역 플랫폼은 안개와 증기기관차가 내뿜는 연기로 자욱했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앞장서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내 팔을 붙든 그의 손에 순식간에 힘이 들어갔다.

"어이, 이게 누구인가!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안개 너머에서 제복을 입은 중년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가문과 가까운 고위 관료이자, 도쿄 제대의 대선배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가방 속 위조 서류들이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듯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내의 요양 차 아타미 온천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를 건넸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태도였다. 중년 사내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타미라…. 그런데 짐이 왜 이렇게 많나? 무슨 이민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사내의 시선이 인부들이 옮기는 우리의 육중한 가죽 가방들에 머물렀다. 짐꾼 하나가 비틀거리며 가방을 내려놓자, 둔탁한 금속음이 들렸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여자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온천에서도 매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고집을 피우는 통에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감싸안았다. 그 능청스러운 대처에 사내는 껄껄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긴, 조선의 공주님을 모시고 사니 자네가 고생이 많군. 조심해서 다녀오게!"

사내가 멀어지자마자 그는 나를 거의 이끌다시피 열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일등석 칸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거칠게 페도라를 벗어 던졌다. 그의 이마에도 얇게 땀이 맺혀 있었다.

열차가 요동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좌석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장갑 속의 손은 이미 땀으로 흥건해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 곁에 앉아 떨리는 내 손을 꽉 움켜잡았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쿄를 벗어났어요."

그의 손바닥 또한 뜨겁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는 내내 내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 뼈가 마디마디 느껴질 정도로 강한 그 악력이 나를 현실에 붙들어 매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열차가 요코하마를 향해 속도를 높일수록,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열차의 일등석 칸은 지나칠 정도로 정적이었다. 덜컹거리는 진동만이 우리가 제국의 심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고,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장갑 속의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도쿄역 개찰구를 통과할 때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아, 심장 소리가 귓가까지 울리는 듯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그가 조용히 손을 뻗어 내 손을 감싸 쥐었다.

짙은 코트 자락만큼이나 묵직하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한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내 손을 쥔 손가락 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도 이 손만은 놓지 않겠다는 결연함처럼.

“안심하십시오.”

그가 아주 낮게, 열차의 소음에 섞일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온기가 장갑을 뚫고 전해지자 요동치던 가슴이 서서히 진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비록 여전히 심장은 두근거렸으나, 그것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기묘한 설렘에 가까웠다.

우리는 요코하마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다. 그저 겹친 두 손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안개 속을 가로지르는 철로에 몸을 맡길 뿐이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요코하마역이었다.

“다 왔습니다.”

그가 내 손을 짧게 쥐었다가 놓으며 페도라를 고쳐 썼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아타미로 향하는 안락한 유람 대신, 거친 바다 너머의 미래를 향해 뛰어내려야 했다.

요코하마 항의 짙은 해무를 뚫고, 거대한 성벽 같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태평양의 여왕이라 불리는 치치부마루(秩父丸). 1만 7천 톤급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 배는 제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배의 거대한 굴뚝이 안개 속에서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다.

"내리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단 한 순간도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롱 코트 깃을 세우며 차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금기 섞인 축축한 바람이 뺨을 때렸다. 짐꾼들이 우리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육중한 가죽 가방들을 일등석 전용 통로로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화려한 카펫이 깔린 일등석 전용 구교(Gangway) 앞에 섰다.

"입국 심사 서류와 승선권입니다."

그가 일등석 전담 승무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페도라 챙 아래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지독히도 오만해서, 감히 누구도 그 서류를 꼼꼼히 대조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승무원은 서류에 찍힌 총독부의 압인과 그의 명함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허리를 굽혔다.

“카이토 님, 그리고 부인. 치치부마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애틀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카이토? 나는 생소한 이름에 의아했으나 이내 그가 미리 준비해 둔 성이구나 싶었다.

승무원이 길을 터주자, 그는 내 팔을 단단히 감싸 쥐고 배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철제 발판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를 가두고 있던 도쿄의 창살이 하나씩 부러지는 소리 같았다.

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 앞에 펼쳐진 것은 아르데코 양식의 화려한 로비였다. 높은 천장의 유리 샹들리에와 세련된 직선미가 돋보이는 가구들. 그는 멈추지 않고 곧장 일등석 스위트룸으로 나를 이끌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지만, 그는 내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쥐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선실 문이 열리고, 육중한 문이 닫히며 걸쇠가 잠겼다.

철컥.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듯 서 있었다. 그는 페도라를 탁자 위에 던져두고는, 선실 안의 창 너머로 멀어지는 요코하마 항구를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배의 출발을 알리는 거대한 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우우-!

발밑에서부터 묵직한 진동이 올라왔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며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장갑을 벗어 던진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해방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 배가 다시 멈출 때, 우린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을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이제 우리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대양과, 시애틀만이 남아 있었다.

선실의 묵직한 문이 잠기고 나서야 그는 깊게 눌러썼던 페도라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렸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새 여권 두 권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짙은 감색 표지 위로 낯선 글자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카이토 타케오(海人 武夫)."

그가 자신의 새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카이토?"

"네. 이제 쿠제라는 화려한 껍데기는 요코하마 항구의 바닷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추적도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그저 바다를 건너는 평범한 부부일 뿐이죠."

그는 여권 한 권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카이토 미츠코(海人 倫子)입니다. 조선의 공주도, 화족의 자부심을 지키는 인형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아내이자, 시애틀의 낯선 공기를 함께 마실 자유로운 영혼이죠."

하나. 그의 입술을 타고 흐르는 내 새 이름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달콤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은제 셰이커를 흔들어 두 개의 크리스털 잔에 투명한 술을 따랐다. 치치부마루의 일등석 스위트룸에 구비된 최고급 진(Gin)이었다.

"자, 부인. 우리의 위대한 실종을 위하여."

그가 잔을 내밀었다. 창밖으로는 요코하마의 해안선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제 배는 속도를 높여 도쿄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가슴이…. 아직도 너무 뛰어요."

나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잔을 맞댔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여주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렁이는 파도와, 그보다 더 거대한 야망이 서려 있었다.

"뛰게 두십시오. 그 두근거림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곧 저녁 만찬을 알리는 종이 울릴 겁니다. 우리가 밤새 공들여 싼 그 드레스 중 가장 화려한 것을 꺼내 입으십시오. 오늘 밤, 치치부마루의 모든 승객은 '카이토 부부'라는 이방인들에게 매료될 겁니다."

그는 싱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긴장은 온데간데없고, 완벽한 연극을 준비하는 주연 배우 같은 여유로움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21.

치치부마루의 내부는 아르데코풍으로, 벽면은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나무로 마감되어 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천장에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유리 샹들리에가 달려 있어 은은함과 화려한 분위기를 더했다. 객실 안에는 커다란 폭신한 서구식 침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은 아름다운 벨벳 커튼이 양옆으로 묶여 있었다. 그 외에 새하얀 화장대와 티 테이블 또한 요즘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 이곳이 배 안인지 제국의 호화로운 호텔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다.

승객은 주로 일본인과 백인들이었는데, 일본과 미국을 오가던 미국인 사업가나 선교사, 외교관 혹은 여행을 즐기는 부유한 유럽 귀족들이었다. 그러니까, 도망친 곳은 결국 다시 사교계인 것이었다.

나는 그가 고른 가장 화려한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에 가만히 매달렸다. 짙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는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움직일 때마다 그 빛이 흘러내리는 듯 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서양인 급사가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우리를 안내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이었다. 옆 테이블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던 중년 신사가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이, 쿠제 군 아니야? 자네가 왜 여기 있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와 매일 검도를 함께한다던 요코하마 세관장의 조카나, 외무성 차관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더 최악이었다.

그의 손이 내 팔 위에서 살짝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도 찰나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토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지독히도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토 교수님. 이런 곳에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자네, 대학은 어쩌고?"

사토 교수의 시선이 그의 옆에 선 나에게 머물렀다. 교수의 눈에 의구심이 서리는 찰나, 그가 한 걸음 다가가 교수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압하는 듯한 묘한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교수님께는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결국 들켰군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교수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하지만 내 귀에는 선명히 박혔다.

"가신들 몰래 아내와 짧은 외출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답답해서 말이죠. 교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신다면…. 제 신혼 생활은 꽤나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교수의 와인 잔 옆에 내려놓았다. 명함 아래에는 꽤 두툼한 지폐 몇 장이 겹쳐 있었다.

"입막음용 선물이라 하기엔 약소하지만, 시애틀에 도착할 때까지 저희 부부를 못 본 척해주신다면…. 귀국하시는 길에 제가 독문학과 연구 기금을 조금 더 신경 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토 교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제자의 '치기 어린 사랑의 도피'로 치부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냉혹했고, 그가 제시한 '연구 기금'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다. 교수는 헛기침하며 명함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

"허허, 쿠제 군. 자네가 이렇게 로맨티시스트인 줄은 몰랐네. 잘 알겠네, 젊은 날의 방황은 누구나 있는 법이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즐거운 식사 되십시오."

그는 다시 내 팔을 감싸 쥐고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다. 사토 교수의 테이블에서 멀어지자마자, 그가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읊조렸다.

"보셨습니까? 인간의 품위는 돈과 약점으로 지탱되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 팔을 감싸 쥔 그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아찔한 흥분이었다.

우리는 식당 중앙의 원형 테이블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이미 한 쌍의 백인 부부가 앉아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Oh, what a stunning couple!(오, 정말 근사한 커플이군요!)"

금발을 화려하게 말아 올린 미국인 여성이 우리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시애틀에서 목재 사업을 한다는 앤더슨 씨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며 의자를 빼 내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카이토 타케오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미츠코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미츠코'라는 이름이 샹들리에 조명 아래로 부드럽게 흩어졌다. 나는 도쿄에서 배운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앤더슨 부인은 내 드레스의 실크 질감과 보석들을 훑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카이토 씨 부부는 시애틀에 어떤 일로 가시는 거죠? 사업? 아니면 유학인가요?"

앤더슨 씨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다. 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우리를 힐끔거리는 사토 교수의 시선이 뒤통수에 와 닿는 기분이었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그는 평온하게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둘 다 아닙니다. 그저 이 좁은 섬나라가 지겨워져서 말이죠. 아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 낭만적이군요! 일본의 젊은 귀족들은 보통 제국의 영광을 말하느라 바쁜데, 당신들은 아주 자유로워 보여요."

앤더슨 부인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웃음소리에 섞여 사토 교수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그는 여유롭게 스테이크를 썰어 내 접시와 바꿔주며, 오직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드십시오, 미츠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허영심 많은 아내여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 나는 은제 포크를 들어 고기를 입에 넣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입안 가득 맴도는 것은 도쿄의 안개처럼 눅눅한 긴장감뿐이었다. 하지만 거울처럼 매끈한 마호가니 벽면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누구보다 완벽하고 부유한 '카이토 부부' 그 자체였다.

22.

선상에서의 14일은 짐승 같았다.

어제 본 바다와 오늘 본 바다가 다르지 않았다. 시간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죽어버렸고, 나는 죽은 시간을 살려내기 위해 그의 몸에 매달렸다. 그만이 유일하게 매 순간 다른 자극을 주는 생명체였으니까.

낮에는 그와 정사를 나누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선상 파티를 즐겼다. 그 외에 달리 할 게 없었기에 이런저런 상황극을 하는 데 도가 텄다.

우리가 즐기는 상황극은 주로 창부였다. 우리가 가졌던 무게를 내려놓고 가장 천박하게 서로를 탐하기에 적합했기에. 나는 그의 가장 비천한 신도가 되었고, 그는 나의 가장 오만한 제물이 되었다. 혹은 서로의 신분을 난도질해 버린 뒤에 남은,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은 두 마리의 짐승.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천박한 단어로 난도질하며 쾌락을 탐했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감싸진 예쁜 포장지를 벗겨낸 뒤에 남은 날것의 알맹이를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가 나를 가장 비천한 존재로 부를 때 나는 비로소 공주의 굴레를 벗었고, 내가 그의 존재를 같은 단어로 비웃을 때 그는 가문의 무게를 잊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로, 나는 드레스만 걷어 올려 가터벨트를 풀지 않은 채로 정사를 이어 나갔다.

"요부가 따로 없네. 직업 삼아도 되겠어? 허리 흔드는 거 보니 타고난 것 같은데."

"흣, 당신이야말로. 유곽에서 배운 실력하고는. 도대체 얼마나 붙어먹었길래…."

"…유곽?"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짐승처럼 번들거리던 눈동자에 차가운 살의와 수치심이 동시에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릿하게 웃으며 내 목덜미를 더 깊게 눌러왔다.

"알면 더 잘해봐야지. 거긴 당신 같은 고귀한 공주님은 상상도 못 할 지옥이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배운 걸 오늘 밤 당신 몸에 다 새겨줄 테니. 아, 혹시 질투하는 건가?"

"……."

"지금은 너한테만 넣어주잖아. 누가 창녀 아니랄까 봐, 내 천박한 구석이 그렇게 좋아?"

소금기 섞인 바람이 선실 창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살갗이 맞닿은 곳은 타버릴 듯 뜨거웠다. 그가 내뱉는 모욕적인 언사들은 모순되게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파동이었다.

“좋냐고 묻잖아. 대답 안 해?”

찰싹.

"아, 응!"

그가 둔부를 내리치며 내 뒷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거친 마찰음과 함께 고개가 꺾여 올라갔다. 시야가 흔들리며 창밖의 단조로운 수평선이 비스듬히 일그러졌다. 머리카락을 움켜쥔 그의 손길은 가차 없었으나, 그 압박감이 오히려 흐릿하던 정신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좋아, 좋아 죽겠어. 당신의 그 천박한 물건이 없으면, 난 벌써 이 지겨운 바다에 뛰어들었을 거야."

나는 비명을 삼키며 웃었다. 나는 더 이상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던 공주가 아니었다. 땀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칼, 쾌락과 모욕이 뒤섞인 눈빛을 한, 그저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짐승에 불과했다.

“더, 더 세게 해줘.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내 이름 따위 기억도 안 나게 난도질해 줘.”

그는 내 뒷덜미를 거칠게 물어뜯으며,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이래서 네가 좋아. 밖에서는 고고한 척 가식 떨던 계집이, 내 밑에선 누구보다 천박하게 구니까. 넌 공주가 아니어도 내 밑에선 가장 비천하고 아름다워.”

그의 거친 움직임에 맞춰 선실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니, 실제로 배가 파도를 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항해가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차라리 이대로 육지에 닿지 못하고 심해로 가라앉기를 바랐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듯 엉겨 붙었다. 그것은 유희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몸부림이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발에 입이나 맞춰봐, 이 창놈아. 혹시 알아? 팁이라도 두둑이 챙겨줄지.”

나는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내 발치로 끌어내렸다. 방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그 압도적인 무게감이 순식간에 내 발 아래로 엎어졌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내 발등에 닿았다. 가문이니, 오만한 귀족이니 하는 수식어들은 이 선실 안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비죽 웃으며 내 발가락 사이를 거칠게 혀로 갈랐다.

"하, 공주님 대접이 아주 극진하시네. 팁은 몸으로 받지."

그가 내 발목을 억세게 움켜쥐며 올려다보았다. 눈동자에는 여전히 갈증과 살의에 가까운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굴욕을 즐기는 것 같은 표정으로 내 발바닥을 집요하게 핥아 올렸다.

다음날 테이블 밑으로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부부인 척 외국인들과 대화 중이었다.

지루한 사교의 일부에 그는,

"창녀 주제에 드레스가 과해." 라며 내 귓가에 속삭이고는 귓바퀴를 살짝 물고 떨어졌다.

그의 말에 가장 깊은 곳에서 울컥, 하고 물이 새어 나오는 게 느껴졌다.

"창놈 주제에 와인 맛은 아나 봐? 취향 한번 고급지네."

그러자 그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큭큭 댔다.

그 말은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였다. 그가 내 손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갑판에 나가 바람을 맞으며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갑판 위에서 난간을 붙잡고 몸을 섞었다.

바다 한가운데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난간을 붙잡은 내 손바닥에 닿는 철제의 감촉은 오히려 뜨거운 내 몸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뒤에서 밀어붙이는 그의 흉곽이 내 등과 맞닿을 때마다 육중한 엔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하으, 누가…. 누가 보면 어쩌려고…."

입으로는 겁에 질린 척 내뱉었지만, 나는 이미 드레스 자락을 더 높이 걷어 올린 채 바다를 향해 상체를 기울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괴수 같았다.

"보면 어때? 어차피 이 배 안의 사람들은 다 가식덩어리뿐인데. 부러우면 저들도 즐기라지."

그가 내 귓가를 잘게 씹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가터벨트의 금속 장식을 거칠게 튕겼다. 팅,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다.

"이 배가 가라앉았으면 좋겠어. 내일 아침이 영원히 오지 않게."

내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신음 섞인 진심을 내뱉자, 그는 내 목덜미를 휘어잡고 입을 맞춰왔다. 타액이 섞이고 숨이 뒤엉키는 사이로 소금기 섞인 바람이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조금 전까지 무도회장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며 '고귀한 부부'를 연기하던 남자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자비한 손길이었다.

"걱정 마. 내일이 와도 넌 내 밑에서 박히는 나만의 암컷일 뿐이니까."

그는 내 둔부를 강하게 쥐어짜며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난간을 붙잡은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철제 난간 너머의 심해는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절벽 끝에서 맛보는 쾌락에 온몸을 떨었다.

그의 거친 몰아붙임 끝에 폭풍 같은 정사가 잦아들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땀으로 젖은 우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여전히 나를 뒤에서 껴안은 채, 가쁜 숨을 내 목덜미에 흩뿌렸다. 방금까지 나를 창녀라 부르며 몰아세우던 그 무자비한 손길이, 이제는 부서질세라 내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안았다.

"하아... 미치겠네. 진짜."

그가 내 어깨에 이마를 묻으며 낮게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의 광기 대신, 숨길 수 없는 애정과 소유욕이 눅진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난간을 짚었던 손을 돌려 그의 뒷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왜?"

"하루 종일 당신과 할 생각밖에 없으니까. 사춘기 소년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피식 웃으며 동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가장 천박한 단어로 정의하며 쾌락의 심연으로 추락했다. 그것은 서로를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작'과 '공주'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오직 날것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차피 처음엔 서로 팔려 온 신세가 아니던가. 지금은 사랑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자작과 공주가 아니었다. 그저 시애틀이라는 낯선 땅에 버려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영토임을 증명하려는 두 마리의 짐승이었다.

23.

항구를 벗어난 차는 재팬타운의 번잡한 하층민 거리를 단숨에 가로질러, 시애틀의 부유층이 모여 사는 퀸 안 힐(Queen Anne Hill)의 높은 언덕으로 향했다. 길 양옆으로 거대한 빅토리아 양식의 저택들이 요새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은, 웅장한 돌기둥이 대문을 받치고 있는 3층짜리 석조 저택 앞이었다.

"이곳입니까?"

내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 차 문을 열어 나를 부축했다. 눈앞의 저택은 신대륙의 자본이 뿜어내는 오만하고도 눈부신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도쿄의 저택이 이끼 낀 나무와 종이 문으로 이루어진 '닫힌 세계'였다면, 거친 화강암을 깎아 세운 이 건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열린 제국'처럼 보였다.

"전 주인이 시애틀의 철도 거물이었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던 모양이라, 요코하마에서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열쇠 뭉치가 묵직하게 손바닥을 눌렀다. 육중한 오크 문을 열고 들어선 저택의 내부는 치치부마루의 일등석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그 위에는 구름 위를 노니는 천사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도쿄 저택의 낮은 천장 아래서 느꼈던 압박감은 온데간데없었다. 거실 바닥을 가득 채운 페르시아 카펫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를 집어삼켰고, 벽면은 금박을 입힌 정교한 웨인스코팅으로 장식되어 촛불 하나 없이도 은은한 광택을 내뿜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집채만 한 대리석 벽난로였다. 하얀 대리석 위에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이 역동적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저택의 고요함을 기분 좋게 깨우고 있었다.

그는 직접 내 코트를 받아 걸이에 걸었다. 하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는 그의 행동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곳이 오직 우리 둘만의 영토임을 선언하는 것 같아 아찔했다.

"이제 이 성 안에서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의 공주를 감시하던 눈길도, 제국이 강요하던 예법도 이 높은 담장을 넘지 못할 테니까요."

나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육중한 벨벳 커튼을 젖혔다. 도쿄의 격자창 너머로 보던 잘 정돈된 정원이 아니었다. 창밖으로는 언덕 아래로 시애틀의 전경과 멀리 엘리엇 만(Elliott Bay)의 검은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방금 우리가 내린 치치부마루가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발 아래 세상을 두었다는 감각이 전율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선형으로 굽어 올라가는 마호가니 계단 위로는 수십 개의 촛대가 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성단처럼 매달려 있었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방들에는 실크 벽지가 발려 있었고, 욕실마다 놓인 대리석 욕조는 도쿄의 좁다란 목욕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했다.

그가 뒤에서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안았다. 14일간의 항해 동안 짐승처럼 서로를 탐하던 그 거친 손길이, 이제는 이 거대한 영토의 주인다운 여유를 머금고 있었다.

"자금은 현지 은행 서너 곳에 분산해 두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애틀의 사교계가 '동양에서 온 수수께끼의 대부호'에 대해 떠들기 시작하겠죠. 우리는 그저 그들의 호기심을 우아하게 즐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내 귓가를 살짝 깨물며 낮게 읊조렸다.

"밤에는 다시 이름없는 계집이 되어야겠지만, 낮에는 이 도시에서 가장 고귀하고 부유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품에 몸을 기대며 웃었다. 도쿄에서의 '공주'는 의무였지만, 시애틀에서의 '부호의 아내'는 유쾌한 연극이 될 터였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각본을 쓰고 무대를 올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희극.

"물론이죠. 당신은 이 성에 갇힌 나를 기꺼이 범하러 오는…. 아주 돈 많은 침입자가 되어주셔야 할 거예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텅 빈 대저택의 천장에 부딪혀 공명했다. 밖에는 시애틀 특유의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벽난로 속의 장작은 벌써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다.

이곳은 기회의 땅이었고, 우리는 그 기회를 돈과 욕망으로 완벽하게 사들였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빛은 유독 찬란했고, 그 빛은 어느새 내일의 태양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5.

소란스러운 항구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 무료하기도 하고 입안이 깔깔해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첫 만남에 고약한 냄새가 밸까 봐. 대신 주머니 속 차가운 은제 케이스만 매만졌다. 어느새 손의 체온이 스며들어 온기를 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처지를 생각했다.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던져진 정략결혼. 감정은 배제된, 냉정한 연극 속 주인공.

내게, 이 결혼은 영문학 원서 사이에 끼워진 말린 꽃잎처럼 생경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다. 아니, 의미는 많지만,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었다. 저 멀리서 배가 들어오고 있었다.

마침내 배에서 내린 조선의 마지막 공주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제국의 신문들이 떠들어대던, 고고하고 오만한 왕녀의 기개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내 앞에 선 열아홉의 신부는 그저 앳된 얼굴을 한, 아직 여인이라기보단 어여쁜 소녀 쪽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내 시선을 끈 것은 그녀의 두 눈이었다. 얼마나 밤새 울며 괴로워했을까. 퉁퉁 부어오른 눈덩이와 발갛게 짓무른 눈가는 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참혹한 밤의 흔적이었다.

부어오른 피부 아래 나를 바라보는 투명하고 검은 눈동자는 칠월 칠석 밤의 별을 박은 듯 빛났다. 붓기 없는 생눈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꽃잎 같은 붉은 입술을 깨물었다. 순간, 심장 부근이 뻐근해졌다. 그늘진 기다란 속눈썹. 그러나 그 속눈썹은 이내 빠르게 부어오른 피부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훑었다. 이런 시선은 익숙한데 새삼 긴장이 되었다. 작고 가녀린 어깨에 지워진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여,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화려한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그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 처연한 몰골을 마주하는 순간, 동질감이 느껴졌다.

옛 왕국의 공주를 향한 경계심은 순식간에 휘발되었다. 대신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것은 기묘한 유대감, 혹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이었다.

반듯하게 각이 잡힌 질 좋은 옷을 입고 서 있지만, 우리 둘 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그녀의 부은 눈과 직선으로 굳은 나의 입매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위로조차 할 수 없다.

나의 얕은 다정함조차 그녀에겐 가시 돋친 가해(加害)가 될 것임을 알았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쿠제 타케오 입니다."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 듬직한 남자로 보이고 싶었는지.

에스코트하기 위해 기껏 손도 내밀었건만, 본 체도 안 하고 대놓고 무시하며 차에 올라타는 그녀의 모습이 신선했다. 처음 받아보는 냉대였다. 보란 듯이 갈 곳 잃은 손을 일부러 두 번 탈탈, 털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게 느껴졌다. 섬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 내내 이쪽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싸늘하기 짝이 없는 공주는 조금의 느슨할 틈도 없었다. 양 무릎을 조신하게 딱 붙이고 바른 자세로 앉아 창밖만 응시할 뿐이었다. 창문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무슨 생각을 저리 하는 걸까. 말이라도 걸어볼까 싶었지만, 완고하게 돌아간 뒤통수를 보니 대답도 안 해줄 것 같아 관두었다.

26.

타케오는 매끄러운 광택의 브라이들 레더로 제작된, 조금 낡은 브리프 케이스를 책상 위에 올렸다. 입학 시절 엄격하고 빳빳했던 형태의 가방은, 3년의 세월 동안 그의 손때가 묻어 모서리마다 부드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가죽 특유의 멋스러운 기품이 배어났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황동 잠금쇠를 눌러 묵직한 가죽 덮개를 열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최근 자신의 그림자와 닮아 부쩍 손이 자주 가던 예이츠의 시집 〈Selected Poems: Lyrical and Narrative〉를 꺼냈다.

그는 책의 등줄기에 단단히 고정된 짙은 청색 실크 가름끈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빳빳한 파란색 표지와 대비되어 서늘하게 빛나는 금박의 양장본 시집이 책상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묵직하게 펼쳐졌다. 가름끈의 끝단은 가늘게 올이 풀려 타케오의 손가락 끝을 간질였다. 그 끝이 멈춘 곳은, 그가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간 58페이지였다.

그는 청회색 잉크가 충전된 파카 듀오폴드 만년필을 쥐고, 두툼한 크림색 종이에 〈When You Are Old〉를 유려한 필기체로 필사하기 시작했다. 적막한 방 안은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기분 좋은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영어 시 구절 아래에는 그가 고심하여 고른 단어들로 정갈한 일본어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필사한 시를 다시 읽어 보았다. 오타는 없는지, 글씨는 정갈하게 잘 쓰였는지. 그는 깊은 그림자가 진 58페이지의 여백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곧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책장 한 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언젠가 긴자의 백화점에서 산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향'이라는 겔랑의 미츠코(Mitsouko) 향수를 꺼내 칙칙 뿌려, 종이에 은은하게 향이 배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복숭아의 달콤함 뒤에 이끼와 숲의 쌉싸름한 잔향이 그녀와 잘 어울렸다. 시가 적힌 종이를 곱게 접어 사랑스러운 연분홍색 봉투에 넣었다. 붉은색 실링 왁스를 녹여 안개꽃 압화와 함께 스탬프를 찍고, 봉투의 가장자리에는 평소 그가 아끼던 윈저 앤 뉴튼의 수채화 물감으로 그녀를 닮은 듯한 단아한 하얀 동백을 그려 넣었다.

윤경에게 줄 자신의 마음이었다.

방 안에는 미츠코 향수의 잔향과 짙은 잉크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들뜬 공기가 감돌았다.

윤경에게 보낼 시 필사를 마쳤지만, 타케오의 손끝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구하듯 만년필을 놓지 못했다. 그는 가방 안쪽, 눈에 띄지 않는 칸막이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언젠가 그가 산시로 연못 근처 나무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브리프 케이스를 받침대 삼아 꾹꾹 눌러썼던 글이었다. 가방 가죽의 서늘한 감촉과 연못의 물비린내가 문장 사이사이 배어 있는 듯했다.

'이때가 아마 그녀와 처음 잤을 때였나….'

이것은 보내지 못할, 아니 보내지 않을 그만의 독백이었다. 그는 잉크가 마르지 않은 예이츠의 시 옆에 그 종이를 내려놓고, 그날의 서늘했던 연못가 공기를 떠올리며 글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감히 말하지 않으려 하네.

대학의 도서관에서 펼쳐 든 셰익스피어의 문장 속 이국의 활자가 심장 한구석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어, 억눌러온 영혼의 파편을 무참히 헤집어 놓네.

"There is nothing either good or bad, but thinking makes it so.(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좋고 나쁨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사유에 있을 뿐이라는 그 문장은 내가 애써 외면해 온 내면의 균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네.

싸라기눈이 내리는 벌판, 이름 모를 군인들이 전쟁의 심연으로 끌려가는 광경을 떠올려 보네. 가난의 허기가 뼈를 깎고, 밥 한 끼의 온기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물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지네.

그 모진 풍파 속에서, 나를 감싸는 따뜻한 집과 안락한 잠자리를 누리는 것이 어찌 황홀한 축복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 은혜의 무게를 나는 피부로 느끼네.

서양의 문장을 정밀하게 해부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으나, 내 혈관 속에는 여전히 동양의 언어가 흐르네.

전생과 환생, 인연과 운명. 이 얼마나 요염하고도 잔인한 단어들인가. 우리의 만남이 국가의 명령에 의한 강요인지, 혹은 하늘이 정한 숙명인지 나는 알지 못하네. 다만 나의 운명이 그대라고 믿는다면, 이 비극적인 결합조차도 묘한 빛을 띠며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네.

말이란 참으로 기묘한 마력을 지녔네. 비극의 늪에 빠진 상황일지라도, 단 몇 마디의 수사로 그것을 눈부시게 극적인 무대로 바꿀 수 있으니. 나는 그 언어의 힘 앞에서 오래도록 머뭇거리는 나약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네.

어떤 문장을 골라야 그대에게 닿을 수 있을까. 어떤 음성으로 속삭여야 그대의 가슴을 찢는 괴로움이 새벽에 뜬 별처럼 옅어질 수 있을까.

청춘의 남녀가 한 지붕 아래 숨결을 나눈다면, 어찌 마음의 파동이 일지 않겠는가. 수많은 국경과 거리의 장벽을 넘어 우리가 이토록 기이하게 엮였다면, 그것은 국가의 농간이기 전에 우주의 장난 같은 운명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리 믿기로 했네.

사람들은 사랑의 종착역을 결혼이라 부르지만, 나와 그대는 도리어 그 끝에서부터 첫 발걸음을 떼네. 결말에서 시작하는 이 기묘한 여정이라니, 나는 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스물셋. 누군가에게는 성숙한 어른의 나이요, 누군가에게는 미숙하고 아직 삶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애송이의 나이일 터.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이라는 사다리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오르는 것, 그리고 그 좁은 칸 위에서 함께 떨고 있는 그대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차가운 분석 끝에 내가 도달한, 가장 뜨거운 진실은 바로 그것이네.

대학에서 배우는 독문학은 분석의 연속이지만, 내가 그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네.

나는 때로 스토아학파처럼 이 모든 사태를 필연의 질서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또 때로는 데카당스의 시인들처럼 이 퇴락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대라는 아름다움 앞에 서서히 무너지네.]

그는 연분홍색 봉투에 넣은 정갈한 시 한 편과 차마 넣지 못한 채 손에 든 이 거친 독백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그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가 홀로 감내해야 할 심연이었다.

타케오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 비밀스러운 수기를 다시 반으로 접어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황동 잠금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마치 다시는 열리지 않을 마음의 빗장을 거는 소리처럼 적막한 방 안을 울렸다.

27.

열일곱의 생일날. 숙부님께서 선물하겠다며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요시와라의 한 유곽이었다. 인위적인 분 냄새와 독한 술, 가식적인 웃음으로 가득 찬 그곳은 돈 냄새만을 맡은 여인들과 성욕으로 번들번들한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술과 분내가 섞인 역한 냄새에 속이 뒤틀렸으나, 내 손목을 잡은 숙부의 손길은 그보다 더 축축하고 끈적였다.

숙부님이 건넨 잔 속의 술은 달콤했으나, 목을 타고 넘어간 순간부터 불길이 되어 전신으로 번졌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졌고, 단단했던 바닥이 진흙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진정한 남자가 될 시간이다."

"어머, 잘생긴 도련님이네!"

유곽 복도에 걸린 가스등이 치직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고, 그 빛에 비친 숙부의 실크햇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벽면을 타고 나를 덮쳐왔다.

멀어지는 숙부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누군가 내 어깨를 감싸안았다. 차가운 비단 옷자락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역설적으로 몸은 그 서늘함을 갈구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부하고 싶어 입술을 깨물었으나 신음만이 새어 나왔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풀려버린 눈동자 너머로 화려한 천장의 문양들과 이름 모를 여자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섞였다.

그날, 나의 소년기는 요시와라의 눅눅한 침상 위에서 비참하게 짓밟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몸에서는 더 이상 소년의 풋풋하고 마른 체취가 나지 않았다. 비릿한 정액 냄새와 이름 모를 여인의 진한 분내가 살갗 깊숙이 박혀, 아무리 씻어내도 가시지 않는 낙인처럼 나를 괴롭혔다.

그날 이후,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발작이 되었다. 다정한 위로도, 가벼운 어깨동무도 내게는 요시와라의 그 축축한 침상 위로 나를 밀어 넣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숙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위액이 역류했고, 화려한 비단 옷자락만 봐도 그날 밤 나를 짓눌렀던 차가운 감촉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다.

나는 더 이상 열일곱 생일 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의 영혼은 그 유곽의 구석진 방, 흩어진 술병들과 널브러진 옷가지 사이에 버려진 채 썩어가고 있었다.

여자들의 분내는 역겹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내 눈앞의 열아홉 소녀에게서는 인위적인 분내보다, 풋풋하고 달콤한 살구꽃 같은 향이 났다.

'당신의 처음도 앞으로는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정한 음성이 닿는 순간, 귓가를 울리던 유곽의 천박하고 습한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나를 짓누르던 진득한 술 냄새 또한 거짓말처럼 증발했다.

수줍은 봄날처럼 우아하고 섬세한 그녀의 향기에 홀린 듯, 나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갈구하며 떨리는 입술을 겹쳤다. 비로소 나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28.

도쿄제국대학의 독일어 강독 수업에서 만난 김성재는 타케오가 아는 이들 중 가장 정갈하고도 침울한 사내였다. 주로 '키무 군(金君)' 이라 불렸다. 그는 물리학도답게 하이젠베르크의 원서를 막힘없이 해석해 낼 정도로 총명했으나, 틈만 나면 독어 원서로 된 의학 서적을 뒤적였다.

차라리 그가 강의를 듣는 여느 학생들처럼 칸트나 마르크스에 매달려 시대의 고뇌를 형이상학적으로 떠들거나, 헤세와 괴테를 들먹이며 탐미적인 방황을 즐기는 청년이었다면— 타케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성재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학생으로 보였을 텐데.

그러나 "조국에 돌아가면 물리 법칙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더 절실할 겁니다."라며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말은, 안온한 학문의 세계로 도피하려던 타케오의 비겁한 평화를 뒤흔들며 늘 무거운 부채감을 안겨주곤 했다.

타케오는 그에게 레코드 가게를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성재는 뜬금없는 타케오의 제안에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내색하지 않고 책을 덮었다. 두 사람은 붉은 아카몬(赤門)을 지나 신주쿠의 소란스러운 거리로 향했다.

전차 안에서 성재의 정갈한 옆모습을 훔쳐보며, 타케오는 문득 형언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은 제국의 귀족으로서 찬란한 영광과 부를 물려받았고, 남들이 말하는 소위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성재와 윤경,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견고한 벽 앞에서는 그 화려한 배경들이 무용지물로 느껴졌다.

윤경의 눈물 속에 담긴 망국의 설움과 그들이 공유하는 한 맺힌 노랫가락을 타케오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재는 타케오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태생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와 같은 언어로 꿈을 꾸고, 그녀의 역사와 함께 분노할 수 있는 자격 말이다.

그 순간 타케오는 깨달았다. 자신이 성재에게 느끼는 이 부채감의 정체는, 어쩌면 저 사내처럼 그녀와 같은 지옥을 걷고 싶다는 기묘한 부러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국의 안온함이 독처럼 느껴질 만큼, 그는 두 사람의 결핍된 동질감이 탐이 났다.

신주쿠의 번잡한 인파 속에서도 두 사람은 유독 눈에 띄었다. 목까지 꽉 채운 단단한 세워진 깃과 황금빛 단추가 박힌 도쿄 제국대학의 검은 제복. 그리고 머리 위에는 대학의 휘장이 선명한 각진

제모가 얹혀 있었다. 제국의 정점에 선 학도임을 증명하는 그 의복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메울 수 없는 신분적 차이를 가려주는 유일한 가림막이기도 했다.

성재는 제복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신주쿠역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타케오를 이끌었다.

"타케오 군, 이 제복을 입고 금지된 상품을 취급하는 뒷골목 음반 점을 드나드는 건 징계 사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귀족 나리께선 위험한 일이죠."

"상관없어. 어제 그 노래를 들은 이후로 가슴 속이 자꾸만 일렁거려서 말이야."

성재는 대답 대신 길을 안내했다. 무사시노관의 화려한 영화 포스터를 지나, 습기 찬 골목 안쪽의 '무사시노 당'으로 성재를 따라 들어갔다. 거대한 영화관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 작은 점포는, 제국의 눈을 피해 망국의 소리를 파는 은밀한 성소 같았다.

좁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켜켜이 쌓인 판들이 뿜어내는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혹시 성벽이 무너지고 이끼가 낀다는 노래를 아나?" 타케오가 물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성재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건, 어디서….아니, 부인께서 그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재가 주인장에게 다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건네자, 가게 주인은 눈치를 살피며 구석진 매대 밑에서 먼지 쌓인 음반 하나를 꺼내 왔다. 빅타레코드에서 발매된 이애리수의 「황성옛터」였다.

타케오는 그 음반을 집어 들었다. 성재가 옆에서 씁쓸하게 읊조렸다.

"이게 듣고 싶었습니까? 이건 우리에겐 노래가 아니라 통곡입니다, 타케오 군."

"…읽어줄 수 있겠나? 제목이라도."

성재는 음반 재킷에 적힌 한자들을 짚었다.

"거칠 황(荒), 성 성(城). 황량한 성의 옛터라는 뜻입니다."

"……."

성재는 길고 단단한 손가락으로 앨범 재킷에 적힌 가사를 하나씩 짚어 내려갔다. 물리학의 복잡한 공식을 풀 때처럼 담담하기만 하던 그의 음성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가사 첫 줄은 이렇지요.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조국에 돌아가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싶다던 물리학도. 그의 검은 제복 소매가 타케오의 흰 셔츠 깃만큼이나 빳빳했지만, 그 안에서 뛰는 심장은 전혀 다른 박자로 울고 있었다.

성재의 목소리 속에는 타케오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절박한 연민이 섞여 있는 듯했다.

"부인께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그녀는 아마 이 '월색' 아래서 자기 나라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타케오는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성재가 짚어주는 가사 한 줄 한 줄이 타케오에게는 넥타이보다 더 세게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마치 윤경의 찢긴 마음 한 조각을 비로소 손에 넣은 것 같은 기묘한 기분으로 음반을 품에 안았다.

집으로 돌아온 타케오는 책상 위에 성재가 일어로 휘갈겨 써준 메모를 펼쳤다.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아 가엾다 이 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

끝이 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타케오는 서재의 문을 꼭 닫은 채,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나팔꽃 모양의 유성기 앞에 섰다. 그는 가방 안에서 소중히 감싸온 갈색 종이봉투를 꺼냈다. 거친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다.

그는 유성기 옆면에 달린 핸들을 잡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태엽이 감기며 기계 내부에서 낮게 웅웅거리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타케오는 숨을 죽이고, 묵직한 질감의 검은 레코드판을 회전판 위에 올렸다.

타케오는 톤암(Tone arm)을 들어 올려 날카로운 강철 바늘을 조심스럽게 판의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치익, 지직—'

레코드의 홈을 긁는 날카로운 잡음이 정적을 깼다. 그것은 무너지는 성벽의 모래 소리 같기도 했고, 윤경이 억눌러 참던 마른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이윽고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가냘프면서도 낭랑한, 앳된 여자의 목소리가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윤경에게 건넸던 '우울함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위로가 얼마나 잔인한 무지였는지. 이 노래 속에서 그녀는 잘 있노라 작별 인사를 고할 '옛터'조차 잃어버린 채 정처 없이 흐르는 물결이었으니.

타케오는 유성기 앞에 앉아, 바늘이 레코드의 마지막 홈을 돌며 내는 공허한 마찰음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울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지독하게 불쾌했다. "…."긴자에서 제일가는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이라면 다 아는 「도쿄 행진곡」을 흥얼거리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던 자신이, 성재의 번역문 앞에서는 한없이 얄팍해 보였다. 제국의 대학생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교양이 조선의 이름 모를 가수와 망국의 공주가 가진 그 깊고 눅눅한 정서에 밀린 것 같아 묘하게 배가 아팠다. 자존심이 상했다.

'결국 내 호의가 저쪽에서는 리큐르 냄새나 풍기는 가벼운 장난이었다는 건가.'

그는 톤암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서재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타케오는 성재가 써준 메모를 거칠게 접어 레코드 재킷 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해해 보려 애를 쓸수록 속은 오히려 지독하게 꼬여만 갔다.

미안함보다는 당혹감이, 연민보다는 그녀의 그 서늘한 기세에 눌린 듯한 패배감이 그를 짓눌렀다. 무엇보다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건, 성재를 향한 이름 모를 질투심이었다.

성재는 타케오가 빳빳한 셔츠 깃을 세우고 긴자의 유행가를 흥얼거릴 때, 이미 그 정갈하고도 침울한 얼굴로 윤경의 무너진 성벽을 함께 걷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제국의 귀족이라는 화려한 성벽 안에서 결코 알 수 없을 저들의 지옥. 그 지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재는 윤경의 곁에 설 자격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금지된 음반을 구해와도, 자신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슬픔의 혈연'이 타케오를 미치게 했다.

"위로는 같은 처지인 사람끼리나 나누는 것이라고……"

그는 거칠게 제복 셔츠를 벗었다. 편한 유카타로 갈아 입었는데도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기만 했다. 불편한 밤이었다.

29.

昭和五年四月二十六日 (쇼와 5년 4월 26일)

옆 방에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책을 소리 내 읽는 것 같기도 하면서, 어딘가 끊겨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끝내 해독할 수 없었다. 그저 망연한 독백이었을까. 이윽고 사위가 정적에 잠기자, 나는 그녀가 꿈의 안식으로 물러났겠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깊은 밤, 복도 끝에서 쥐새끼의 발소리보다도 은밀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문을 열자, 그곳엔 그녀가 망령처럼 서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형형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겉옷 주머니 속의 무언가를 마치 부서지기 쉬운 각설탕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움켜쥔 형국이었다.

“바깥의 소음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녀의 음성은 호수처럼 잔잔했으나, 그 수면 아래의 눈동자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으로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의 얼음장 같은 손을 맞잡았다. 구름을 가르고 쏟아진 창백한 달빛 아래, 희게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와 붉은 입술, 허공으로 흩날리는 긴 검은 머리칼은 마치 전설 속의 아름다운 요괴, 설녀(雪女)가 현신한 듯 기이하고도 매혹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바람에 실린 나뭇가지가 그녀의 방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곁에 바싹 붙어 낮게 읊조렸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해요. 오늘만 해도 수차례 그림자가 목을 조여 왔으니, 당신도 부디 경계하세요. 8월 8일에….”

칠월 칠석도 아닌, 그렇다고 어떤 절기도 아닌 그 '8월 8일'이라는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가늠할 길 없었다. 다만 내 팔에 매달린 그녀의 체온에서 절박한 의존의 기운을 느꼈을 뿐이다. 본능적으로 그녀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나의 심장은 고동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돌연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웃음을 지었다. 딱히 가소로운 화제가 없었음에도,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목격한 자의 그것처럼 서늘했다.

평소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거리를 두던 그녀가 돌연 관능적인 유혹을 던져왔다. 은근히 내 다리를 훑는 발짓이나, 찰나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흘리는 요염한 미소들. 나는 그 기이한 도취에

눈이 멀어, 그녀가 쳐둔 아득한 낙망(落網) 속으로 기꺼이 침잠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탐욕스러운 밤의 잔치를 벌였다.

가수면 상태에서 기묘한 살기를 느꼈다.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내 몸 위로 드리운 그녀의 그림자가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만을 탐닉했다. 이윽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시퍼런 칼날을 거머쥔 채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진 은장도(銀粧刀)는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빛을 발했다. 순은으로 매끄럽게 세공된 칼집에는 정교한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막 피어난 꽃망울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칼자루 끝에 매달린 비단 노리개는 짙은 자줏빛으로 늘어져, 차가운 금속의 질감에 부드러운 화사함을 더했다.

한 번은 그 칼의 용도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식이라기엔 지나치게 날카롭고, 무기라기엔 너무나 가냘픈 그 물건의 정체가 궁금했기에. 그때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갈무리된 칼날을 쓸어내렸다.

"조선에서 이것은 그저 장신구가 아니랍니다. 자기 몸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베어내지 않기 위한 약속이지요."

그 말은 서늘한 칼날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혔다. 타인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절개와 자신의 고결함을 수호하기 위해 품는 작은 연꽃 같은 칼.

그 칼끝은 분명 나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당시 그것이 현실인지, 혹은 그녀가 나를 열렬히 사랑해 주었던 밤의 꿈이 연장된 환상인지 분간치 못했다. 아니, 분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터다.

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자신도 경악할 만큼 담담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신탁(神託)을 내뱉더니, 이내 아이처럼 내 품에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그 처연한 모습에 나는 오직 그녀를 품어 안고 싶다는 열망만을 느꼈다.

서럽게 오열하는 그녀의 등을 달래며 나는 비로소 자각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같은 세계의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영혼은 이미 내가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광기의 심연으로 망명해 버렸으며, 나는 그 심연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30.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은근하면서도 노골적인 관심을 받고 자랐다. 아주 가끔은 내 껍데기가 싫어질 정도로 말이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퉤, 뱉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또래 여자아이들이 서로 견제가 일더니, 끝내 모든 화살은 내게로 향했다.

내 끔찍했던 첫 경험을 쟁취하려 유곽의 여자들이 다투던 날, 나는 숙부의 손에 미약을 먹고 던져진 그곳에서, 성을 파는 남창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펍이나 카페의 모던걸들은 내 허벅지를 은근슬쩍 쓸거나 발을 삐끗한 척 안기는 둥 내게 몸을 부딪쳐 왔으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때도 있었으나, 질투가 섞인 그것은 나의 흠을 잡기 위한 날카로운 눈초리가 되어 피곤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은 늘 나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이자 나를 결박하는 족쇄이기도 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그것을 묵묵하게 견뎠지만, 때로는 가시가 되어 내 목을 찌르는 듯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왜 나에게 단 한 번도 잘생겼다거나, 내 얼굴이 마음에 든다거나 하는 입에 발린 말조차도 하지 않는 걸까. 혹시 내가 못생겼나?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던 것인가?

어느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공주님, 저 못생겼습니까? 하긴, 당신의 그 정교한 수학 공식에 비하면 내 이목구비는 불규칙하기 짝이 없겠지."

"…무슨 말이 듣고 싶으신 거죠?"

"왜 당신은 내게 그 흔한 외모 칭찬 한 번 안 합니까? 초면에 모르는 사람도 입에 발린 말을 잘만 하던데. 조선에서는 먹히는 얼굴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삐딱한 물음에 그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칭찬도 때로는 구속이 됩니다. 당신은 늘 시선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니까요. 칭찬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외적으로 평가받으며 살아왔다는 걸 잘 아니까."

"……."

"내 곁에서만큼은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외모를 말하는 순간 당신은 내 앞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나에게서만큼은 숨통이 트이길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답이 되었습니까?"

그녀의 한마디에 지금껏 나를 옭아매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한 줌의 모래가 되어 그녀의 말 사이로 사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자잘한 모래가 나를 부드럽게 감싸더니, 이내 보석 가루처럼 반짝이다가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 나는 그런 당신의 다정함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을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의하던 화려한 수식어들은 이제 회색으로 퇴색되어 간다. 나는 그 따뜻한 말에 새로운 색깔로 칠해지며 그녀의 세계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비로소, 나는 나를 옥죄던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실종되었다.

너의 몽롱한 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

너의 물기 어린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되어, 숨결 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싶어.

31.

햇살이 좋은 어느 아침이었다.

진한 향수 냄새를 잔뜩 묻히고 나타난 윤경의 모습에 한 번 놀라고, 그녀의 얼굴에 또 한 번 놀랐다.

늘 아름다웠지만, 화장을 한 모습은 더욱 화사하게 아름다웠다.

그런데 집에서 왜 화장하지. 나는 그녀의 깊어진 눈매와 탐스러운 입술을 바라보며 물었다.

“화장했어?”

“…모던 걸이라면, 당연히.”

소녀가, 여자가 되었다. 나는 속에서 간질거리는 느낌을 참으며 말했다.

“부인께서는 맨얼굴이 더 아름답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닙니까?”

나는 칭찬 한 마디 제대로 못 하고 시비나 걸고 있다.

“진하다니요! 요즘 거리의 여인들은 이보다 더 선명한 색을 칠하곤 합니다."

“당신의 체취가 더 좋습니다, 전. 진한 향수 냄새 보다.”

진심이었다. 독한 향수 냄새보다는 풋풋하고 달큼한 체취가 더 좋았다. 그런데…

“향수 안 뿌렸어요!”

뻔히 보이는 거짓을 말하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머릿속에서 이성을 붙들고 있던 팽팽한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랫배가 딱딱하게 굳어지며 온몸의 피가 한곳으로 쏠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의 가녀린 팔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고, 저 말간 얼굴이 엉망으로 흐트러질 때까지 삼켜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이성을 앞질렀다. 나는 그녀의 팔목을 잡아 내 품에 끌어당겼다. 그 예쁜 입술에 묻은 립스틱을 나도 모르는 새에 지워냈다.

“무슨 짓이에요!”

립스틱은 잘 지워지지 않더군요, 라는 핑계를 대며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32.

어느덧 겨울.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다리를 올린 채 자는 잠버릇이 들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타케오.”

평소에 내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던 그녀이지만, 그녀에게 이름이 불릴 때면 서늘한 예감이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왜요, 윤경?”

“우리 방 따로 써요.”

“따로 쓰고 있잖습니까.”

“따로 자자고요.”

“무슨 일, 있습니까.”

“당신의 잠버릇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맨날 나를 *죽부인*처럼 끌어안고 자니까, 자꾸 악몽을 꾼다고요.”

죽부인? 죽부인이 뭐지? 조선말인가?

“내가 끌어안고 자서, 악몽을 꾼다고요? 그 반대가 아니라? 나 없으면 악몽 꿀 텐데?”

“그럴 리가요.”

“그거 압니까. 당신 잘 때 악몽 꿔서 그때마다 내가 깨워주는 거.”

“…예?”

“무슨 그런 고통스러운 꿈을 매일 같이 꾸는 건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몸에 다리를 올리는 건….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따로 자는 건 안 됩니다.”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다.

“그거 압니까. 당신에게서는 살구꽃 향이 나. 그 향이 나를 미치게 해.”

“…당신한테서 가끔 여자 향수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아 그거. 나의 미츠코."

"미츠코...?"

그녀가 울먹이며 나를 노려본다.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는데 귀여워서 멈출 수가 없다.

"당신이 나와 늘 함께하지 못하니까. 당신을 닮은 향수를 병에 소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내가 무슨 바보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질 것만 같은데, 촉촉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건지, 아래가 뻐근했다.

"저번에 준 예이츠 시. 거기서 나는 냄새와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맡아봤다 했더니…."

"당신과 닮았습니다, 그 향이. 당신도 틈틈이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옆으로 넘겨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손이 닿기도 전에 윤경이 젖은 눈을 깜빡이며 내 손을 쳐냈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그녀가 차갑게 덧붙였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그 향수병을 안고 거실에서 자요. 나 같은 향이라면서요? 그럼, 나랑 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눈썹이 움찔거렸다. 제가 판 함정에 제 발을 담근 꼴이었다.

나는 쳐내진 손을 거두는 대신, 그대로 뻗어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감싸 쥐었다. 갑작스러운 인력에 윤경의 몸이 내 가슴팍으로 훅 쏠렸다.

"거실이라니, 윤경. 당신은 참 잔인한 제안을 하는군요."

내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가깝게 대고 속삭였다. 차가운 거절을 내뱉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향수병은 향기만 날 뿐, 당신처럼 따뜻하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리를 올렸을 때 이렇게 움찔거리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놔요, 타케오. 지금은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요."

윤경이 내 가슴을 밀어냈지만, 나는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아올려 아예 내 무릎 위에 앉혔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나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젖은 눈동자 속에 당혹감과 열기가 뒤섞여 일렁였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나는 그녀의 목덜미, 살구꽃 향이 가장 진하게 배어 나오는 곳에 코끝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미츠코의 무거운 잔향과 그녀의 보드라운 살결 냄새가 뒤섞여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이 향기는 병 속에 가둘 수 있지만, 당신의 맥박이 내 손바닥에 닿는 이 느낌은 가둘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내가 매일 밤 당신을 끌어안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야 겨우 잠이 오니까."

내 손이 그녀의 허리 곡선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윤경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나는 낮게 읊조렸다.

"오늘 밤도 악몽을 꾸게 해줄까요, 아니면 꿈조차 꾸지 못할 만큼 나에게 집중하게 해줄까요? 선택하십시오. 거실로 나가는 건 내 선택지에 없으니."

나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내 중심을 은근슬쩍 그녀의 엉덩이에 비볐다.

"…당신은 왜 맨날 서 있는 거야?"

"당신이 나를 그렇게 세우고 있잖아. 자각도 없이."

내 뻔뻔한 대답에 윤경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그녀는 내 어깨를 꽉 쥐었지만, 그것이 밀어내려는 몸짓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몸을 지탱하려는 의지인지 본인조차 모르는 듯했다.

"변태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비켜요, 좀."

"비키면, 정말 저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나를 내쫓을 겁니까?"

나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느릿하게 쓸어올렸다. 얇은 잠옷 너머로 전해지는 살결의 온도가 아까보다 훨씬 뜨거웠다. 그녀의 숨결이 내 뺨을 간지럽히며 흩어졌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책임도 안 지고 잠들겠다니. 그게 더 악몽 같은 일 아닙니까."

나는 그녀를 안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자기 몸이 붕 뜨자 윤경이 내 목을 본능적으로 감싸안았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침대 쪽으로 발을 옮겼다.

"잠버릇은 고치도록 노력해 보죠. 대신, 잠들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침대 시트 위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눕혔다. 그 위로 내 몸을 겹쳐 누르자 윤경의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내 손은 이미 그녀의 잠옷 단추 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악몽 꿀 시간도 없을 테니까. 나만 봐요, 윤경."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살구꽃 향이 진동하는 그 붉은 입술을 거칠게 집어삼켰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그녀의 짧은 숨이 내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거칠게 몰아붙이는 나를 받아내느라 윤경의 손이 내 등줄기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얇은 잠옷 단추들이 하나둘 힘없이 풀려나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살구꽃 향보다 훨씬 더 진하고 농밀한 체온으로 채워졌다.

"하아, 타케오…. 잠깐만…."

그녀가 고개를 돌려 가쁜 숨을 내뱉었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턱끝을 부드럽게 잡아 다시 나를 향하게 한 뒤,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잠깐 같은 건 없습니다. 아까 당신이 나를 거실로 쫓아내려 했을 때, 내 인내심도 같이 쫓겨났으니까."

나는 그녀의 쇄골 위로 입술을 내리며, 아까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압박했다. 단단하게 맞닿은 신체의 굴곡 사이로 심장 박동이 서로에게 전이되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빠른 고동 소리가 정적을 대신했다.

윤경은 결국 체념한 듯, 혹은 기다렸다는 듯 내 목을 더 깊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나를 담아낼 때마다, 나는 그녀가 말했던 '악몽'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할 것 같았다. 나라는 지독한 꿈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

"이제 따로 자자는 말, 다신 안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대답 대신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슴팍에 남은 미츠코의 잔향을 지워내듯 깊은 흔적을 새겼다. 겨울밤은 길었고, 나를 미치게 하는 이 향기를 온전히 소유하기엔 아직 시간이 충분했다.

33.

나는 품에 안긴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 해가 다르게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생동하는 곡선을 그리며 성숙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곡선 위에 시선을 얹을 때마다, 내가 감히 닿아도 되는 존재인지 스스로 묻게 된다. 그럼에도 결국 손을 뻗고 마는 이 충동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잘록한 허리 능선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렸다.

손바닥에 착 감겨오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에 머릿속이 하얗게 점멸했다. 당장이라도 그녀 안에 지워지지 않을 나의 낙인을 깊게 새겨넣고 싶었다. 내 것이라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라고 선언하고 싶은 비틀린 소유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내 아귀에 힘이 들어갈수록, 그녀의 가느다란 숨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작은 떨림 하나에 나는 다시 무력해졌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그녀라는 존재가 내 손안에서 한 줌의 가루처럼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쥐면 터질 듯하고, 놓으면 날아갈 듯한 이 지독한 거리감. 나는 그녀를 집어삼키고 싶은 욕망과, 그녀를 온전히 보존하고 싶은 숭배 사이에서 갈가리 찢기고 있었다.

손바닥 가득 차오르다 못해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오는 살덩이에 나는 짓눌린 짐승처럼 낮은 신음을 삼켰다. 예민하게 솟아오른 옅은 색의 그 정점을 으깨버릴 듯 움켜쥐려다, 이내 겁에 질린 듯 조심스럽게 끝을 살살 어루만졌다.

“흣..."

잠결에 터져 나온 그녀의 신음이 정적을 거칠게 찢었다.

나의 거친 욕망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우면서도, 정작 아래는 그녀를 향한 갈증으로 터질 듯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허벅지 사이에 그것을 은근슬쩍 비비며,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뜨거운 숨을 뱉어냈다.

그녀의 가녀린 발목이 파들거리며 허공을 긁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를 다치게 할지 두려우면서도, 이 손을 놓지 못하리라는 것을.

"일어났습니까."

"으음…."

잠에 취한 척 고개를 돌리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읊조렸다. 억눌린 호흡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열기가 내 피부를 화상 입히듯 뜨겁게 달궜다.

"자는 척하지 마시죠. 내 손바닥에 닿는 당신 몸이 이미 이렇게 달아올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그녀의 젖어든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파고들며 말했다. 손가락 끝에 닿는, 투명하고 미끈한 물이 내 인내심을 갉아먹었다.

"…누가 자꾸, 훗, 만져대서... 으응!"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라니. 그토록 고고하게 굴더니, 내 밑에서는 그저 박아달라고 구걸하는 암캐나 다름없군. 자, 말해봐요. 여기가 왜 이렇게 벌름거리는지."

"…알았으면, 읏, 빨리…"

그녀는 쾌락에 젖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무엇을? 당신의 이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내 좆을 말하는 건가?"

나는 잔뜩 부풀어 오른 욕망을 그녀의 젖은 입구에 거칠게 문질렀다. 미끈한 액체가 질척이며 비벼지는 감촉이 황홀했다. 빨리 들어가고 싶어 애가 탔지만, 그녀가 나를 원한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입구만을 맴돌자 간지러운 듯 그녀가 참지 못하고 허리를 들썩였다. 애가 타는 그녀의 밭은 숨소리를 즐겼다.

"더 애원해 봐요. 내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여기가 왜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똑바로 설명하면…. 그때 고려해 보죠."

"흐, 타케오…"

"씹…"

내 이름을 부르며 박아달라고 허리를 흔드는 그녀는 지나치게 색정적이었다.

이내 한 번에 끝까지 밀어 넣자, 뜨겁고 좁은 내벽이 성기를 꽉 움켜쥐었다. 그 감각이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았다. 마치 나라는 존재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하겠다는 듯한 지독한 환대였다.

짝-!

달아오른 열기 속에서 탱탱하게 솟아오른 엉덩이를 내리치자, 방 안에는 가학적인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짧은 비명이 흩어졌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아찔한 탄력에 내 이성은 속절없이 마비되어 갔다. 하얀 피부 위로 붉은 단풍잎 같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매질하듯 가해지는 자극에 그녀는 수치와 쾌락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내벽의 뜨거운 열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성기를 조여왔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향한 지독한 갈망으로 느껴졌다. 나는 기꺼이 나의 세계 전체를 도려내어 그 안으로 밀어 넣어 줄 수 있었다.

"아응! 하악, 흐으..."

“하아. 박히면서 맞는 게 취향인 줄은 몰랐는데. 내가 내리칠 때마다 당신 구멍이 내 걸 잡아먹을 듯이 조여대는 거 압니까?”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밀어 넣을 때마다 차오르는 쾌락보다 더 지독한 건, 그녀에게 완전히 먹혀버린 것 같은 이 황홀경이었다.

“흐읏, 그런 거, 아니야….”

짝-!

“아, 읏!”

“아니긴. 말해 봐. 내 게 안을 쑤셔대니까 좋아 죽겠어?”

“흐윽, 모…몰라.”

“당신의 그 천박하게 젖은 곳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만코(おまんこ)’라고 합니다. 자, 따라 해봐요. 내 보지가 당신 때문에 젖어서 질척질척하다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럼, 영어로 합시다. 영국에서는 이 단어들을 담은 소설이 금서라더군요.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책 말입니다. 책 속에서는 이 부위를 'Cunt'라고 부릅니다. 자, 말해봐요. Take my cunt."

"진짜….대체 뭘 읽는 거야."

내가 빠져나간 뒤에도 그녀의 그곳은 나를 기억하듯 여전히 가늘게 실룩거렸다. 하얀 흔적을 울컥거리며 내뱉는, 빠끔거리는 붉은 틈. 내가 남긴 흔적이 역류하며 흘러내리는 게 심히 만족스러웠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가 끝내 뱉어낸 내 흔적을 다시 그 뜨거운 곳으로 집어넣었다.

그 무렵의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미쳐 있었다.

그녀의 나신을 그릴 때마다, 그림 속의 그녀가 나를 향해 유혹하는 환상에 시달렸다. 그녀의 탐스러운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나를 집어삼키던 그 은밀한 곳을 연필 끝으로 더듬다 보면, 어느새 상상만으로도 바지춤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곤 했다.

어느새 나는 그림 속 그녀의 잔상에 매료되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너져 내리는 나를 발견했다. 언젠가 그 탐닉을 그녀에게 들켰던 날, 그녀는 말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가장 뜨거운 부분을 머금어 주었다.

그녀는 내 성기를 달콤한 사탕을 다루듯 입안에 머금고 정성스레 핥아 올렸다. 나는 나른한 숨을 내뱉었다. 따뜻한 구강 구조가 내 기둥을 감싸 쥐는 순간, 이성마저 쏟아낼 듯한 황홀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그녀가 항상 나의 가학 아래에 짓눌려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발목 아래, 발끝이 곡선을 그리며 꼿꼿하게 서서 파들거린다. 나를 원한다는 그 증거가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았다.

내가 그녀의 은밀한 꽃잎 사이로 고개를 묻고 혀로 감쌀 때면,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며 짓씹듯 내뱉곤 했다.

"더 해, 이 개자식아."

혹은 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 나의 양 손목을 결박하거나, 안대처럼 눈을 가리는 발칙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시야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그녀의 명령이 고막을 파고들 때면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네가 내 보지에 넣고 싶다고 구걸해 봐. 이 발정 난 놈아.”

그 오만한 능동성. 나에게 배운 비속어를 나를 난도질하는 무기로 되돌려주는 그 영악함이 사무치게 요염하여, 나는 결국 매번 그녀에게 패배하고 마는 것이었다.

눈이 가려진 채 그녀의 발치에 엎드리면, 내가 배운 모든 고결한 것들은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영국의 대문호들이 읊조리던 숭고한 시 구절도, 제국의 엄격한 법도도 그녀의 발등 위에서는 한낱 빛바랜 종잇장보다 가볍게 흩날렸다.

나는 기꺼이 그녀의 짭짤한 발등에 입을 맞추자, 그녀가 말한다.

“맛있니? 개처럼 발이나 핥아대고 말이야.”

내가 그녀를 타락시키기 위해 가르쳤던 그 천박한 단어들을 이제 나 자신에게 투영한다.

그래, 나는 당신에게 미친 발정 난 개새끼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완성한 이 감미로운 지옥 속으로 나를 더 깊이 처박아 주라고.

밤새 내내 넥타이에 묶였던 손목의 붉은 자국을 소매 속으로 감추며 묻는다.

“부인, 간밤에 푹 쉬셨습니까? 오늘은 괴테의 시집이 좋겠군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긋 웃고는,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제 배운 단어들이 더 재밌던데.”

〈청색을 앓는 해안선 마침.〉

참고 문헌 (References)

괴테, 요한 볼프강 폰 (Johann Wolfgang von Goethe). Faust. 제1부(1808) 및 제2부(1832). Tübingen: J.G. Cotta'sche Buchhandlung.

국역: 『파우스트』, 정서웅 역, 민음사, 1999.

로세티, 크리스티나 (Christina Rossetti). 「Remember」. Goblin Market, The Prince's Progress and Other Poems. London: Macmillan & Co., 1920 (초판 1862).

로런스, 데이비드 허버트 (D. H. Lawrence). Lady Chatterley's Lover. Florence: Tipografia Giuntina, 1928.

릴케, 라이너 마리아 (Rainer Maria Rilke). 「Ob du's noch denkst, daß ich dir Äpfel brachte」. Lieben V, in Erste Gedichte. Leipzig: Insel-Verlag, 1913, pp. 90–91. 국역: 『릴케 시집』, 송영택 역, 문예출판사, 2014.

마이어스, 데이비드 외 (David G. Myers, C. Nathan DeWall, & June Gruber). Psychology. 14th ed. New York: Worth Publishers, 2024.

사토 치야코 (佐藤千夜子). 「도쿄 행진곡(東京行進曲)」. 나카야마 신페이(中山晋平) 작곡. 빅타레코드, 1929.

색스, 엘린 (Saks, E. R.). The Center Cannot Hold: My Journey Through Madness. Grand Central Publishing. 2008.

스미스, 베시 (Bessie Smith). 「Nobody Knows You When You're Down and Out」. Jimmie Cox 작사·작곡. Columbia Records, 1929 (Recorded May 15, 1929).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芥川龍之介). 『갓파(河童)』. 개조사(改造社), 1927.

예이츠, 윌리엄 버틀러 (William Butler Yeats). 「When You Are Old」. Selected Poems: Lyrical and Narrative. London: Macmillan & Co., 1929 (초판 1892).

왕평(작사) · 이애리수(노래). 「황성옛터」. 전수린 작곡. 1928. 음반: 빅타레코드, 1932.

헤세, 헤르만 (Hermann Hesse). Narziß und Goldmund. Berlin: S. Fischer Verlag, 1930.